



2

1989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2호

(루게 496)



## ◆◆◆◆◆◆◆◆◆◆ 차 례 ◆◆◆◆◆◆◆◆◆◆

너의 운명을 지켜준다 .....	28
어머님의 눈빛 .....	28
꽃파는 처녀, 너와 함께 .....	29
꽃파는 처녀 .....	30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시형상 .....	30
투사의 모습앞에서 .....	32
생활의 심원한 진리를 완벽한 형상으로 밝혀준 혁명적 대작의 본보기 .....	33
더 높이 울려라! 200 일전투의 북소리 .....	36
끝없는 사랑의 거리 .....	37
하늘에 비끼고 강에 어리어... (외 1 편).....	39
구내의 푸른 잔디 .....	39
미래가 현실로 꽃핀곳에서 .....	40
향도성 우리러 .....	43
영웅은 말이 없다 .....	45
창밖엔 별빛의 여울 (외 1 편).....	46
소성공과 세멘트 .....	46
믿음 .....	47
영웅많은 우리 마을 .....	53
나에게 하는 말 (외 1 편).....	54
건설자의 마음 .....	54
어머니 심정 .....	55

불꽃을 사랑해, 위훈을 사랑해 .....	55
포착 .....	56
철산봉에 산다 .....	61
나는 백양나무아래서 자랐다 .....	62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 .....	65
조국의 숲 .....	66
경기 .....	68
기적소리 .....	71
청춘로반을 거닐며 .....	72
우정에 대한 시 .....	74
인생의 영원한 꽃 .....	75
어머니의 눈물 .....	76
탄광마을이야기 .....	77
압록강가에서 .....	78
간석지의 하루 .....	79

# 아, 정일봉이여 !

전병구

우러르는 이 가슴  
감격의 환호로 높뛰는구나  
아 정일봉  
빛나는 그 존함을 안고  
장엄히 솟아오른 봉우리여

위대한 그 존함을 지나자고  
물맑은 소백수 여울가에  
룡마의 발굽을 멈춰세우고  
몇천년 솟아있었더냐

힘차구나  
푸른 정기를 뿜는 마루  
만리대공의 구름을 허리에 휘감고  
청청한 밀림을 거느린 정일봉

해쫄는 이 기슭에서 탄생하시여  
조선의 아침을 맞으시며  
룡마를 불러타시고  
장검을 비껴드신 그 기상

가장 찬란한 세기를 안으시고  
밀림의 천만리를 헤쳐가실  
크나큰 뜻을  
력사의 이 봉우리에 새기신 거룩한 자욱  
내 심장속에 뜨겁게 안노라  
  
여기서 시작되었구나

우리의 무궁한 행복을 엮은  
조선의 푸른 하늘  
우리의 미래가

찬란한 래일로 내닫는  
조선의 의지  
혁명의 역센 뿌리를  
이 땅우에 더 깊이 내리우며  
자주의 봄을 꽃피우는 향도의 빛발이  
여기서 시작되었구나

오직 여기에  
오직 여기에  
천만운명의 숨결이 닿아있어  
그 언제 그 어느곳에 있어도  
우리의 혈맥은 하나로 고동쳐라

누리를 향해  
힘껏 소리쳐 자랑하노라  
영광의 봉우리  
위대한 그 존함으로 불리우는  
백두의 정일봉

통성변영하는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솟은  
혁명의 표대  
누리의 등대  
아 정일봉이여!

# 백두산에 오르신다

손승래

바람아 일지 말아 눈보라야 그쳐다오  
걸음걸음 눈속을 헤치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백두산에 오르신다 장군봉을 찾으신다

하늘을 옥물어 찢을듯  
길길이 솟구쳐올랐다가는  
하소하듯 옷자락을 부여잡고  
안타까이 태질하는 눈보라...

아직도 산정은 멀고  
바람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어느 가까운 흠타기에선  
지동치는 눈사태소리-  
더는 불안을 참을길 없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만 내려가십시다

간절히 청을 올리는 수원들의 마음  
그이께선들 어이 모르시랴만  
성에 불린 얼굴들을 둘러보시며  
다정히 이르는 말씀  
-아무리 이 길이 어렵다 해도  
《고난의 행군》에야 비하겠습니까  
이왕 내친 걸음이니  
끝까지 올라갑시다

그러시고는 다시금 앞장에서 길을 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엄하신 모습  
그날의 젊으신 장군님을 뵈옵는듯  
아, 수원들의 눈곱에 고이는 뜨거운것이어

남패자를 떠나 눈속의 백날  
걸음걸음 원쑤와 맞선 피의 백날  
한흙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과 나누시며  
조국땅우에 진달래 피는

봄을 안고오신 사랑의 백날  
어디바루인가  
불멸의 그 발자취 어린  
력사의 고장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지략  
어머님께서 옛말처럼 들려주실제  
눈보라 세차게 피창을 흔들던  
그밤의 백두산밀영은

고난의 눈보라 만리를 헤치시며  
수령님 몸소 다져주신 주체혁명의 길  
다시 또 만리 눈보라를 뚫고  
기어이 가당을 빛나는 종착점이어

그래서 푸른 하늘아래 해빛 넘치고  
꽃들은 그윽히 향기 풍겨도  
언제나 《고난의 행군》길에 서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깊으신 뜻  
오늘은 백두의 장설우에 새겨가시는가

오, 잣지 않으리 그이의 가슴에서  
통일단상에 수령님 높이 모시는 그날  
주체의 한빛으로 누리를 물들일 그날까지  
《고난의 행군》길에 올던 눈보라는  
이 땅우에 혁명의 폭풍우를 부르며  
무서운 번개되어 우뢰치리니

바람이어 불라 더욱 세차게-  
그날의 행군을 이어가시듯  
몸소 앞장에서 눈발을 헤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러러 걸음 다그치는 수원들의 앞길에  
눈보라는 꽃잎되어 날리고  
가야 할 혁명의 그 언덕인듯  
백두산은 하늘가에 빛나는 용자를 드러낸다

## 향도성 찬가

문상봉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나라의 지맥을 한 품에 안고 만리 창공을 꿰지름듯 거연히 솟은 백두산!

천지조화의 기상이 봉마다 어려있고 세상만사를 평정할 슬기가 골마다 넘쳐 흐른다는, 그래서 조선의 걸출한 위인은 이 신령스러운곳의 정기를 타고난다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조종의 산에 2월의 새날이 밝았다.

《정일봉》의 해돋이와 함께 더욱더 아름답게 물드는 백두성산의 붉은 노을!

수수천만년 한모습으로 비껴있던 저 가없는 하늘도, 시대의 변천을 묵묵히 감수하던 풍만한 대지도 오늘만은 그 넓은 가슴을 열어헤치지 않고 서는, 온 누리를 향하여 뻗치고싶은 충동을 터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영광의 아침이다.

세기적인 이 열망을 대변하는가 파도처럼 설레이는 천리 수해, 하늘땅을 진감하는 봄우뢰 소리...

백두산의 신비론 정기를 안고 《정일봉》에서 솟아오른 향도성은 만경봉의 붉은 해돋이처럼 찬란하고 장엄하였다.

세상만물에게 생을 주고 광명을 주어 꽃이 피게 하고 앞길을 밝히는 해와 별을 두고 사람들은 의식이 생겨난 때로부터 전지전능하고 만민의 운명을 의탁할수 있는 위대성의 상징으로 간주하여 왔다.

자연계에서는 해가 낮을 밝히였고 별이 밤에 빛을 뿌리었다. 하여 사람들은 한하늘에 솟아있는 해와 별을 볼수 없었으며 그것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할수 없었다.

그러나 동방의 하늘을 보라.

조선에서는 해와 별이 빛을 뿌리고있다. 태양의 파사로운 빛발이 향도성에 의하여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것이다.

우리의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해와 별이 빛나는 나라에서 사는 행복이며 기쁨이다.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닌 현실생활에서 이것은 참으로 행운이라는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그야말로 대통운이 아닐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지난날 태양의 빛발을 받지 못함으로 하여 어둠과 질곡에서 헤매이었고 수난과 시련에 찬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력

사를 더듬어 볼수록 위대한 태양과 향도성의 빛 발아래 눈부시게 전변되는 주체조선의 새 모습, 온 세상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는 오늘의 내 조국이 더없이 귀중하고 자랑스러운것이다.

이 모든 긍지와 자부심가운데서도 가장 높고 귀중한것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위대한 향도성 **김정일** 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예라고 서슴없이 대답한다.

이것은 그 어떤 추상적인 론리의 귀결이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통하여 전체 인민의 마음속 깊은곳에 소중히 간직된 세기의 위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의 감정이다.

수령의 후계자! 이는 말그대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가는 직접적 계승자이다.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후계자의 필생의 위업이며 숭고한 사명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이어가시는 과정에 발전풍부화시키신 심오한 사상리론으로 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체현하고계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으로 하여 온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며 그 누구도 허물수 없는 높은 권위를 지니게 되시였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절절한 념원과 불타는 열망을 담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혁명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할수 있는 향도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참으로 이것은 주체위업의 년대기우에 찬연히 빛나는 일대 경사이며 우리 민족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창창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력사적인 사변이다.

자주화의 거세찬 열풍을 불러일으켜 시대를 주름잡고 공산주의 새봄을 앞당기는 주체의 향도성!

자주의 빛발을 삶의 자양으로 하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인류의 향도

성으로 높이 우러르며 동방의 하늘가로 열화같은 환호를 보내고있다.

여기에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난 자리에서 한 진정어린 말을 옮긴다.

《정말 조선 당이 부럽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잘 아시는것처럼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이 다 고령기에 들어서고 혁명대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있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후계자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입니다.

오늘 많은 나라들이 조선을 부러워하는것은 바로 조선 당에서 이 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의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이 말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이어갈 후계자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해결하였다는 깊은 의미도 담겨져있다. 다시말하여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이 승승장구하는 시기에 예견성있게 수령의 후계자를 추대하여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가 숨배여있는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난 세기 맑스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이 베른슈타인, 카우프키 등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에게 룡락당할뻔했을 때처럼 혁명이 일대 위기를 겪을수 있다.

혁명위업계승문제는 사멸되어가는 현대제국주의와 판가름을 하고있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오늘의 실태에서 더욱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해와 별이 빛나는 나라 조선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것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력사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온 세상에 영광떨치고있다.

사람들이여!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운명이 걱정될 때가 있다면 세계지도를 펼치라. 거기서 조선을 찾으라.

그러면 인류력사상 전례없는 대 전성기를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펼쳐진 혁명과 건설의 대 전성기는 백두의 혁명정신, 주체의 혈통을 가장 순결하게 이어받은 전성기이며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거나 오염되지 않는 전성기이며 무궁토록 빛을 뿌릴 영원한 전성기이다.

이것은 해와 별의 혜택을 받아 삶을 꽃피우는 특전을 지닌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뿌리내린 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 동지를 위대한 태양으로, 주체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향도성으로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의 붉은 혈통을 빛내여가는 여기에 만대에

길이 빛날 우리 민족의 궁지, 조선의 영광이 있다.

X X

백두의 성스러운 봉우리위에 높이 솟아올라 누리를 밝게 비치는 주체의 향도성!

찬란한 그 빛발은 태양의 뜨거운 열과 광원을 주체위업의 완성으로 승화시키며 그 승화열로 이 세상 만물을 주체형으로 키워낸다.

우리 조국이 지니고있는 오늘의 위력과 불패성,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슬기,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신념과 의리!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끝없는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서 자양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것이다.

향도의 해빛 넘치는 온 나라 그 어데를 가보라. 보이는것마다 경탄을 자아내는 변혁과 창조의 모습들이요, 듣는것마다 흥분없이 들을수 없는 환상적인 이야기들이다.

수풀처럼 일떠서는 현대공장의 제진탑들, 완전히 자동화된 생산직장들, 금강산의 만물상을 방불케 하는 아름답고 우아한 거리들, 아아히 치솟는 발전소연체들, 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대기념비적 건축물들... 전설속의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어머니!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 편지왔어요.》

《뭐? 령감한테서?... 그래 뭐라고 썼니.》

《글쎄... 아... 글-쎄.》

《아유, 이런 답답아... 냉큼 편지를 가져와.》

《아이참... 심장이 활랑거려서... 아버지가 글쎄 백수십톤이나 되는 정류탑을... 통채로 들어 일떠세웠대요.》

《난 또 무슨 큰일이라구. 연공이 그만한 일두 못할가.》

《공사기일을 한달이나 앞당겼는데두요?》

《〈**김일성**경기장〉 건설 땐 채양을 통채루 낫춰서 공사를 40일간이나 앞당겼단다.》

《호호... 영웅의 안해가 다른데요!》

《원 애두, 이제 너두 학교를 졸업하구 사회에 진출하면 알게 될거다. 우리 시대엔 그런 일이 레사로운 날의 보통일로 되고있단다.》

레사로운 날의 보통일! 한달동안에 할 일을 순간에 제끼고도 보통일이라?... 그렇다면 하루동안에는? 초보적 계산으로도 이전에 10년이 걸려야 했던 일을 한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경이적

인가?! 그 엄청난 비약의 하루를 레사로운 날이라니?...

물론 우리 시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말을 꿈속에서 들었다고 생각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 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얼핏이라도 보고간 외국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최근 20여년 사이에 조선에서 이룩된 거창한 사회적 변혁과 세인을 놀라게 하는 기적, 이 나라의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놓고 말할 때 그 어느것이나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존함과 련결되지 않는것이란 없다. ...》

그렇다! 오늘 조선에서 약동하는 거창한 시대의 숨결은 위대한 주체사상, 백두의 혁명정신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시여 전대미문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천리혜안, 위대한 령도가 낳은 주체의 숨결이다. 그것은 태양의 위업을 필생의 사명으로 체현한 향도성이 안고오는 공산주의 봄기운이었다. 가장 열렬하고 따사로우며 사려깊은 봄기운의 자양으로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주체의 요구대로 그 모습이 일신되고있는것이다.

영광의 80년대 이 강산에 차고넘치는 주체의 활력,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열화같은 충성심의 발현이다.

어느 한 분야의 사업을 지도하시거나 어떤 한 가지 일을 조직하시여도 시작과 끝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해나가시며 주체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종시켜 풀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 잠시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자.

혁명과 건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되어나간 때가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령님을 받드시여 혁명활동을 벌리기 시작한 그때부터였다.

당안에서 양봉음위하면서 우리 혁명전통을 헐뜯고 수령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던 부르조아, 수정주의분자들의 검은 속심을 날날이 발가놓으시고 혁명의 대를 더욱 튼튼히 세워나가시던 건 인불발의 자욱자욱! 이것은 그 시기에 이룩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업적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며 그이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숭고한 표현이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안의 통일단결,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의 령도체계, 우리 혁명전통의 순결성은 이때부터 보다 확고히 담보되게 된것이다.

주체의 붉은 노을을 온 누리에 펼쳐가실 성스

런 맹세를 룡남산마루에 남기시고 향도의 해발로 주체시대를 빛내여오신 력사의 나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꽃피우실 충성의 마음안고 친애하는 그이께서 맞고보내신 심혈의 낮과 밤은 그 얼마이며 걷고 걸으시는 실무지도의 길은 몇천 몇만리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분과 초를 쪼개여 일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건강이 넘려되어 어느날 일군들이 잠시라도 휴식하시기를 간절히 권한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시는 그 충성 그리도 뜨거웁고 인민에게 베푸시는 그 은정 끝이 없으시여 아침노을을 집무실에서 맞으시고 지는 달을 실무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면서도 늘 시간이 모자라는것을 그토록 안타까와하시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기에 보면 볼수록 사람들의 눈시울을 찢릿이 젖어들게 하는 이름들이 있다.

주체사상탑,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인민대학습당, 평양산원, 빙상관, 창광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과 우리 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일떠선 이 창조물들은 결코 도시형성 과정에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한없이 극진하고 열렬한 사랑이 그대로 초석이 되고 탑이 되어 솟아난 충성과 사랑의 위대한 기념비들인것이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귀감이다.

충성과 사랑! 이것은 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민족의 영원한 번영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때문에 우리는 온 나라에 도도히 굽이치는 충성과 사랑의 대하를 주체혈통의 샘줄기라고도 부른다.

생기넘치고 활기찬 사람에게 왕성하고 건전한 피줄이 있으며 그 피줄따라 붉은 피가 언제나 넘쳐흐르듯이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맥박치고있는 주체의 혈통! 그것은 이 나라의 지맥을 한품에 안고 세기의 하늘가에 거연히 솟은 백두산에 시원을 둔 가장 신성하고 뜨거우며 가장 순결하면서도 변색을 모르는 혈통이다.

이 불멸의 혈통으로 하여 우리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기둥이 있으며 그 어떤 강적과도 맞설수 있는 일당백의 기상과 투지가 있다.

하기에 총련 한덕수의장은 백두산에 있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생가를 방문하고나서 수원들과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자그마한 귀틀집에서 탄생하시어 성장하시였기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혁명성이 투철하시고 강의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영광이며 긍지이다.

...지금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그것을 빛내이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고 계시는분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다.

그렇기때문에 만경대고향집과 백두산밀영의 생가는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보존하고 아끼며 자랑하여야 한다.》

그렇다! 백두성산에서 시원이 열린 주체의 혈통은 혁명가의 영생하는 삶의 자양이며 민족의 존엄있는 역센 기질이다.

주체위업완성의 성스런 진군길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심장마다에서 끓어넘치는 피

형은 오직 하나 주체형이다.

아, 백두의 붉은 노을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며 찬란히 빛나는 주체의 향도성!

수수천만년 한모습으로 비껴있던 저 가없는 하늘도, 시대의 변천을 묵묵히 감수하던 풍만한 대지도 오늘만은 그 넓은 가슴을 열어헤치지 않고 서는, 온 누리를 향하여 웨치고싶은 충동을 터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행복의 아침이다.

어디선가 훈훈한 봄기운이 풍겨온다. 백두런봉을 정갈하게 덮은 흰눈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누리에는 봄서기가 한껏 어리었다.

새봄을 불러오는 향도성의 눈부신 빛발을 안고 붉게붉게 만발하는 《**김정일화**》! 하늘땅을 진감하는 《정일봉》의 봄우뢰소리!...

봄, 인류의 새봄, 향도의 해발아래 활짝 꽃피날 공산주의 봄날은 2월의 백두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을 축하하노라

위쥬-꼬-위쥬 가브리엘

탄생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인류의 태양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신분

그 이름 더없이 귀중하여라

그이는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

탄생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천재적 예지와 고매한 품모를 지니신

탁월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오,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주체사상의 승리의 기치

그이는 세계혁명의 등대

그이의 령도아래 세계혁명은 전진하며

승리와 영광만을 알거니

그이는 등대

그이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그이께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탄생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그이의 만수무강과 조선의 번영을 축원합니다

(필자는 자이르조선구락부 성원임)

## 마음속에 안고사는 김정일화

강창영

빨간 꽃잎우에  
나의 행복 다 어려있는듯  
탐스런 송이송이  
내 마음 그대로 안고있는듯

가슴에 꼭 그러안고  
내 불에 쓰다듬고싶구나  
살며시 눈감고  
꽃향기 한껏 들이키고싶구나

기쁨에 겨워 한송이  
행복에 겨워 또 한송이  
피고피고 또 피는  
아 붉고붉은 **김정일**화

한번 보아도  
누구나 인생의 큰 기쁨  
마음속 깊이 간직케 하는  
눈시울 뜨거워지는 은정의 꽃

아, 진정 나의 복된 삶과  
잇닿아있는 행복의 꽃이여서  
떨수 없어라 생활의 어느 한 순간도  
마음속에 가꿔가는 **김정일**화여

꽃은 화분우에 피어도  
천만의 가슴속에 뿌리내렸어라  
꽃은 화분우에 옮겨져도  
마음과 마음속에 먼저 옮겨졌어라

오, 이 세상 꽃은  
철따라 피고 지어도 -  
우리의 마음속에 안고사는 **김정일**화  
따르는 그 마음처럼 지지 않으리

눈비가 내려도  
비바람 사나워도  
그이를 받드는 그 마음처럼  
영원히 붉게 붉게 피어나리라

## 기다리는 꽃

권강일

어쩌면 그리도 이 마음 알아준답  
어서 들어오라고 먼저 보라고...  
평양사람들이야 언제나 들릴수 있겠지만  
내사 얼마나 멀리서 왔나

혼자 온게 아니라네  
마을에서 길에서 떠나오는 역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움에 넘쳐  
**김정일**화 붉은 꽃을 보고 오라고...

옆집들에선 화분을 고르고  
누구는 꽃밭을 정하며

저마다 진정을 부탁했지  
귀중한 꽃씨도 안고 오라고...

어쩌면 그리도 이 마음 알아줄가  
온 마을이 보내준 《대표》인데  
내사 오죽 길바쁜 사람인가  
모두들 눈이 까매 기다릴텐데

어서 들어오라고 먼저 보라고...  
하지만 안내원동무야 다는 모를테지  
고향이 기다리는 꽃이야  
내 고향이 손꼽아기다리는 꽃이야

# 신임

김문창

## 1

승용차가 활주로같이 포장한 길을 쾌속으로 달리고있었다. 승용차에는 도당책임비서인 최석훈이 앉아있었다. 그는 지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으로 가는 길이었다.

보초병들처럼 길가에 줄지어선 은행나무들이 그를 재촉하듯 잎새들을 흔들었다. 목화송이 같은 구름이 거꾸로 내려앉아 흘러가는 강물이 왼쪽 길아래쪽에서 유유히 따랐다. 강바닥의 거북 등같은 바위돌들과 하얀자갈들이 그대로 말갈계 들여다보인다. 물건너에는 피나무로 뒤덮인 록음 짙은 산밭들이 줄줄이 어깨를 붙이고 뻗어있었다. 거기로부터는 진한 꿀향기가 금시 날아오는듯싶다.

승용차가 오른쪽의 말잔등같이 누운 야산굽이를 돌아 종이공장자태가 나타났다. 공장은 길에서 10여리 떨어진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인조대리 석미장을 한 벽체들과 아연도금판지붕들이 멀리에서도 번쩍이며 웃음을 짓고있었다.

최석훈은 종이공장쪽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공장은 그가 도당책임비서로 와가지고 건설을 다그어 두해전에 조업을 한 공장이었다.

공장은 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는 영광을 지니었다. 이웃도의 사업을 지도하고 돌아가시던 그이께서 도점경지대에 있는 이 공장에 들리신것이였다.

최석훈은 어제 그만 다른 군에 나가있다가 현지에서 그이를 뵈지 못하였다. 그가 소식을 듣고 종이공장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그이께서 5리쯤 거리를 두고있는 군소재지까지 한바퀴 다 돌아보시고 떠나신뒤였다. 그는 얼마나 아쉽고 서운한지 몰랐다. 그이께서 공장을 보기 좋게 지었다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시여 물론 더 바랄것은 없었다. 허지만 아무리 위안을 하려고 하여도 그 서운함을 도저히 가실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그이께서 이 아침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주신것이였다.

석훈은 그이께서 무슨 일로 부르시는지 그것을 딱히 알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중요한 과업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다는것만은 느꼈다. 웬만한 문제라면 그이께서 전화로 말씀을 주시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것이였다. 지난해에도 이 같이 부르시여 과업을 주신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였다. 전국에 일반화할수 있도록 탄광종합탈의실 본보기를 꾸리는 문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도안까지 주시였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아닌지 몰랐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종이공장을 돌아보시고 도에 시급히 주셔야 할 그 무슨 새로운 일이 제기되었을것이였다. 어느것이든지 석훈에게는 좋았다. 그것은 다 그이께서 자기를 신임하고 주시는 과업인것이였다.

(어떤 과업을 주시겠는지... 이번에도 본때있게 해제껴 그이의 신임에 보답하리라.)

그는 이제 곧 있게 될 그이와의 상봉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러자 그이의 남다른 신임과 사랑속에서 일해오고있는 행복감이 새삼스레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최석훈은 일찍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짜이에서 모시고 일하는 영광을 지녔었다. 그이께서는 일욕심이 많고 전개력이 있는데다 배짱과 어거지가 센 그를 몹시 사랑하시였다. 그이의 어머니같은 은정속에서 석훈은 성격에 구김살을 모르고 성장하였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앞에서도 무릅없이 굴며 일욕심을 부렸고 그이께 때없이 전화도 많이 하곤하였다.

아직 좁은 범위에서 사업할 때이긴 하였지만 그는 이런것으로 하여 동료들로부터 여러번 개별적인 충고를 받았었다. 그자신도 때로는 자기의 행동이 지나치게 외람되고 어딘가 무엄한 구석이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몸에 숨배인 고질적인 타성처럼 그것을 고쳐낼수가 없었다. 그이께 잘한것이든 잘못한것이든 낱알이 보고를 하지않으면 도무지 마음이 안정되지를 않아 다른 일손을 잡을수가 없었다. 그런 날이면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가도 잠까지 오지 않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석훈의 그러한 성격을 오히려 더 허물없이 대해주시였다. 그가 결

어오는 전화에 대해서도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셨으며 때로는 통담도 사양하지 않으시었다.

이런 일까지 있었다. 그날 석훈은 그이께서 다른 부문일군들과 중요한 협의회를 하고계시는것도 모르고 전화를 하였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여느때와 다름없이 긍정도 하시고 일깨워주시기도 하시며 끝까지 다 들어주시었다. 그러시고나서 《석훈동무, 전화를 간단히 하는 법도 배워야겠습니다. 동무의 전화에 불들리면 하던 다른 일이 다 식어져서 곤란한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고 가볍게 웃으시었다.

석훈은 대뜸 그이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사업을 포치하고계시던중임을 알아채고 황황히 송수화기를 놓았다.

그의 예측은 맞았다. 며칠후 그는 이것으로 하여 회의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그는 비판을 달게 받아들였다. 다시는 그렇게 먼저 전화를 하지 않을것을 맹세했다.

다음날부터 그는 그 맹세를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입술을 깨물었는지 모른다. 하루에도 몇번씩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실과 연결된 전화를 매만지며 한숨을 내쉬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이께서 석훈에게 전화를 거시었다.

《왜 요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까. 어디 앓지나 않습니다까?》

오매에도 그림던 그 친근하신 음성을 받아안은 순간 석훈은 눈곱이 확 뜨거워올라 인차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다까?》

그이의 거듭되는 물으심을 받고서야 그는 마음을 다잡고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번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부문일군들과 중요한 협의회를 하고 계신것도 모르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쨌단말입니까?》그이께서는 여간만 놀라와하지 않으시었다.

《그 문제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감추려 하지 말고 그대로 말해주시오.》

《저, 회의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 옳은 비판들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수도 하지 않으시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무엇인가를 날려버리시듯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하하... 누가 그곳에다 내가 룡으로 한 소리를 정식으로 전한 모양인데 그랬다고 석훈동무가

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고보니 석훈동무 배짱도 서툰짜리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석훈이가 도당책임비서로 떠날 때도 문가에 나와 아래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었다.

《도에 가면 여기 있을 때처럼 늘 만나지도 못하겠는데 전화라도 자주 하시오. 목소리마저 자주 듣지 못하면 내 마음 한구석이 빈것 같을겁니다.》

그래서인지 석훈은 매번 그이를 찾아뵈우러 갈때면 오래 헤어져있던 어머니를 만나는 심정에 휩싸이곤하였다.

지금도 그랬다.

승용차는 도당을 떠난지 2시간이 지나 당중앙위원회청사에 이르렀다.

## 2

최석훈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이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밀어놓고 서고 일어나 문가로 나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석훈의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고 그를 앞탁으로 데리고 가시었다.

《어제는 섭섭하게 뵈었습니다. 석훈동무를 찾으려고 하다가 먼 군에 나가있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앞탁에 석훈이와 마주앉으시자 양해를 구하시듯 미소를 지으시었다.

《제가 미리 그곳에 가있다가 맞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마시오.》 그이께서는 손을 내저으시며 재빨리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그래늘 아래에 내려가 산다는데 건강은 일없었습니까?》

《예, 전 건강합니다.》

석훈은 얼른 일어나 다부지게 생긴 앞가슴을 쭉 펴보여드렸다.

《아모쪼록 다니면서 감기에라도 걸리지 않도록 류의해야겠습니다.》

《걱정을 놓으십시오. 아직은 젊은 사람들과 씨름을 하래도 찢찌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니 나도 더 젊어지는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의욕과 정력이 넘쳐흐르는 석훈을 기쁘게 건너다보시며 어서 앉으라고 손짓하시었다.

《건설이 많은 그 도에 석훈동무를 보낸것이 잘 된것 같습니다. 종이공장을 보기 좋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군사사람들이 그곳에다 종이공장을 앓힌걸 좋아합니까?》

석훈은 재빨리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그이께서 거둬 앉아서 말하라고 하시여 할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

《군이 번창해지게 됐다고 매우 좋아들하고있습니다.》

《어제 공장을 돌아볼 때 군행정 및 경제지도 위원장동무도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내 다른 사람들도 다 실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좋아할겁니다.》

석훈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실지 공장을 조업한지 두해가 지났지만 군에서 공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른 의견을 그는 한번도 들은적이 없었던것이다.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전에 내가 수령님을 모시고 그곳을 지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군에 별통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면서도 길옆에 있는 별통들을 얼마든지 볼수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때 그 별통들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나라는 정말 어데 가나 공기가 맑고 산천이 좋은 금수강산이라고 하시면서 여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별통들을 보기 힘들던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내 그래서 석훈동무를 찾았습니다.》

석훈은 속으로 놀라면서 선듯 대답을 못하였다. 그에 대하여 그는 정확히 알고있지 못하였다. 언젠가 귀결에 별종자가 자꾸만 퇴화되어 별들이 잘 안된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났지만 그런 귀동냥으로 들은 말을 가지고 말씀을 올릴수는 없는것이였다. 석훈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도자동지, 그것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습시다.》

《끝은 그 고장의 특산물이라고 할수 있는것인데 벌써 알아볼걸 그랬습니다.》

《곧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오. 어제 그곳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장동무는 별들이 종자가 퇴화되어 그렇게 된것 같다고 했는데 어쩐지 그 말이 리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원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석훈은 그이의 말씀을 받으며 자기의 사업에서 생긴 빈구석을 깨달았다. 도당책임비서로 일하는 3년기간 자기는 큰 건설대상에만 관심을 돌리고 꿀벌같은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랑곳하지도 않았었다. 그는 그것을 깊이 자책하였다. 그이께서 꿀벌문제때문에 자기를 찾으신것으로 보아 이 문제가 갑자기 중요하게 제기된것이 분명하였다.

석훈은 그이께서 다시 말씀을 꺼내시는바람에 약간 숙였던 고개를 쳐들었다. 그런데 그이의 말씀은 꿀벌이야기가 아니였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종이공장에서 나는 냄새를 굴뚝을 통해 날려버리고있던데 어떻습니까. 기압이 몹시 낮은 때에도 일없습니까?》

《예, 그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석훈은 자신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그로서는 그럴만도 하였다. 한것은 종이공장을 건설할 때 그가 기술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해결한 문제였기때문이었다. 본시 설계자는 공장에서 나는 유해한 냄새를 지하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서 중화시켜 없애는 방법으로 설계하였었다. 그러자면 공사기일을 상당히 더 끌어야 하였다. 종이공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관심하시는 대상들중의 하나였다. 그이께서는 여러번 이 공장건설을 빨리 끝낼데 대하여 말씀을 주시였었다.

석훈은 설계일군들과 시공일군들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들과 협의도 여러차례 가지였다. 그런속에서 지하구조물대신 굴뚝을 세워 날려보내자는 안이 나왔다. 설계자를 비롯하여 몇몇 사람들은 그러면 주민지구 공기에 오염을 가져올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석훈이가 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굴뚝안》을 지지해서인지 그를 적극 찬성해나섰다. 석훈은 《굴뚝안》의 담보성을 거둬 확인해보고나서 그안대로 할것을 결론하였다. 그는 공장이 조업된 후에도 군에다 여러번 전화를 걸어 알아보았다. 한번은 기압이 몹시 낮은날 실지 읍시내를 걸어나더 보면서 공기를 가늠해보기가 힘들었다. 아무런 다른 냄새도 느끼지 못했고 또 그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석훈은 그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심하고 지내왔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자신에 넘치는 대답을 들으시자 마음이 놓이시는듯 안도의 미소를 띄우시였다.

《어제 그곳 군소재지를 일부러 한바퀴 다 돌아보고 떠났는데 나도 다른 냄새는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석훈동무의 대답을 들으니 이제 마음이 놓여집니다. 그래 이미 과학적으로 다 측정해보았겠는데 오염도가 전혀 없었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기구로 측정해보지는 않았습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석훈을 놀랍게 보시였다. 그이의 안광에서 서서히 미소가 사라지시였다.

《측정해보지 않다니 어떻게 그럴수 있습니까?》

《공기가 아무 일도 없기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이께서는 실망하신훈 고개를 가로저으시고나서 눈길을 맞은편벽 한곳에 주시였다.

방안에는 금시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밖에서는 매미들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공기를 요란스레 썰고있었다.

그이께서는 탁상에 소리가 나지 않게 주먹방아를 찧으시며 석훈을 두고 생각하시였다. 방금전에 꿀벌문제를 두고 들으셨던 그의 대답이 다시 진하게 상기되시였다. 꿀벌이 적어진 사실에 무

관심한것이나 공기를 측정해보지 않은것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다 같은것이였다. 후에것이 색채가 더 진할뿐이였다.

어제 돌아오실 때까지만 하여도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시였었다. 석훈이가 다른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벌통들에 미쳐 관심을 못돌릴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기까지 하시였었다. 그러나 공기를 측정해보지 않았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니 확실히 그렇게만 보실수가 없으시였다. 석훈에게 전에 없던 병집이 생긴것이 분명하였다. 기연가미연가 하고 생각되시여 전화로 물어보시지 않고 그를 직접 부르신것이 얼마나 잘되었는지 모르시였다.

석훈의 병집을 알게 되신 그이의 심정은 여간 무겁지 않으시였다.

그를 어떻게 바로잡아줄것인가? 배짱과 어거지가 센 석훈이였다. 그한테는 한두마디의 지적으로 그 뿌리를 뽑아버릴수 없을것이였다. 피롭더라도 이번 기회에 단단히 매질을 해야 할것 같으시였다.

한편 최석훈은 벽에 오래도록 시선을 주고계시는 친애하는 그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사업에서의 빈구석을 가슴아프게 채찍질하였다. 그는 종이공장 냄새의 오염정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보지 않은것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랐다. 아무 일도 없다는 과학적인 수치를 쥐고만 있었으면 무언때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이같이 근심을 끼쳐드리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돌아가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으십시오.》

했으나 그이께서는 그대로 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였다.

석훈은 그이의 결으로 다가가서 다시한번 말씀을 올렸다.

《걱정을 놓으십시오. 공기문제는... 일없을겁니다.》

그제야 그이께서 몸을 돌리시였다.

《과학적으로 측정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일없다고 믿을수가 있습니까. 왜 그것을 벌써 측정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야 인민들의 장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서는 사소한 에누리과 그 어떤 미흡한 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동무는 언제부터 잊어버렸습니까.》

석훈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였다. 그이의 지적이 백번도 지당하였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더 말씀을 전개하지 않으시였다. 이제 군에 가보면 석훈이 자신이 더 잘 알게 될것이었다.

《내려가서 즉시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것때문에 동무를 찾았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작별인사로 석훈에게 손을 내미시였다.

석훈은 그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나서 자리를 떠나 했으나 그는 그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그이께서는 집무탁으로 가시려다가 걸음을 떼지 못하시고 물으시였다.

《한가지 승인해주십시오.》

《뭇입니까?》

《도예다 대극장을 하나 건설했으면 해서 그렇니다.》

《대극장을?》

《예, 그결에다 큰 유원지도 하나 꾸릴 생각입니다.》

《도의 힘으로 해낼수 있겠습니까?》

《승인만 해주신다면 한해도 걸리지 않고 와닥 해제끼겠습니다.》

《그렇다면 난 반대없습니다. 해보시오.》

《알겠습니다!》

종이공장냄새를 측정하지 않았던것으로 하여 얼마간 마음이 무거웠던 석훈은 그이의 결론을 받아 저으기 기분이 풀리어 그이의 결을 떠났다.

### 3

이날 오후에 최석훈은 벌써 종이공장이 있는 군에 가있었다. 그는 전문일군들에게 공기의 오염도를 측정해보도록 과업을 주고 자신은 군당책임비서와 함께 양봉장으로 갔다.

양봉장은 군에서 20리 떨어진곳에 있었다. 근로자협회에서 관리하는 양봉장이였다. 거기에 군적으로 양봉공을 제일 오래한 두 로인이 있다는 것이였다.

승용차를 타고가다가 걸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더위는 불비같이 따라왔다. 바람도 더위를 먹은듯했다. 길에 깔린 조약돌들은 로에서 이끌거리는것을 금시 꺼낸것처럼 열을 뿜었다. 찌르러기와 매미들이 사방에서 저마끔 더위를 토막쳐보느라 애를 태웠다. 하지만 달아온 대기는 납덩이같이 엉켜붙어 실금도 내지 않았다. 뜨거운 풀냄새와 꽃향기가 숨을 막았다.

여름 산골길이 오래간만인 석훈은 남방샤쯔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도 연방 손수건을 이마와 목에 가져갔다. 뒤에 선 군당책임비서는 한줌 꺾어진 싸리나무우듬지로 실새없이 부채질을 해댔다.

천메터 가까이 걸어가서야 벌통들을 만났다.

백여개 잘되는 벌통들이 줄맞춰있었다. 그런데 그중의 적지 않은것들은 벌들이 나들지 않는 빈통들이였다.

농립모를 쓴 70고령의 로인이 양봉장어귀 한 벌통앞에 더위도 아랑곳 않고 앉아서 직심스레

벌들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서리를 물들인듯한 술진 눈썹이 수부룩한, 대가 빠르게 생긴 로인이었다.

《어떻게 이 더운 때에 여기에 와계십니까?》

군당책임비서가 로인을 알아보고 인사했다.

《여기 령감들한테 정어리를 좀 가져다주느라 구… 그런데 책임비서는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소?》

《우에서 꿀벌에 대해 알아볼것이 있어 오셨습시다.》

군당책임비서는 이미 석훈이가 시킨대로 그가 누구라는것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허, 이 양봉공령감들이 산속에 들어갔는데 큰 일이구만.》

로인이 혼자소리로 걱정했다.

《안녕하십니까?》석훈이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물었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들여다 보십니까?》

《벌들을 보지요. 저것들을 찬찬히 보시우.》로인은 나무뿌다귀같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얼마나 맥꿀들이 없나, 내려앉자마자 집안으로 쭈쭈 들어가야겠는데 이견 겨우 어질어질기여 들어가니 금년에두 꿀 잘 뜨긴 다 틀린것 같습다.》

《어째서 벌들이 저런것 같습니까?》

석훈은 호기심을 드러냈다.

《내야 잘 모르지만 양봉공령감들의 말을 들으면 종이공장때문인게 틀림없…》

《예? 종이공장때문이라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석훈은 몹시 놀라 로인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물었다.

《사람들이야 공장냄새를 잘 몰라두 벌들이야 꿀을 찾아다니는 날짐승들인데 명민해서 다 알지요. 양봉공령감의 말을 들으니 이전에는 10리밖에 가서도 꿀을 물어왔는데 종이공장이 생긴 다음부터는 벌들이 5리도 채 못난다는거웨다. 오늘두 그래서 벌들이 얼마나 나는가구 알아보겠지구

산속으로 들어갔습다. 종이공장때문에 벌들이 허약해져서 맥을 못춘다는거웨다. 작년에는 일곱통이나 줄었는데 금년에는 또 몇통이나 줄겠는지… 내 그레 군당책임비서한테는 새로 왔으니 찾아갈수가 없구 해서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에

있는 우리 집 들췌한테 여러번 말했지요. 종이공장냄새가 아무래두 공기를 나쁘게 하는것 같은데 왜 가만있는가구, 왜 도당책임비서한테라두 제기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가구. 그랬더니 글췌 도당책임비서가 내려와 그렇게 지은 공장인데 어떻게 거기에 제기하라는가구 하지 않겠습까. 그 말이 정말인지는 모르겠수다만 설사 그렇다하드래두 바른대로 말하여 이제라두 바로 잡아야 할게 아니겠습네까. 그런데두 그걸 벌치않게 여

기면서 우에 말하기를 그리두 두려워하니… 내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다 했습다. 도당책임비서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두 왜 인민들을 무서워할줄은 모르는가요요. 우에서 실지 형편을 알아보자구 내려오셨다니 내 그대도 다 얘기 했습다.》

로인의 이야기를 듣고난 석훈은 밤길을 가다가 불의에 되게 부딪친 때처럼 온몸에 무서운 전율을 느끼었다. 그에게는 실로 청천벽력파도 같은 소리였다.

그들 로인의 말을 듣고서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왜 벌통이야기부터 시작하시였는가를 깨달을수가 있었다. 그런것을 자기는 전혀 다르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였였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한것인가. 그이께서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얼마나 민망하시였으면 공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라는 말씀까지 주시였겠는가.

석훈은 자기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로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양봉장을 떠났다. 양봉공로인들을 더 만날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군당책임비서가 옆에서 따르며 《보통로인이 아니랍니다.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로동신문을 하루도 번지지 않고 보는 로인이랍니다.》 하고 설명해주는 소리도 벌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더위도 느끼지 못하였다. 로인이 한 이야기가 귀안에서 왕왕 맴돌이치며 자기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앞에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의식만을 무섭게 느꼈다.

시내에 돌아와 전문일군들이 분석한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였다. 공기의 오염으로 벌이 잘 안된다고 할 때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것이 불보듯 환한것이였다. 그의 앞에 가져온 분석표에는 비록 미세한것이긴 하지만 오염도의 수치가 뚜렷하게 적혀있었다. 수치가 적건 크건 그에게는 매 한가지였다. 그는 인민들에게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한것이였다.

석훈은 승용차를 한시간이나 타고오면서도 어떻게 왔는지 몰랐다. 도당 사무실에 이르러 의자를 꺼내 그 우에 앉자 일어날 념을 내지 못했다.

그는 여러대의 전화기가 놓여있는 책상우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실과 련결되어있는 전화기만을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입에서는 동안을 두고 꺼질듯한 한숨이 새어나오군하였다.

(아, 어떻게 보고할것인가. 아무리 미세한것이라 하더라도 공장냄새가 시내의 공기를 오염시키고있는것은 사실이고 종이공장때문에 벌들이 잘되지 않는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그런것도 모르고 그이께 아무 일도 없다고 자신을 보이면서 말씀드렸였으니 이제 무슨 뉘대로 그이께 보고를 드릴수있단말인가.)

창밖 하늘에서는 시퍼런 칼날이 무엇인가 정벌하듯 무섭게 떨어졌다. 이어 땅과 공간을 누비며

우리가 진동했다.

석훈은 커다란 바위에 눌리기라도 한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숨쉬기조차 갑갑하였다. 무엇보다 피롭고 가슴아픈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신임과 사랑을 남달리 받아온 자기가 그에게 대단한 걱정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으며 그로 하여 그의 신임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배짱이 센 그였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몸이 굳어지기만 하였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인민의 리익과 저촉되는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아무리 적은것일지라도 되게 문제를 세우신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대로 자책에 빠져 앉아 있기만 할수는 없었다. 그에게 보고를 올려 가르치심을 받아야 했다.

그때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실과 련결된 전화기가 울리었다.

석훈은 얼른 일어나 송수화기를 정중히 받쳐들었다.

《그래 군에 갔다왔습니까?》 하고 그이께서 나직이 물으시었다.

석훈은 양봉장에 다녀 온 일과 공기에 대한 측정수치를 그대로 보고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공기오염도의 수치를 거듭 확인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오래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가슴을 짓누르는 전류의 흐름소리만이 전화선을 타고 먼 공간을 무겁게 날았다.

석훈은 그 어떤 지적도 다 받을 각오를 가지고 그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었다.

《석훈동무.》 이윽고 그의 음성이 수화기를 다시 울렸다. 《그래 그 군에 자주 가보았겠는데 어떻게 되어 벌통들에 것처럼 무관심했습니까?》

《큰 건설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벌통문제가 큰 건설처럼 중요하지 않다는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만...》

《인민에 대한 관점이 바로서지 않았습시다. 정말 유감스럽습시다. 동무는 그 종이공장을 지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인민을 위해서였습니까. 그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까. 도에서 그런 문제를 당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동무가 도리어 일을 그렇게 해놓았으니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0.001 프로의 오염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아니 백프로의 맑은 공기만이 허용된다는것을 그래 몰랐단말입니까? 동무가 인민들앞에 지은 그 죄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수가 없습니다. 동무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단말입니다.》

그이의 어조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디마

디에서는 격하심과 노여움이 무섭게 울리고있었다.

석훈은 아무런 대답도 드릴수가 없었다. 금시 심장이 멎는것만 같았다, 이처럼 노여움에 차신 지적을 그로서는 일찌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었다. 지난날 그는 사업에서 잘못을 저질러 그의 지적을 받은 일이 한두번만 있지 않았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견을 관료주의적으로 내려먹어 중요한 행사를 튀게 할만한 일까지 다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지금처럼 격하시어 자격이 없다는 말씀까지는 하지 않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석훈은 심한 자책을 안고 용기를 내어 사과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으나 그이께서는 대답을 주지 않으시었다. 노여움을 가라앉히기가 매우 힘드신 모양이었다.

침묵은 다시금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런후에야 그이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그이의 음성은 전과 달리 한결 가라앉으시었다.

《하긴 나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석훈동무의 성격을 좋게만 보면서 잘 도와주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동무한테 사람들을 무시하는 요소가 있다는것을 알고 그것을 제때에 바로 잡아주었다면 설계자가 오래동안 충분히 연구하고 설계한 지하구조물을 무시해버리는것과 같은 일이 없었을것입니다.》

《...》

《동무는 이번에 자기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도당책임비서라고 하여 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신임을 다 잃어버리고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예. 자신을 심각히 총화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훈의 생각은 자기가 범한 결함의 원인을 사상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찾아 뵈을 결심이었다. 잘못을 저지른 자식은 어머니에게 먼저 용서를 비는 법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다.

《허락해주신다면 올라가 찾아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생각해보시는듯 대답을 인차 주시지 않고 동안을 두셨다가 말씀하시었다.

《내 생각에는 우선 설계자에게는 물론이구 그 군에 찾아가서 인민들한테 용서부터 비는것이 좋겠습니다.》

《... ? ...》

석훈에게는 너무도 뜻밖의 말씀이었다. 그는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

《어째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동무가 못가겠다면 내라도 대신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석훈은 황황히 대답을 드렸다.  
《그렇게 하시오.》

석훈은 그이께서 전화를 끊으신 다음에도 오래도록 전화기앞에 굳어져 서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꺼지는듯한 한숨이 다시금 소리를 내며 새어나왔다.

## 4

최석훈은 종이공장에 가기전에 그 공장 설계를 담당했던 설계원을 먼저 찾아갔다. 그한테 먼저 자기의 잘못을 빌 결심이였다. 설계사업소가 도소재지에 있으니 그를 도당 자기 사무실로 부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그는 설계사업소에 가서도 소장이 자기 방에 설계원을 부르려는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설계실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도당책임비서를 커다란 놀라움과 의아함으로 맞이하였다. 모두가 제도판앞에 일어 선채 놀란 눈으로 손에 쥔 연필을 놓을 생각도 못하고 석훈을 보았다.

《어서들 앉으시오.》

석훈은 종이공장을 설계했던 설계원이 있는 맨구석으로 들어가 그앞에 앉았다.

설계원은 앉을 념도 못하고 여안이 병병하여 선채 석훈의 뒤를 따라 온 소장을 문듯이 보기만 하였다.

《설계원동무.》 석훈은 그의 손을 두손으로 잡아 자리에 앉히며 말했다. 《난 동무한테 사과하러 왔소.》

그는 방안의 모든 설계원들이 다 들을수 있게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말했다.

《예?》

흰 머리가 섞이기 시작한 설계원은 불판을 밟기라도 한듯 흠칫 놀라며 뒤로 몸을 물려 세웠다.

《용서하오. 종이공장건설 때 동무의 지하구조물 설계를 무시한것 말ियो. 그것때문에 이렇게 찾아 왔소.》

《아니,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설계원은 자기쪽에서 도리어 죄라도 지은듯이 뒤걸음을 쳤다.

《지나간 일이 아니요. 동무의 설계대로 하지 않았던탓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군내인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소. 그것을 이번에 종이공장에 들리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견해 주시였소. 그이의 심각한 지적을 받고 이렇게 동무한테 용서를 빌러 왔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요?!》

설계원의 커다란 눈가에는 당장 물기가 어리었

다. 설계실안의 여기저기에서도 경탄과 흥분한 목소리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

석훈은 군에 가서도 군문화회관에 초만원을 이룬 군안의 기관, 기업소 책임자들과 읍내 인민반장들, 가두녀성들 앞에 나가 용서를 빌었다. 인민들은 그의 사죄를 뜨겁게 받아 주었다.

그는 인민들에게 사죄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당장 공장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지하 구조물공사를 다그치는것으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 보려고 했다. 그는 그날로 그 조직사업을 하였으며 기초굴착작업이 시작되자 런닝그바람으로 먼저 뛰어 들었다.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과 가두인민반들에서도 한결같이 지원해 나갔다.

석훈은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 놓고 평양을 향해 종이공장을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개운치가 않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떻게 대해 주실지 아직 알수가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석훈을 문가에서 맞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너그러운신 미소를 짓고 계시였다. 그것은 중요한 일을 하고 돌아온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미소와도 같았다. 그 웃음은 석훈의 가슴에 천만근으로 매달려 있던 시름을 한순간에 봄서리처럼 녹여 주었다.

《갔다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석훈은 반갑게 내미시는 그이의 손을 두손으로 뜨겁게 잡았다.

그이께서는 석훈에게 손을 내맡기신채 그를 안락의자에로 이끌어 가시였다. 석훈은 꿈속에서처럼 그이께 이끌려 안락의자에 갔지만 감히 앉을수가 없어 그대로 서있었다.

《왜 앉지 않고 그러니까? 어서 앉으시오. 앉으라는데두.》

그이께서는 석훈의 손을 잡아 당기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석훈은 자신이 그이 곁에 앉는것을 허락할수가 없어 그대로 선채 군에 갔다온 일을 보고 드렸다.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깊게 들으신 그이께서 저으기 흥분하시며 말씀하시였다.

《그곳 인민들이 그렇게 용서해 주었다니 뻘입니다. 정말 우리 인민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인민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민과 같이 너그럽고 훌륭한 인민은 없을것입니다!》

석훈은 저으기 흥분에 젖어 계시는 그이의 기쁨에 어느새 저도 모르게 끌려 들어 가며 웃음을 병긋하니 입가에 띄웠다.

《전 이번에 심각히 자기를 깨달았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님께서 자란 제가 어떻게 되어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뵈을 낫이 없습니다.》

《그래 그 원인이 어데 있는것 같습니까?》

《지도자동지, 제가 자신을 은연중에 인민우에 올라 앉은 그 어떤 권력으로 여긴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옳게 찾은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만시름을 덜으신듯 안락의자 팔걸이를 주먹으로 즐겁게 두드리시며 석훈의 손을 잡아 당겨 자리에 앉히시었다. 그 이께서는 석훈이가 스스로 병집을 찾아 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시었다. 며칠동안 피로우셨던 가슴이 일시에 다 풀리어 나가는것 같으시었다. 전화로 그를 책하실 때는 가슴이 아프시여 한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누르기까지 하시였었다. 전화를 하시고 나서도 온밤 집무실을 떠날수가 없으시여 동살이 잡힐 때까지 그대로 집무탁에 앉아 계시였었다. 석훈에게 자격이 없다고까지 나무라신것이 가슴에 무직하니 매달려 내려가지 않으시었다. 동시에 인민들이 그를 어떻게 대해줄는지 그것이 또한 걱정되시여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으시었다. 인민들이 과연 그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겠는지?...

그랬는데 어저께 그곳 군에서 올라 온 반응을 보니 인민들이 그의 용서를 진심으로 기쁘게 받아준것 같았다. 그것을 보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시었다.

그이께서는 바라셨던 대로 인민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온 석훈이가 여간 대견스럽게 보이지 않으시었다.

그이께서 못내 기뻐 하시는것을 보고 석훈이는 더 깊은 자책감에 잠겨 엉겨주춤 일어 서며 말씀을 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번 일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말을 막으시며 자리에서 일어 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석훈의 팔굽을 다정히 잡으시고 부드럽게 웃으시었다.

《석훈동무, 인민들한테서 용서를 받았으면 뻔지 왜 나한테 또 용서를 빕니까.》

《... ! ...》

《됐습니다! 이제 다 뻔단 말입니다.》

그이께서는 경탄에 젖어 서있는 석훈의 팔굽을 유쾌하게 흔들어 주시고 안락의자앞을 가벼우신 걸음으로 오가기 시작하시었다.

그이를 존경에 차서 우러르는 석훈의 가슴속에 서 불문치 같은것이 건잡기 어렵게 치솟아 올랐다. 그로서는 참말 꿈에서조차 상상해볼수 없는 말씀이시었다.

석훈은 자기의 눈에 물기가 어리는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씻을 념도 내지 못하고 숨얼한 감정에

휩싸여 그이를 우러르기만 하였다.

그이께서는 석훈에게 즐거우신 미소를 계속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난 어저께 그 군에서 올라 석훈동무에 대한 그곳 인민들의 반응을 듣고 몹시 기뻐합니다. 도당책임비서가 온 용서를 빈것을 가지고 매우 기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 잘못을 씻기 위해 런닝그바람으로 일까지 한다고 평판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이번에 석훈동무를 두고 은근히 걱정이 컸었습니다. 도에 가서 건설도 많이 하고 다른 일도 적지 않게 내밀였지만 과연 인민들이 동무를 실지로 얼마나 신임하고 있을가 하고 말입니다. 동무나 나나 인민의 신임을 잃으면 다가 아닙니까. 어떤 일군들은 아직도 인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우에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기 위해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일군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의 신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석훈은 계속 그이를 우러르기만 할뿐 아무런 말씀도 올릴수가 없었다. 목이 메여 오르기만 하였다. 그러니 그이께서는 잃을번한 신임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인민들한테 용서빌려 자기를 보내주시것이 아닌가.

웬일인지 이 순간 석훈에게는 도당책임비서는 무서워 하면서도 인민을 무서워 할줄 모른다고 하던 그 공로자협회 로인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랬다. 석훈 자신이 그랬다. 그는 인민들이 자기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나 아랑곳하지 않고 지내왔었다. 아니, 그에 대해서는 알고도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인민의 신임을 영영 잃을번 하였었다. 그런것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 신임을 되찾아 주시었다!

석훈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신임이 바로 어데 있으며 인민의 신임이 곧 그이의 신임이라는 것을 이번에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 참말로 인민의 신임을 떠난 당과 수령의 신임이란 있을수가 없는것이다.

석훈은 한생을 걸어 가면서 생활의 철리로 삼아 야 할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심장속 맨 깊은 곳에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또박또박 새겨 넣었다.

# 금별의 대하속에

-전국영웅대회에 참가하여-

윤영탁

은하같이 눈부신  
금별의 바다  
온 대회장이  
목메여 목메여 우러르는 이 시각

터져오르는 환호성  
만세의 폭풍속에  
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몸소 영웅대회장에 나오시여라

위훈의 별바다를 이룬  
영웅전사들 대오가  
그리도 미덥고 대견하시여  
다시다시 바라보시는 아버지수령님  
그지없이 기쁨에 잠기신 그 모습 우러러  
친애하는 그이께서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여라

아버이수령님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충성의 귀감이 되시여  
전사들이 걸어야 할 위훈의 길을  
앞장서 걸으신 그이

수령님 바라심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고  
백년 래일도 앞당겨 기쁘드리시며  
그 길에서 우리모두의 삶을  
위훈의 언덕우에 세워주신 그 사랑

위인의 손길에선  
조약돌도 보석이 되어 빛난다더니  
어제날같으면  
한가정 자식도리도 다 못하던 아들딸들을  
영원한 충성의 별로  
아버이수령님앞에 내세워주셨으니  
정녕 그 은정에 목메여 눈물짓는것이  
어찌 혈전만리를 헤쳐온  
항일의 로투사들  
결전의 날의 영웅전사들만이라

백금산의 영웅소대원들도  
갑문을 세운 나어린 영웅전사

북부철길의 청년영웅전설자도  
사랑과 믿음으로 넓어진 가슴 펴고  
수령님 우러러 선 이 시각

자신도 미처 모르고 한 소행이  
나라에 그리도 큰 보탬을 주었다고  
숨은영웅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저 단발머리 소조원처녀도 눈물짓고...

참으로 가슴가슴에 빛나는 금별혼장  
그것은 아버지수령님 바라시는 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앞서 걸으신  
충성의 자욱  
그 길우에 우리모두를 손잡아 이끌어주신  
고귀한 사랑의 빛발이거니  
진정 그이는  
이 나라 영웅전사들모두의 스승

키워주신 전사들 가슴마다엔  
금별혼장들이 별바다를 이루었던만  
영웅중의 영웅이신 그이께선 어이하여  
오늘도 혼장 하나 안다시였는가

우러러 복받치는 간절한 생각  
우리모두의 가슴가슴에 빛나는  
은하같은 이 혼장들을 모두 모아  
수령님 모시고 그이 가시는 길에  
그대로 별주단을 펴드리고싶어라  
그대로 금별의 방식을 수놓아드리고싶어라

아, 우리 인민모두가 영웅이 되는것이  
수령님 제일 바라시는 기쁨이라고  
언제나 이 나라 아들딸들을  
충성의 한길에 세워주시나니  
그이 가꾸어가시는 이 강산 어데나  
영웅의 땅으로 길이 빛나리라

온 조국강산에 차넘칠  
그 눈부신 금별의 대하속에  
천년을 만년을  
아버이수령님 모시리라  
천년을 만년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받들어가리라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는

## 시대적 열정과 시문학의 새로운 세계

-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노래하는 시작품들에 대하여 -

리수립

노래가 울린다.

시대의 창공높이 온 누리에 퍼져가는 흠모의 노래.

위대하고 은혜로운 향도성을 우러러 노래는 노래를 잇고 노래는 다시 새 노래를 낳으며 수많은 노래들이 시대의 창공에 메아리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높이 빛나고 그이를 우러르는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열정이 나날이 높아만가는 오늘의 우리 시대는 진정 다함없는 송가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세상에 태어나고 백두의 **《정일봉》**이 그이의 존함으로 불리우게 된 감격적인 사변, 이것은 회세의 위인을 우러러 따르며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전하려는 만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의 발현으로서 그이를 흠모하는 열정이 얼마나 거창한 시대적 규모에서 높이 불 타오르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준 궁지높은 역사적사실이다.

시는 열정의 산물이며 그 정화이다.

시대적 열정의 높은 령마루에서 우리의 시문학이 가슴헤쳐 흠모의 송가를 부른것은 생활감정의 필연이었으며 력사의 의지에 대한 숭고한 자각의 발현이었다.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노래하는 시작품들의 왕성한 창작을 통하여 우리의 시문학은 또 한걸음 크게 전진하고 있다.

### 1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노래하는 시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는 송가문학의 형상세계를 한단계 높이 발전시켰다.

이 주제의 작품들은 형상의 폭을 전 인류적인 차원과 력사의 전 로정을 타고 비상이 확대하면서 그것을 감정의 깊이와 위대성 형상을 새로운 높이로 전진시켰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령도자의 위대성을 서정적 형상으로 부각하기 위하여서는 전 사회적인 폭과 운명적인 깊이를 가진 시적 열정이 요구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서 전체 인민을 한 품에 안고 운명개척의 길로 이끄는 수령을 노래하려면 그의 위대성을 전 사회적 규모에서 담을수 있는 열정의 거창한 폭이 있어야 하며 인민대중의 운명선상에서 밝힐수 있는 열정의 웅심깊은 심도가 있어야 한다. 열정의 전 사회적인 폭과 운명적인 깊이의 통일은 위대성을 천명하는 송가적 열정의 근본 특질이다.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노래하는 시인들은 영광의 사적을 위대성의 건지에서 파고 들면서 종래의 송가작품들에 있어본적 없는 참으로 웅대한 폭을 가진 열정을 체험하였다.

한 외국인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존함을 모신 새 꽃을 육종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지성과 노력을 바쳐 드디어 그 소원을 이룩한 감격적인 사연과 백두산의 장군봉과 더불어 백두밀영의 고향집을 웅위하듯 높이 솟은 봉우리에 만민의 념원을 담아 그이의 존함을 모시게 된 영광의 사연은 위대성에 관한 시인들의 정서적체험의 폭을 만민과 력사에 두고 마음껏 펼치게 한 생활바탕으로 되였다.

**《김정일화》**는 위대성에 관한 체험을 우리 인민만이 아닌 전 세계진보적 인류의 시점, 만민의 웅대한 사상감정으로 파악할수 있게 하였으며 **《정일봉》**은 그것을 과거와 오늘날이 아닌 전 력사적 시대의 줄기찬 로정으로 확대하고 위대성의 본질을 혁명의 과거와 미래를 한줄기로 이은 웅대한 사상감정속에서 파악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송가 형상을 새롭고 보다 높은 경지로 전

진시킬수 있게 한 결정적조건이었다.

...

피여오른 저 붉은 꽃잎은  
참된 삶의 향도가 그이께 매혹된  
만사람의 그 열화  
그 심장이 아닌가

...

아, 뜨거움이 설레이는 이 시각  
나는 불멸의 꽃을 본다  
크나큰 심장, 높으신 뜻으로  
인생의 터전에 봄빛을 주시는  
그이를

따사롭고 밝은 우리의 세계를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이  
한생의 운명을 맡긴 그이 거룩하신 그 미소 만  
리에 빛발치고  
흠모의 마음, 따르는 마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온 세상에 격동의 파도가 이는  
이 세월...

시 《붉게 핀 꽃송이앞에서》 (안창만 《조선문학》 1988년 9호)에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우러러 위대성을 전 인류적 차원에서 통감하는 폭있고 웅대한 감정이 굵이치고 있으며 전 세계 진보적인류의 사상감정을 대변한 서정적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다. 이 웅건한 감정의 령마루에 어느덧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영상이 따사롭고 밝은 자주의 새 세계인양 부각되고 있으며 인생의 터전에 쏟아지는 봄빛으로, 대륙과 대양 넘어 만리에 빛발치는 거룩한 미소로 정서깊이 안겨지는것이다.

시의 형상세계는 웅건하고 철학적인 양상을 가지면서도 지극히 감성적이다. 그것은 폭을 가지면서도 폭에만 치중하는 일면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으며 거창한 폭으로 펼쳐지는 감정을 자주적인 새 세계를 발견한 만민의 억제할길 없는 환희의 감정과 깊이 연결시켜 령도자의 위대성을 정서적으로 밝혀나가고있다.

《정일봉》을 노래하는 시작품들은 이와 달리 감정의 넓은 폭을 령도의 유구하고 원대한 공간에 터전을 두고 즐기치게 펼친다.

...

산정에 얹힌 바위벼랑  
절벽가에 서 있는 한그루 나무에도  
비껴 있어라  
그날에 휘몰아 친 눈보라  
밀림에 울리던 항일의 총포성  
불굴한 백두의 정신을 새겨안고  
펼쳐이던 혁명의 붉은기폭이

여기서 나는 보노라

무궁하고 창창한 미래를 기원하는

인민의 념원이  
충충이 쌓이고쌓여 있는것을  
누리에 가득히 내리는  
밝은 해빛이 다 모여 있는것을

보노라, 먼 후날의 세기에까지  
주체의 혈통을  
만년초석으로 영원히 이어 갈  
우리 당의 기상  
위대한 령도자의 그 의지를

...

시 《정일봉-제일봉이여》 (오영재 《로동신문》 1988년 9월 25일)에서 정일봉의 웅자를 우러르는 시인의 열정은 주체시대의 시원이 열린 항일의 어제날에도 거슬러 오르며 다시 그것은 주체위업이 빛나게 완성될 창창한 미래에도 즐기치게 굵이친다. 령도의 무한한 시간을 걸어 안고 폭있게 즐기 뻗는 이 열정은 피바다속에서 개척된 주체의 새 시대를 영원한 미래에로 굳건히 이어갈 인민의 절절한 기원과 깊이 련결되어 위대성을 부각하는 서정적 형상으로 승화된다.

하여 폭 있게 절절하게 펼쳐지는 열정을 타고 정일봉의 웅자는 어느덧 불굴의 기상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의 영상으로 숭엄하게 솟아 오른다.

시의 폭 있는 형상세계가 가지는 참된 의의는 령도의 미래를 한손에 틀어 잡으신 희세의 위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높이 부각한데 있다.

위대성을 부각하는 시적 열정의 거대한 폭은 이처럼 우리 시대의 감격적인 령도적사실에 의하여 조건지어지고있으며 그것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악하기 위한 시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안반침됨으로써 빛나는 형상을 낳고있다.

사실 지난 시기에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노래하면서 위대성을 전 인류적 차원과 령도의 전 로정에서 폭 있게 파악하고 칭송하려 한 작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지난날에 창작된 세계의 향도성을 노래하고 2월의 명절을 노래한 일부 작품들을 두고 말할수 있다.

우리 시문학이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불멸의 봉우리 《정일봉》에 대한 감격적인 사실을 노래하게 됨으로써 시인들의 창작세계에는 양양된 시대적 열정이 현실적인 바탕을 가지고 더욱 힘있게 흘러들게 되었으며 송가 형상이 폭과 깊이를 더욱 튼튼히 결합하게 되었다. 이것은 위대성 형상이 온 세계와 령도의 전 로정을 확신성 있게 걸어안고 새로운 높은 세계에로 오를수 있게 한 근본조건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시문학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형상은 만민의 향도성으로, 인류의 운명을 오늘날이 아니라 령도

의 먼 앞날에로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세계의 위인으로 더욱 높이 솟아 오르게 되었다.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노래하는 송가적  
작품들이 보여준 새로운 경지는 또한 민족제일주  
의정신을 투철히 구현함으로써 칭송의 열정을 최  
상의 높이로 터쳐 올리게 한데 있다.

시인들은 빛나는 사적들이 체현하고있는 더없  
이 긍지로운 내용을 감정의 구체적인 논리로써  
설득력있게 형상하면서 그것을 절대적이고 유일  
무이한 경지로서 밝힘으로써 송축의 감정을 가장  
열정적이고 격동적인것으로 되게 하였다.

위대성을 절대화하는 가장 진실하고 설득력있  
는 감정의 논리와 열정의 깊이를 보여주는 바로  
여기에 이 주제 송가문학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것은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송가 형상에 구현하  
기 위한 시인들의 창작적탐구와 노력의 열매로써  
이루어진것이다.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노래하는 시문학  
은 불멸의 사적이 가지는 긍지높은 경지에 고무  
되면서 그것의 유일무이한 세계를 심오히 파고들  
었으며 형상의 논리우에 설득력있게 구현하는데  
힘쓰고있다.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한 설득력있는 형상의  
창조는 감정의 대조를 높은 차원에서 조직하고  
있는데서 특징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시작품들은 불멸의 사적이 가지는 절대적인 의  
미를 인류사의 무한대한 시공간에 놓고 감정흐름  
의 강한 대조를 통하여 예리하고 설득력있게 노  
래해 나가고 있다.

...

그 어디 있었던가  
이 땅 이 하늘아래  
저렇듯 빛과 모양이 조화를 이룬 꽃  
무색하구나 내 알고 있던  
천만꽃의 아름다움은

땅의 자양속에  
네 뿌리를 내렸다면  
태양의 빛발이  
네 꽃피여났다면  
꽃이어 네 모습 그처럼 아름다우라

...

너는 그대로 흙모의 시  
너는 그대로 축원의 찬가  
친애하는 그이 주체로 밝히시는  
찬란한 미래를 받아안고  
온 세상이 분출한 환희의 심장!

...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노래한 시 《소원속에,  
념원속에》(박철, 《조선문학》1988년 7호)의 감  
정세계는 이세상의 천만꽃과의 대조속에서 그 꽃

들이 감히 겨룰수 없는 가장 높은 경지의 아름다  
움으로 승화된다. 이 아름다움의 본질, 절대적이  
며 유일한 경지는 위대한 사상과 령도를 높이 흠  
모하는 만민의 진정이 피운 꽃이라는데 있다. 시  
인의 설득력있는 주장은 찬란한 미래를 받아안고  
온 세상이 분출한 환희의 심장이라는 형상적이  
며 철학적인 시구에서 감명깊게 집약되었다. 이  
시구로 하여 형상의 설득력은 확정적인것으로 되  
고있다.

여기서 우리는 높은 차원에서 감정을 대조적으  
로 구성하는것과 함께 그 최절정에서 정서적 해  
명에 의한 철학적심도를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함  
을 느끼게 된다. 시작품들은 이면에서도 적극적  
인 탐구를 기울이고 있다. 시 《불게 핀 꽃송이앞  
에서》의 한구절을 들기로 하자.

...

자연의 조화가 이르지 못한 곳  
인간정신의 아슬한 절정우에  
불게불게 피여올라 나를 부르는 꽃이어  
내 또한 다시 불러보는 그 이름이어!

...

얼마나 좋은가. 자연의 조화가 무색한 그 절정,  
인간정신의 아슬한 절정우에서 불게 피여오르는  
꽃, 이것은 《김정일화》가 지닌 미의 절대적인  
높이에 대한 참으로 설득력있는 철학적해명이다.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대조와 정서  
적 해명의 철학적심도로 하여 이 주제의 시들은  
칭송의 열정을 활화산마냥 터치면서 커다란 감화  
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는 시 《정일봉-제일봉이어》에서  
더욱 선명히 부각되고 높이 고조되었다.

시는 백두의 정일봉을 이 세상 어디서나 바라  
보이고 사람들 어디서나 안고 사는 신념의 제일  
봉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한다. 이 세상에 오직 하  
나뿐인 신념의 제일봉, 이것은 민족제일주의정신  
의 높이에서 사적이 가지는 의미를 설득력있게  
밝히기 위한 노력의 빛나는 열매이며 칭송의 열  
정을 세차게 지펴 올리는 철학적인 발견이다.

하기에 시인이 정일봉을 우러러

...

인류의 리상으로 아름다운  
공산주의 붉은 노을을 피워 올리며  
영원히 솟아 빛나라  
백두의 한복판에  
누리의 한복판에

라고 격조높이 노래를 맺을 때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한없는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안  
겨주며 사람들을 힘있게 공감시키는것이다.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노래한 시작품들  
의 형상세계는 이처럼 송가문학 창작에서 칭송의

열정을 양양시키는 기본담보가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투철히 구현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서정적 형상을 진실하고 설득력있게 구성하며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인류의 운명과 그 미래를 **한몸에** 지니신 만민의 향도성, 력사의 향도성으로 위대성 형상의 폭을 비상히 확대하고 민족제일주의의 가장 높은 경지에 칭송의 열정을 끌어 올린것으로 하여 이 주제의 시 작품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노래하는 혁명적 송가문학을 새로운 발전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 2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노래하는 시작품들의 새로운 경지는 위대성을 주제로 하는 시가문학의 형상세계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킨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특히 《**김정일화**》를 노래한 시가작품 창작을 통하여 꽃을 노래하는 독특한 형상계렬의 가사문학에서 획기적인 진일보가 이루어 졌다.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에 위대하고 긍지높은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을 상징하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기개 높은 꽃들의 형상에 바쳐진 가사문학들이 특징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어느새 하나의 커다란 작품권을 이루게 되었다.

언제나 한모습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며 (《해바라기의 노래》 백인준), 남해가에 피는 만경화 (《만경화》 안창만), 순결하고 강의한 민족의 기상을 담은 조선의 목란꽃 (《만수대의 목란꽃》 리정술) 이며 눈속에서 피어웃는 백두산의 만병초 (《백두산의 만병초》 안호근), 봄의 선구자 진달래꽃 (《조국의 진달래》 박필모) 등 꽃에 대한 노래는 우리 시가문학에서 하나의 풍만한 화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자기의 독특한 형상으로 하여 대중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다.

꽃을 주제로 하는 지난 시기 가사 작품들의 형상세계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 초상이었으며 주도적 감정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가사 《**김정일화**》(박미성)는 이러한 형상세계를 대담하게 넘어 꽃의 형상을 우리 당의 위대성을 숭찬하는데로 지향시켰다. 시인은 위대한 영상을 불멸의 꽃속에 모시어 흠모의 열정을 더욱 높이 부각하는 방향으로 형상을 새롭게 탐구함으로써 드디어 위대한 인간세계와 꽃의 형상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꽃의 생동하고 선명한 형상속에 령도자의 위대한 영상을 부각하려면 꽃속에 위대한 세계를 투영할수 있는 비상한 예술적 환상력을 가져야 한

다. 이러한 환상력은 무엇보다도 령도자의 위대한 풍모를 생활속에서 정서적으로 깊이 파악하는 체험의 심오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을 꽃의 특징적인 표상속에 구현할수 있는 형상적 사고의 섬세성, 독창성에 의거하고 있다.

시인은 서정 문학의 요구에 맞게 위대성을 외적인 표상으로써가 아니라 위대한 인간세계의 정서적특징으로 보다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꽃의 형상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위대한 풍모를 매혹적인 꽃의 형상으로 선명하게 부각한 명가사를 창작할수 있었다.

...

꽃잎을 바라보면 그 열정 안겨오고  
푸른 잎새 바라보면 그 정기 어려오네  
아, 붉고붉은 충성의 **김정일화**  
송이송이 그 모습을 가슴에 안고살리

붉고붉은 꽃송이에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는 불타는 혁명적열정을 느끼고 설레이는 푸른 잎새마다에서 청신하게 썬웃는 정기를 받아안은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하신 인간세계에 대한 참으로 적중하고 특징적인 형상이 있다. 위대성에 대한 이토록 간결하고 집약된 정서적 표현은 결코 쉽사리 찾아낼수 있는것이 아니다. 오직 위대성에 대한 시인의 심오한 체험과 그것을 특징적인 형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진지한 사색만이 불멸의 꽃에 위대한 세계를 깃들수 있게 하였으며 위대한 영상을 꽃의 형상위에 성과적으로 부각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가사 《**김정일화**》는 단순한 꽃의 노래, 꽃의 유래나 아름다움만을 노래하는 가사가 아니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흠모의 열정담아 노래하는 충성의 송가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꽃을 노래하는 우리 시대 명가사의 화원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풍만한 화원을 한층 더 빛내이게 되었다.

꽃을 노래하고 봉우리를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위대한 령도자의 세계를 감명깊이 부각하며 열렬히 칭송하는 위대성에 대한 송가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오늘 불멸의 사적을 형상하는 시인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시가형상의 보다 높은 과제라고 말할수 있다. 실천적성과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 과제 해결의 기본열쇠는 위대한 풍모, 위대한 생활에 대한 심오한 체험에 있으며 **그에** 튼튼히 뿌리박은 형상적 사고의 참신성에 있다. 형상적 사고가 체험의 터전우에서 더욱 활성화될 때 우리는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노래하는 더 많은 명가사, 명작들을 가지게 될것이며 그것을 귀중한 예술적 재보로 대를 두고 간직하게 될것이다.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노래하는 시세계의 형상적 다양성은 아동시가문학 특히 동요 창작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요मुख을 《온 세상이 찾아오는 꽃》은 그 대표적인 레로 된다.

불멸의 사적을 노래하는데서 이 작품들의 새로운 형상적 탐구를 단순히 동요형식 이라는데만 귀착시키는것은 정확치 못하다. 물론 이 동요मुख은 자기의 형태상 특성과 관련하여 서정적 주인공을 보다 구체화하고 흠모의 송가를 아동들의 생활감정으로 형상하는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시사하고있다. 그것은 령도자의 위대성과 불멸의 사적을 본격적인 송가형상으로 노래하는 한편 서정적 주인공의 흠모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생활적인 시형상에 담아 노래하고있는 점이다.

동요मुख가운데 있는 일련의 작품들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아동들의 구체적인 생활세계속에서 보여주면서 흠모심을 뜨겁게 밝히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송가적 작품들과는 또 다른 인상과 독특한 감화력을 얻고있다.

새별은 반짝  
고개 가우뚱  
**김정일화** 곁에  
그려놓고서

나는야 엄마보고  
물어보았지요  
이 그림에 꽃향기  
못담을가요

안타까워 엄마얼굴  
바라보는데  
우리 엄마 내 머리  
슬어주시며  
그림속에 향기를  
담고싶어서  
애타하는 내 마음이  
꽃향기래요

동요 《향기》(송봉렬)에서는 《김정일화》를 정성껏 그림에 담아보려 애쓰는 서정적 주인공의 동심어린 가룩한 마음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생활적인 형상과 더불어 더욱 인상깊게 뜨겁게 돌구어지고있다.

형상의 초점은 명백히 아동주인공의 흠모심에 있으며 시인은 흠모의 진정을 아이깊이 부각함으로써 불멸의 《김정일화》를 더욱 빛내이고있다.

이것은 《김일성화》, 《김정일화》 활짝 핀

강산에 서 그 꽃을 우러러 천만송이 꽃봉오리 따라 피련다는 동요 《우리 나라 꽃동산》(김승길)의 동심적인 지향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낄수 있는 새로운 형상세계이다.

이것은 위대하고 숭고한것을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시대 인간의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생활감정에 모를 박아 노래하는 방법이며 불멸의 사적을 다양한 시세계에 담으려는 적극적인 시도이다. 이것은 불멸의 사적이 가지는 위대한 의의를 생활로써 힘있게 확인하며 흠모의 열정을 다양한 생활감정속에서 더욱 인상깊이 부각하며 충실성 교양을 폭있게 수행하는데 이바지한다.

아동시문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창작적 움직임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현실과 불멸의 사적을 송가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일반서정시 형식으로도 적극 반영함으로써 위대성과 충실성에 대한 서정적 형상을 풍부하게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나아가서 우리 시문학은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혁명적 서정의 근본원천으로 시세계에 더욱 굳건히 자리잡게 하여야 한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오늘 우리의 시세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혁명적 서정의 영원한 원천으로 다각적으로 노래되고 있듯이 《김정일화》와 《정일봉》도 우리 시대의 위대한 내용과 우리 인민의 주도적 감정을 노래하는 영원한 주제대상, 영원한 원천으로 되어 다양한 주제의 혁명적인 시세계에서 중심적인 작용을 놀게 되어야 할것이다. 벌써 이러한 창작적 움직임이 선명하게 나타나고있다. 시 《우리의 기발은 하나》(박호범 《문학신문》 47 호)만 보아도 정일봉의 기개높은 웅자가 형상세계에 뚜렷이 비끼고있다.

백두밀영의 귀틀집 트랙에서 힘차게 날리는 붉은기를 바라보는 서정적 주인공의 신념과 의지를 노래하면서 시는 자기의 결구들 이렇게 맺고있다.

...  
아,  
장군봉이 하나이듯이  
정일봉이 하나이듯이  
누리를 붉게 물들이며 영원히 들고갈  
우리의 기발은 하나!  
우리의 기발은 하나!

백두의 장군봉과 정일봉에 의탁하여 혁명적 열정을 높이 승화시킴으로써 신념의 절대성, 유일성이 더욱 인상깊이 울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혁명적인 시세계에 확고히 받아안고 나아가는 우리 시문학의 드팀없는 자세와 립장을 뚜렷이 보여준다.

《김정일화》와 《정일봉》을 주제적 시가문학



에 혁명적 서정을 주는 근원적이며 영원한 주제 대상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바로 여기에 이 분야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위대한 현실은 훌륭한 예술을 낳는다. 그러나 위대한 현실이 빛나는 예술을 낳은 시대에는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상이 위대한 그만큼 시인의 리상과 열정도 높아야 하며 대상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만큼 시인의 사색과 환상, 기교가 비상한 높이에 올라서야 한다. 시인들은 위대한 현실이 부과한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더욱 분발해나서야 한다.

세월은 흐르기마련이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상만물도 변하기마련이다.

하나 위대한 향도성을 받들어 자주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온 세계 진보적 인류의 장엄한 진군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위대한 향도성을 우리러 힘모의 송가는 대를 이어 이 땅위에 영원히 개화만발할것이다.

## 다음 세기의 언덕우에

### 안창만

기대공이 붙어있지 않아도  
기대들이 저 혼자 돌아가는  
환희로운 구내길  
연기없는 은빛 굴뚝이  
맑은 하늘가에 키를 솟군  
신기한 구내길

넓은 구내 어디라없이  
다 익혀두고싶으신듯  
다 밟아보고싶으신듯  
걸으시여라  
소성랑하우에 원료밀랑하우에  
귀중한 자옥을 새기시며  
아찔한 부유탕우에  
뜨거운 시선을 엮으시며...

20 대의 짧은 기사 몇이서  
온 공장을 움직이는  
중앙자동조종실에 이르시여서는  
사색의 나래를 펴시며  
그 몇시간  
자신께서 조종사가 되시여  
푸른 빛 단추도 친히 눌러보시며  
오래도록 발걸음 멈추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 그이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로동이 노래처럼 흥겨워진 이 한지점에서  
조국의 앞날을 꿰뚫어보시는듯  
예지의 섬광을 뿌리시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의사가 한껏 꽃핀  
자동화공장!  
먼지없는 공장!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이 공장이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공장입니다  
우리 당의 리상입니다  
다음 세기의 우리 공장들은  
모두 이렇게 될것입니다

아, 가슴과 가슴을  
뜨겁게 흔들어주는 말씀  
그 말씀 새겨안으며  
사람들은 알았더라  
우리의 이 공장  
그 어떤 전자의 조화로 숨쉬는게 아니라  
그이의 그 뜻으로 숨쉬고있었음을...

상원천 맑은 물결도  
그 말씀 담아시고 흐르고  
일출봉숲속의 새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 전하련듯  
하늘가에 높이 나래펴누나

한나절이 다 가고  
한낮이 기우는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고 또 걸으시여라  
몸소 세우신 휘황한 리정표앞으로  
온 나라의 마음을 이끌어오시며

걸으시여라  
이 시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상원의 구내길이 아니라  
다음 세기의 언덕우에  
위대한 령도의 자옥을 찍으시며...





# 너의 운명을 지켜준다

황명성

그는 모른다  
아프리카의 흰 목화송이처럼  
부드러운 그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고  
접견실의 용단우를 어떻게 걸어갔는지

황홀한 꿈인가싶어  
들뛰는 제 심장의 박동조차 잊고  
소중히 무슨 말인가 울리고싶어도  
버릇처럼 두툼한 입술을 실룩거릴뿐

다만 엮어질듯 달려가 그이품에 안길 때  
심장의 깊은곳에서 터지는 환희의 목소리  
크나큰 걱정 of 메아리였던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김정일**동지!

그는 모른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던 순간인듯  
천진한 어린애의 심정이 되어  
친애하는 그이앞에 어떻게 섰는지

농장주의 채찍에 맞아 흠진 그의 손등을  
따뜻이 애무해주시는 그 사랑앞에

불을 적시는 찻잔한것이 눈물만이 아니라  
메달랐던 가슴을 적시는 인간애의 봄비임을  
알았을 때  
노예의 철쇄에 묶이웠던 아프리카를 향해  
그의 심장은 쇠북을 치듯 높뛰었다

...

그는 모른다  
암야의 파도우에서 등대의 불빛을 만난듯  
봄날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을 우러러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는 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진리의 맑은 샘을 들이기듯  
검허하신 그이 말씀 한마디 놓칠세라  
위대한 그이의 사상과 숨결을 안고  
아프리카 흑인투사의 심장은 커졌다나니

그의 심장은 웨친다  
명동하는 장엄한 봄우뢰처럼  
-아프리카여 어서 미래를 마중하라  
은혜로운 향도의 품이 너의 운명을 지켜준다!

# 어머님의 눈빛

김종원

우리러 바라보면  
따뜻한 정 기울여주실듯  
해살같이 부드럽게 속삭이실듯  
호심처럼 깊으신 생각속에  
조용히 빛나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눈빛

새별처럼 영채도는 그 눈빛에선  
소중히 보여와라  
세월의 눈비를 다 헤치신 자옥자옥  
그 길에 펼치신 충성의 깨끗한 마음

장군님을 만나뵈던 밀영의 그 봄날에  
태양의 빛발을 뜨겁게 간직한 눈빛  
눈길 천리 불길 천리속에서도  
웃음을 주고 노래를 주던 그 눈빛

그 눈빛이여라  
천년묵은 락엽속에서도  
맑은 샘줄기를 대변에 더듬어보신》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순간에 원쑤의 검은 총구도 찾아 요정내시던

어두운 가슴가슴에  
희망의 빛발로 안겨지던 눈빛이여라  
원쑤의 간교한 흉계엔  
서리로 쏘아지던 눈빛이여라

아, 태양을 모시고 받들던  
그 시절에 벌써  
미래의 하늘가에서  
조선의 별을 다 내다보신 눈빛  
세월을 넘어 세기를 넘어

인민의 가슴속에  
가장 깨끗한 하늘을 열어준 눈빛

진정 얼마나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불타는 충성으로  
한생을 빛나던 눈빛인가

때문에 그때문에  
내 삶의 밝은 거울인양

그 눈빛앞에 마주서면  
이 가슴속 작은 티도 다 보여오고  
그 눈빛 받은 이 가슴  
그리도 맑아지나니

오, 우러르는 가슴마다에  
영영 잃지 않는 생의 정기와  
영원한 태양의 빛발을 안겨주는  
어머님, 김정숙어머님의 눈빛이여

## 꽃파는 처녀, 너와 함께

허수산

내 언제 한번  
그대와  
다정한 말 나눠본적 없어도  
언제나 소중한 누이로  
가슴에 안고 사는구나

네가 뿌린  
그 아름다운 붉은 꽃송이  
나도야 받아안고  
내 삶  
참되게 꽃피우고,

네 노래는  
언제나 내 삶의 길동무  
내 누리는 행복의 값을 깨닫게 하고  
내 당에 바치는  
심장의 고동소리 더 높이 뛰게 하는구나

아, 1930년대  
오가자의 그밤에 태어난 그날로부터  
꽃파는 처녀야  
우리 당의 은정속에  
가극무대에 새로이 태어난 그날로부터

꽃파는 처녀야  
네가 부른  
혁명의 노래 그 얼마며  
네가 뿌린  
혁명의 붉은 꽃씨앗 그 얼마랴

그 노래  
지구를 덮고도 남음이 있고  
네 파는 꽃송이  
한 어머니만이 아닌  
온 인류에게 바치는 효성으로도

남음이 있으련만

세기와 세기의 언덕을 넘어  
오늘에도 오는 네 노래  
투쟁의 메아리되어  
천만의 심장 불태우고

네 노래는  
언제나 있었다  
나의 기대머리에  
농장 밭머리에  
오늘은 은빛탑 세워가는 순천의 하늘가에  
눈보라치는 북부철길 공사장에

네 노래 들으며  
우리의 새 세대 청년들  
키도 크고 마음도 자란다  
네 노래속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도  
인간의 가치 새롭게 깨닫고  
투쟁의 거리로 달려나가거니

아, 지구우에  
가장 뜨거운 혁명의 노래 울려주는  
꽃파는 처녀야  
네 노래는 영원한 투쟁의 노래  
네가 파는 꽃은  
영원히 타는 투쟁의 열정

네 노래 언제나  
내 심장 뜨겁게 울려다오  
혁명을 해도 너처럼 하는 길에  
효도를 해도 너처럼 하게  
아, 당을 위한 길에  
우리와 함께 가는 꽃파는 처녀야!

# 꽃파는 처녀

꽃사시오 꽃사시오 어여쁜 빨간 꽃  
향기롭고 빛갈 고운 아름다운 빨간 꽃  
앓는 엄마 약 구하러 정성답아 가꾼 꽃  
꽃사시오 꽃사시오 이 꽃 이 꽃 빨간 꽃

산기슭에 곱게 피는 아름다운 진달래  
산기슭에 피어나는 연분홍빛 살구꽃  
꽃사시오 꽃사시오 이 꽃을 사시면  
설음 많은 가슴에도 새봄빛이 안겨요

## 명가사평(제 2 회)

###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시형상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 《꽃파는 처녀》의 가사에 대하여-

홍영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의 원곡은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전혀 찾아볼수 없는 가장 훌륭하고 극치를 이루는 음악작품이라고 가르치시었다.

가사 **《꽃파는 처녀》**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의 원곡가사이며 이 명작을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주제가의 가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가사는 훌륭한 시로 되어야 한다. 시는 노래의 생명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시는 노래의 생명이다. 시가 없는 가사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올수 없으며 그러한 가사와 노래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가사 **《꽃파는 처녀》**는 훌륭한 시로 되어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을 끝없이 설레이게 하며 심원한 사색의 웅심깊은 세계에 잠기게 한다.

이 가사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제 3 장 1 경 유흥거리 밤장면에서 방창으로 집중적으로 주어지고있다.

가극에서는 유흥거리 밤장면에서 이 노래를 줌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불쌍하고 가련한 꽃분이의 신세와 그의 지극한 효성을 강조하고 주인공의 내면심리세계를 생동하게 드러내면서 더 나아가서 간악한 일제원췌놈들에게 사랑하는 나라를 빼

앗긴 조선민족의 설음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꽃사시오 꽃사시오 어여쁜 빨간 꽃  
향기롭고 빛갈 고운 아름다운 빨간 꽃  
앓는 엄마 약 구하러 정성답아 가꾼 꽃  
꽃사시오 꽃사시오 이 꽃 이 꽃 빨간 꽃**

가사 1 절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기서는 향기로 우면서도 빛갈 고운 아름답고 어여쁜 빨간 꽃과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빨간 꽃을 파는 주인공 꽃분이의 모습을 잘 조화시켜 모진 착취 사회에서 꽃분이의 어머니에 대한 뜨거운 인정과 지극한 효성을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부각하여주고있다.

계속하여 가사의 2 절에서는 따뜻한 봄이 오면 산 기슭에 아름다운 진달래, 연분홍빛 살구꽃이 피어나듯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바치는 꽃분이의 뜨거운 정성은 처녀의 눈물 많은 가슴에도 새 봄빛을 안겨줄 그날을 반드시 안아오리라는 량만적 지향을 절절히 표현하고있다.

**산기슭에 곱게 피는 아름다운 진달래  
산기슭에 피어나는 연분홍빛 살구꽃  
꽃사시오 꽃사시오 이 꽃을 사시면  
설음 많은 가슴에도 새봄빛이 안겨요**

가사는 이처럼 불쌍한 꽃분이를 비롯한 그 일가가 겪는 눈물겨운 고통과 가슴쓰라림, 그 모진 설음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려는 간절한 소망

을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동시에 가사는 나아가서 일제놈들에게 사랑하는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의 운명속에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조선인민의 억울한 처지와 슬픔,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절절한 념원을 진실하게 일반화하였다.

가사 《꽃피는 처녀》의 심오한 사상정서적 내용은 생활이 있고 철학적 사색이 있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적인 정서와 특색이 풍부하게 잘 살아난 숭고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천명되었다.

가사에는 것처럼 모질고 악착한 세상에서도 꽃을 팔아 앓는 어머니를 구원하려는 꽃분이의 소박한 념원과 눈물겨운 생활이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꽃분이에게 있어서 고역에 병든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는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생각은 없었다. 그러기에 그는 낮에는 지주집에 가서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정성담아 키운 꽃을 팔러 이 거리, 저 거리로 수없이 헤매고있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려는 꽃분이의 뜨거운 생활지향이 있으며 꽃분이를 통해 그려진 그 일가의 기막힌 생활처지가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가사는 꽃분이가 정성다해 가꾼 꽃을 팔아 앓는 어머니의 약을 사려는것과 또 그것으로 하여 설음 많은 가슴에도 새봄빛이 안겨들리라고 믿는 소박한 생각을 통하여 사람들을 깊은 철학적 사색으로 이끌어간다. 과연 그 악착한 세상에서 꽃을 팔아 어머니의 병을 구완할수 있으며 또 그 꽃만 사주면 그의 가슴에 기쁨이 찾아오고 생활에 웃음이 있을것인가. 인간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는 착취사회에서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일이며 더우기 꽃분이에게 있어서는 가극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극적인 운명만이 강요될뿐이다.

가사의 이러한 시적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꽃분이의 어머니에 대한 남다른 효성과 정성은 착취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직 짓밟힐뿐이며 따라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고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된다.

가사는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특색을 풍부하게 잘 살린 인민성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가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앓는 엄마 약 구하러 정성담아 가꾼 꽃》, 《산기슭에 곱게 피는 아름다운 진달래, 산기슭에 피어나는 연분홍빛 살구꽃》과 같은 시적 표현들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특색이 잘 살아나고있다.

원래 조선인민은 유구한 세월 대대로 이 땅위에 살아오면서 근면하고 성실한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것을 이룩해 왔으며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노래를 즐기고 꽃을 사랑해왔다. 그 수많은 꽃중에서 빨간색을 가진 꽃을 더 좋아했으며 그가운데서도 《진달래》나 《살구꽃》은 언제나 집가가에 심으면서 정성다해 가꾸고 사랑해왔다.

《앓는 엄마 약 구하러 정성담아 가꾼 꽃》이라는 가사의 시구절에는 바로 언제나 성실한 로동으로 살아가려는 꽃분이의 아름다운 심정뿐 아니라 우리 인민의 이러한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그리고 《진달래》와 《살구꽃》을 각별한 정을 담아 노래한것은 예로부터 그 꽃을 류달리 가꾸고 사랑해온 조선사람들의 민족적 감정을 정서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된다. 모든 시적 표현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감정, 생활을 아무런 가식도 없이 소박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였다.

가사 《꽃피는 처녀》의 높은 예술성은 또한 통속적이면서도 평이한 시어들을 잘 골라쓰고있을뿐 아니라 시적 운률도 특색있게 조성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가사는 시어가 통속적이면서도 평이하고 그 시적 운률조성이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게 잘 조성되어있다.

가사는 《어여쁜》, 《향기롭고》, 《정성담아》, 《연분홍빛》, 《새봄빛》 등 아름답고 섬세하며 뜻이 풍부한 우리 말을 잘 선택하여 그것을 누구나 다 알수 있게 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가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게 되어있다.

가사는 운률을 순탄하고 평이하게 흐르게 조성하는데서도 모범을 보이고있다.

우리 인민은 본래 숨가쁘게 까불거리거나 맥빠지게 느린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사는 운률을 조선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잘 조성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순탄한 맛을 주며 사람들에게 사색할 여유를 준다.

특히 가사는 4·4조, 4·3조의 음수율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듭 4조만을 반복하여 쓰다가 끝에 가서 한음절 적게 설정함으로써 노래가 더 처절하고도 절절하게 되게 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였다.

가사에서는 운률조성의 보조적 수단인 되풀이법과 상징적 수법들을 잘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가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꽃사시오》, 《빨간꽃》 《산기슭에》와 같은 시어들을 잘 배합하여 씬으로써 주인공 꽃분이의 그지없이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높여주고있을뿐 아니라 내용흐름의 정서성을 한층 높여주고있다.

이처럼 가사 《꽃피는 처녀》는 그가 안고있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훌륭한 시로서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있으며 우리모두가 따라배

위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꽃파는 처녀》와 같은 명가사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더없는 자랑이며 영예이며 행복이다.

오늘 노래 《꽃파는 처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다.

참으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제가의 가사 《꽃파는 처녀》는 그 곡과 함께 창조된지 60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가는곳마다에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주제가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모든 노래들을 더욱 높이 부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야 할것이다.

## 투사의 모습앞에서

-남포사범대학에는 책을 읽는 투사의 조각상이 세워져있다-

박상민

무엇을 더 읽고싶어  
무엇을 더 배우고싶이  
그대는 오늘도 작은 불무지앞에서  
책을 펼쳐들었는가  
항일의 혁명투사여

인간생존의 한계를 넘어  
눈과 얼음의 세계에서  
걸음마다 쏟아지는 적탄에  
몸을 맡기면서도  
책을...

가슴에 광명의 밝은 등불을 안고  
숙영의 한밤 지새우면서도  
읽고 또 읽는 투사여  
그대앞에 내 가슴뜨거이 선다

그대는 말없이 앉아있어도  
이 세상 가장 큰 목소리로  
이 땅의 수천만 사람들을  
성스러운 대학으로 부르누나

싸움의 나날이 그대로 배움의 나날이어서  
장군님 손수 매주신 그 책을  
손에서 놓을수 없었으리  
통나무책상앞에서도  
찬란한 오늘을 그렸으리

정녕 투쟁과 승리의 법칙  
죽음도 공포도 침범할수 없는  
영생의 신념을

한자한자 새겨가던 나날들을  
오늘도 그대는 이어가고있구나

오, 혁명의 량식을  
심잡속에 다져넣던  
새 시대를 기원하는 대학시절을  
오늘도 그대는 이어가고있구나

투사여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차림 그대로  
무리등 불밝은 저 강당에서  
군정학습의 나날 그 강의를 들려줄순 없는가  
백두의 눈비에 젖은 그 책을 펼쳐보여줄순  
없는가

교재림우에 날아퍼지는 환희로운 새무리  
대학생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들을수록 볼수록 이 마음  
그대 결으로 출창 달리는것은

그대 선 그 위치에  
교육자된 이 마음 세우며  
신념과 의지로 가득찬  
그 책의 글줄들이 이 가슴을 거쳐  
후대들의 심장에 흘러들게 하고싶은 뜨거운 생각

아 세월은 흘러도  
변함없이 책을 펼쳐든 그 모습앞에서  
나는 항일혁명투사  
참된 《대학생》의 모습을 본다  
혁명의 진리를 강의하는 스승의 모습을 본다



## 생활의 심원한 진리를 완벽한 형상으로

### 밝혀준 혁명적 대작의 본보기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철학적 심오성에 대하여-

리상복

주체의 인간학은 작품의 중심에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의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심오한 철학적 진리를 밝혀낼것을 요구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면서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에 대하여, 인간의 정신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깨우쳐 준다. 이것은 이 명작이 심오한 철학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간의 정신적 힘의 위대성을 밝혀주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문제의 해명, 생활의 본질에 대한 예술적 일반화, 깊은 철학적 사색의 환기 등은 철학적 깊이가 있는 문예작품의 주요한 사상예술적 특성이다.

철학적 깊이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적 요구를 깊이있게 구현한 우수한 작품의 질적 특성인것으로 하여 작품의 정치사상적 풍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담보로 된다.

의의있는 인간문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해명하고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였으며 형상의 높은 예술적 품위를 가진데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철학적 깊이가 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철학적 심오성은 우선 피눈물나는 꽃분이일가의 생활을 통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 데 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제사상은 바로 1920년대말~1930년대초 조선의 사회현실에 대한 가장 심각한 철학적인 파악에 의하여 발현된것이다.

명작에는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는 인민만이 체험할수 있는 파란곡절많은 꽃분이일가의 기막

힌 운명이 그려져있다.

혁명가극은 당시 우리 나라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의 출로는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혁명투쟁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는 사상을 표현함으로써 오직 혁명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위대한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적대계급사회에서 겪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참을수 없는 불행은 바로 자주성이 짓밟히는데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자그마한 이야기를 가지고 심각한 사회적문제, 계급사회에서 착취받고 억압받는 근로인민대중의 슬픔이란 어떤것인가를 비할바없이 심오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보여준 이 혁명가극은 재난의 운명을 끝장내는 길은 오직 혁명의 길뿐이라는것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의 철학적 깊이는 생활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철학적 내용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반영한 결과로 보장된다.

생활은 크고 요란한것만 아니라 작고 아담한것이라도 심오한 사회적 본질을 체현하고있으며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있는것이라면 철학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생활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고 예술적으로 심도있게 밝혀내어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담보하려면 생활을 깊이 탐구하고 그 본질을 파고드는 문제가 절실하고 중요하다.

꽃분이의 생활과 그 일가가 겪는 불행과 말할수 없는 고통은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나라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어질고 순진한 처녀인 꽃분이가 자신의 피눈물나는 생활체험을 통하여 당대 사회제도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깨달고 마침내 지주에게 항거해나서며 오빠 철용이의 영향에 의하여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다.

명작은 이와 같은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인민들의 항거와

혁명투쟁이 있게 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는 그 어떤 기발하고 요란스러운 사건이나 복잡하게 뒤엉킨 이야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작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안고있는것은 한 가정의 생활, 한 인간의 성격을 통해서도 민족의 계급적 처지와 시대의 지향, 력사의 흐름을 밝혀냈기때문이다.

철학적 깊이를 담보하는데서 결정적 작용을 하는것은 사상의 철학적 심오성이다. 종자의 철학적 무게, 사상의 철학적 심오성, 사회적 문제의 예리성은 서로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담보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사상의 철학적 심오성을 보장하는데로 귀결된다.

명작은 심오한 사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사건과 사실들을 생활론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갔으며 사건과 사실들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있게 파헤쳤다.

어머니의 머슴살이로부터 시작하여 혁명군이 높이 추켜든 항일혁명투쟁의 기치따라 세남매가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이 다 생활의 론리와 밀착되어있으며 생활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있다.

매 장면들은 그것이 비록 흔히 있을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리한 극성을 띠면서 사건의 본질속에 깊이 파고들어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족의 재난이 절정에 이르렀던 1920년대 말~1930년대초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와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관계를 드러낸 이 혁명가극은 혁명투쟁에 나서야만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실수 있고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사건과 사실의 근저에 놓인 거대한 사회정치적 문제, 생활의 본질과 인간성격을 예리하게 밝혀냄으로써 혁명적 대작창작에서 실천적 모범을 보여준 기념비적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생활을 깊이 탐구하고 그 본질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함으로써 작은것에서 큰 문제, 의의있는 사상을 밝혀내고 한 평범한 인간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필연성을 밝혀낸데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위대성과 독창성, 철학적 심오성이 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철학적 심오성은 다음으로 의의있고 문제성있는 종자를 심어놓은 데 있다.

명작에는 인간이 처참한 운명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절박한 문제에 예술적 해답을 주는 종자가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는 설음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된다는 심오한 종자가 심어져있다고 하시었다.

설음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된다는 종자에는 설음과 고통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속을 반대하고 사람의 사회정치적 생명인 자주성을 찾기 위한 혁명투쟁의 옳바른 길이 제시되어있다. 이런 종자로부터 나라 잃고 수난당하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주제가 흘러나오며 민족과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길 밖에 없다는 사상이 밝혀지고있는것이다. 종자의 철학적 무게란 창작가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의 사상예술적 심오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사실주의적 작품에서 종자의 철학적인 무게는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종자가 이러한 철학성을 띠게 될 때 그 작품은 사람들의 심중에 호소하고 작용하는 힘이 비할바 없이 커진다.

주인공 꽃분이는 거창한 투쟁의 한복판에 서있는 사람도 아니며 더구나 각이한 여러 사상조류의 복잡한 흐름을 헤치고 나아가는 시대의 선각자도 아니다.

그는 머슴의 딸로 태어난 평범하고 소박한 처녀이지만 가극은 그를 통하여 한 시대를 일반화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혁명가극에는 일제식민지하의 조선인민이 당하는 눈물겨운 설음과 고통, 민족과 계급의 생사운명과 관련된 근본문제가 제기되어있다.

꽃분이가 일가에게 강요된 머슴살이는 참으로 비참하다.

어머니의 머슴살이로부터 시작하여 순희가 눈멀게 되는것, 빗값에 머슴을 살다가 동생 순희의 눈을 멀게 한 지주놈에게 항거했다는 《죄》로 감옥으로 끌려가는 오빠 철용이, 머슴살이 고역으로 몸져눅는 어머니, 앓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머슴을 살면서 약을 구하여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기 위해 온갖 모욕과 천대를 피눈물과 함께 삼키며 꽃을 파는 꽃분이...

어머니는 꽃분이의 깨끗한 랑심과 지극한 정성이 담긴 약 한첩 들지 못하고 한많은 험악한 세상을 떠난다.

이어 꽃분이와 순희와의 서러운 리별.

꽃분이는 감옥에 갇힌 사랑하는 오빠를 만나려 700 리 먼길을 고달프게 왔건만 감옥에서 오빠가 죽었다는 간수놈의 차디찬 대답이 기다리고있었다.

또다시 700 리, 외로이 혼자 언니를 기다리고있을 순희를 생각하며 눈길을 걸어 집에 돌아왔건만 동생은 간곳없고 차디찬 바람만 스며들었으니

선량한 꽃분이의 아름다운 그 마음 비운에 젖어  
통분함을 금할수 없었으나 그 어데 하소할곳도  
없었다.

실로 이 모든것은 지극한 정성, 깨끗한 량심과  
의리만으로써는 결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  
는 험악한 세상을 바로잡을수 없다는 심각한 사  
회적 문제를 제기하여준다.

눈물없이 볼수 없는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  
혁명가극은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지주, 자본가놈  
들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겪는 우리 근로인민대중  
이 당하는 설움과 피눈물나는 고통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혁명가극은 착취사회  
에서 근로인민이 겪지 않으면 안되는 불행과 고통  
의 근본원인을 심오한 형상속에 밝히고 생활론  
리에 맞게 극을 발전시키면서 꽃분이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절박한 물음에 해답을 주고있  
다.

바로 그 길이 혁명투쟁의 길이라는 혁명의 진  
리를 감명깊게 밝혀냄으로써 혁명적 대작의 요구  
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명작은 미학적정서적 논리로써 꽃분이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의 사회적 생명인 자주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웅당한 권리로 행사하기 위하여  
생활하고 투쟁하는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힘있게  
밝히고있다.

마을에도 거리에도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다네  
삼천리 금수강산 내 조국땅에  
활짝 필 꽃씨앗을 뿌려간다네

눈물속에 핀 비애의 꽃을 안고 꽃을 팔던 꽃분  
이가 종장에서 부르는 이 노래, 그는 여전히 꽃  
바구니를 안고있지만 그것은 벌써 자기의 힘과  
자주성을 깊이 자각한 인간이 힘차게 부르는 아  
름다운 송가인것이다.

이리하여 혁명가극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  
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회의 주인으로 되기 위  
하여서는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계급을 반  
대하여 견결히 싸워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를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참으로 혁명가극은 나라없는 민족의 설움과 고통  
그 자체를 보여주는데 그치는 단순한 이야기  
가 아니라 예측과 압박을 싫어하는 사람의 본성  
과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인 자주성을 찾기 위한  
길을 밝혀주는 이야기인것이다.

설움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  
구니로 된다는 특색있는 종자에 의해서만 혁명적  
대작창작에서 실천적 모범을 보여준 걸출한 명  
작이 꽃피어날수 있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철학적 심오성은  
다음으로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고 폭

넓게 보여준데 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등장인물들의 심오  
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이 가극을  
인정적인 심리극으로 되게 하였다.

혁명가들과 혁명하려고 떨쳐나선 사람들의 깊  
은 내면세계를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보여주  
는것은 작품의 철학적 심오성을 믿음직하게 담보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리지  
못한다면 혁명가들과 혁명에 떨쳐나서는 사람들  
의 사상정신세계를 생활 그대로 옳게 보여줄수  
없을것이다.

정서적 체험의 예술인 가극의 경우 이것은 더  
욱 중요한 문제로 나신다.

그런것만큼 가극에서는 하나의 자그마한 사실  
을 놓고도 그것을 극적 정황속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 심리세계를 깊이 파보여주어야 한다.

꽃분이와 순희가 헤어지는 장면은 참으로 눈물  
겹다.

눈먼 동생을 홀로 남기고 먼길을 가야 하는 꽃  
분이와 언니와 함께 가자고, 혼자서는 안있겠다  
고 서러워 우는 순희, 오빠도 못만나고 언니가  
잡혀가도 좋은가고 터지는 가슴누르며 말하는 꽃  
분이앞에 《그럼 가라》 하고 울먹이며 재촉하는  
눈먼 순희, 앞 못보는 동생을 두고 피눈물뿌리며  
떠나는 꽃분이의 행동세계는 어찌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그토록 세차게 두드리는것인가.

실로 착취사회의 악착한 현실이 빚어낸 이들의  
고통스러운 리별 장면은 더없이 괴롭고 심각한것  
이다.

여기에는 착취사회에서 크나큰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불쌍한 형제의 정신세계가 비쳐있다.

떨어질수도 없고 떨어지고도싶어하지 않는 꽃  
분이와 순희를 처참하게 갈라놓은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일제통치하의 악착한 지주, 자본가놈들  
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심오히 해명하고있다.

진실한 생활감정을 거쳐 리성의 세계에도 깊이  
파고들어가 참된 사회적 진리와 시대의 본질을  
심오히 밝혀낸 여기에 이 장면의 사상미학적 의  
의가 있다.

혁명가극에 관통되고있는 꽃분이 일가의 눈물  
겨운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참담한 생활속에서도  
인간의 본성과 존엄을 잃지 않으며 참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인민의 지향 그리고 숨막  
히는 사회적 고통속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되는것이다.

혁명가극에서 내면세계를 심도있고 깊이있게  
보여주어 철학적 심오성을 보강한것은 부정인물  
의 본성을 예리하게 밝혀낸데서도 찾아볼수 있  
다.

배지주놈은 빚을 갚아도 갚았다고 인정하지 않  
으며 리자에 리자를 붙이는 악랄한 방법으로 꽃

분이 일가를 간악하게 착취한다.

리자란 계산하기에 달린것이라는 지주놈의 뻔뻔스러운 지껄임,

리자란 계산하기에 달린것이라는 이것이야말로 압제자들의 《계산법》이며 착취사회의 《계산법》이다.

사실상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것이 착취사회의 생활법칙인것이다.

명작은 착취계급에게 고유한 지주의 포악성과 야수성을 깊이있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산삼이 녹아났다고 어린 순희를 마구 때리며 짓밟는 야수같은 지주놈, 살풀이로 순희를 무서운 산중에 끌어다 버리는 지주놈과 마름놈, 공연한 트집을 잡아 꽃분이를 마구 때리며 꼬집는 지주너편네.

혁명가극은 지주년놈들의 포악성과 약탈성을 예리하게 보여줄뿐아니라 그놈들의 추악한 정신세계를 발가내보인다.

가장 인상적인것은 지주너편네가 악독한짓을 해놓고 병들어 미쳐돌아가면서 귀신처럼 나타나 자기의 죄파를 환각속에서 보면서 무서워 떨고있는 장면이다.

이 환각장면을 통하여 지주년놈들의 정신세계에서 움직이고있는 허탈감과 공포심, 잔인성과 야수성을 몇배나 더 예리화하고 심화시켜보여주었으며 악독한 착취제도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준렬히 단죄하고있다.

꽃분이의 황홀한 꿈장면과 지주너편네의 불안과 공포에 싸인 환각장면은 이 두 인물의 정신적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모진 고난과 학대속

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지조를 지켜나가는 피착취 대중과 최악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있는 착취 계급의 계급적 본성을 뚜렷이 반영하고있다.

명작은 시종일관 인간의 내면세계를 놀라우리 만큼 깊이 파고들었으며 마지막에는 혁명군이 높이 추켜든 항일혁명투쟁의 기치를 따라 세남매가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국땅위에 은혜로운 태양이 빛을 뿌려 혁명의 붉은 꽃이 만발해가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새 역사를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혁명가극은 이외에도 내면심리극의 특성에 맞게 극의 여운으로서 충만시킨 장면들을 수많은 펼치고있는것 이라든가 주옥같은 명가사들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것 등으로 작품의 철학적 심오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볼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세계의 주인이며 창조자인 사람의 힘과 정신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에 대하여, 착취계급의 비인간적인 야수성과 약탈성에 대하여 깨우쳐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고무적 기치로 된다.

실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심오한 사상성과 예술성, 철학성이 결합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가극예술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걸출한 대작이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구현하고있는 그 위대성으로 하여 이 땅우에서 착취계급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날까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 불멸의 교과서로 될것이다.

## ◇가사◇

# 더 높이 울려라! 200 일전투의 북소리

한관호

위대한 우리 당은 80 년대에  
200 일전투에로 우리를 불렀다  
조국을 수호하여 원수를 쳐부신  
결전의 날 그 기세로 대건설이다  
울려라! 북소리 200 일전투의 북소리  
더 높이 울려라 진군의 북소리

순천의 하늘에 광복거리에  
당을 따라 우리 세운 기념비 빛난다  
비약의 나래펴고 이 땅의 끝까지

행복의 락원을 펼쳐나가자  
울려라 북소리 200 일전투의 북소리  
더 높이 울려라 위훈의 북소리

용광로 붉은쇠물 백배로 끓고  
농장별 발동소리 만풍년 부른다  
대건설 우뢰소리 강산에 울리니  
남녘에도 만미향전 불길 높인다  
울려라 북소리 200 일전투의 북소리  
더 높이 울려라 승리자의 북소리

## 끝없는 사랑의 거리

김학근

유서깊은 만경대지구에 새로 일떠서는 광복거리의 건설령역면적이 무려 1천 800여만평방미터에 달하는, 하나의 웅근 도시와 맞먹는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거리이다.

광복거리가 일떠섬으로써 평양은 혁명적 수령관이 더욱 철저히 확립된 주체조선의 수도로서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되었다.

도시구획과 건축물의 형식, 내용 그리고 건설 속도에서 주체의 건축적 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광복거리는 1980년대건설의 빛나는 절정을 이룬다.

팔골다리를 지나 광복거리입구에 들어서면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100미터 도로이다》100미터라면 흔히 사람들은 운동장을 생각하게 될것이다.

그저 길이라고만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드넓은 100미터도로!

그러나 몇걸음 더 거리에 들어서서 길 좌우편에 일떠선 살림집들과 건물들을 둘러보면 100미터도로는 조금도 넓어보이지 않는다.

탑식, 기발형식, 병풍식, 계단식, 쌍탑식의 고층살림집들이며 건설자처녀들속에서 《미남자》, 《멋쟁이》로 불리우는 류선형, 꺾임형의 살림집들, 휘황한 빛발을 뿜는 교예극장의 번쩍이는 유리창들과 품을 활짝 벌린 학생소년궁전의 웅자, 흰 구름이 창밀에 흐르는 아찔한 청년려관...

하나같이 덩지가 크면서도 어느것하나 반복됨이 없이 아득히 펼쳐진 웅장화려한 건축물들을 둘러보면 100미터도로가 넓다는 생각은 가뭇없이 사라지게 되는것이다.

세대당 면적이 180평방미터에 이르는 살림집구역이 있는가 하면 연 건축면적이 수만평방미터에 달하는 백화점이 일떠서고 거대한 광복다리, 100여리가 훨씬 넘는 상수도관 등 일떠서는 건축물과 시설물마다가 웅장하고 거창하기 이룰데 없다.

물론 이것은 규모와 형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형과 양상에서 종래의것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독특하게 새맛을 살리면서도 유서깊은 만경대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우아함과 장중함을 가지는 광복거리는 그 내용에서도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만경대갈림길과 학생소년궁전앞의 넓은 부지에는 수십정보의 부지면적을 가진 공원이 건설되는

데 공원 한가운데에 솟는 《춤추는 분수》도 이채로운것이다. 프로그램원격조종에 의해 하늘높이 솟아오르는 물줄기들은 여러가지 꽃모양이나 아름다운 경치, 춤추는 무용수들의 군상 등 천태만상으로 변함으로써 황홀경을 이룬다.

분수두리에는 화강석으로 포장된 넓은 무도장과 수천그루의 키큰나무와 떨기나무 한해 및 여러해살이 화초들이 철따라 만발하는 꽃밭, 잔디밭이 조성되며 료환도로와 산보길, 그늘대와 유희시설, 편의봉사망, 룡구장, 배구장, 커다란 연못이 펼쳐지게 된다.

이것은 여직껏 우리가 알고있던 분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로이 해주고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이 천수백미터의 폭으로 펼쳐진 거리가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섰다는것으로 하여 우리는 한없는 긍지와 행복을 가지며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전국적으로 태천발전소며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대규모적인 대상건설들이 진행되고 9개의 현대적 경기관을 가진 청춘거리며 (건설당시에는 안골체육촌으로 불리웠음) 룡라도경기장, 새로운 항공역사 등 한개 도시와 맞먹는 건설대상들을 포함하여 평양시에만 해도 수많은 개소에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동시에 일떠세우면서 이렇듯 방대한 광복거리를 2~3년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는것은 오직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1984년 7월초 어느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해당일군들을 부르시여 광복거리건설전망을 펼쳐주시던 때의 일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쁜 시간을 내시여 밤깊도록 친히 광복거리건설에 대해 관심하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수도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만경대에 현대적인 거리를 하나 덧붙여지게 뵈우데 대하여 가르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세울 거리의 규모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때까지 아직 만경대지구에 세우게 될 거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있지 못하고있던 일군들은 룡파적으로나마 새로 건설할 거리를 칠골 다리까지 예견하고있었다. 이미 전국적으로

벌려 놓은 큰 대상건설이 방대하므로 감히 오늘과 같은 대규모의 광복거리 건설은 누구도 업무조차 낼수 없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광복거리는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할 건설대상임을 가르치시고 새로 일떠서는 거리를 팔팔네거리에서부터 만경대고향집까지 대통로로 뿔고 평양시안의 중심부와 연결되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손색이 없이 규모를 크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팔동교로부터 칠골다리까지의 극히 작은 범위를 포괄하는 새 거리를 그려보면서 통이 큰 작전을 벌리지 못하던 일군들의 눈을 새롭게 띄워주었다. 그것은 조선혁명의 유서깊은 요람이며 혁명의 수도 평양의 심장이라고도 볼수 있는 만경대에 꾸려지는 광복거리를 어떻게 일떠세워야 하는가를 밝혀주시는 위대한 가르치심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광복거리를 통이 크게 하면서도 립체감이 나게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차도와 도로들을 대담하게 넓히며 고층살림집들을 연필대를 세워놓은것처럼 통이 가늘고 뾰족하게 높이 짓지 말고 덩지가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차도와 걸음길에 잇달아 살림집을 앉힐것이 아니라 넓은 폭으로 록지와 잔디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고층살림집들을 앉히게 하심으로써 거리가 어느쪽에서 보든지 앞이 탁 트이고 청신한 공기와 꽃향기에 묻히도록 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하는 거리에 필요한 물량까지 미리 헤아려보시고 수원지를 따로 하나 건설할데 대하여서와 보다 문화적인 중앙난방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가구와 부엌세간에 이르기까지 세 심히 헤아려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여러 시간에 걸쳐 광복거리를 본보기적인 모범거리로 일떠세울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건물 건설을 맡아보는 일군들도 아직 거리에 대한 표상을 푹푹히 가지고있지 못하고있던 때 벌써 방대한 규모로 앉혀야 할 건설부지와 천래만상의 현대적인 살림집의 배치, 도로폭과 건물들의 조화, 록화에 이르기까지 환히 꿰뚫어보시고 밝혀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천재적 예지와 사랑은 실로 한량없다.

광복거리 건설지휘부에 우리들이 처음 취재를 나갔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지휘부의 방들이 모두 비어있는데 맨 아래층 구석쪽 방하나가 문이 열려있었다. (꼭 후에야 우리는 골재분과임을 알게 되었다.)

방으로 들어간 우리는 일군과 담화하는 과정에 실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분과에 주신 가르치심이 1987년 상반년도만 하여도 여러차례에 달하는것이기때문이었다.

단 7명의 인원을 가진 작은 한 분과에도 그렇듯 세심하고 정력적인 보살피심과 은정의 손길이 어려웠으니 거창하게 일떠세워지는 광복거리의 방대한 건설물에 새겨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와 사랑은 정녕 얼마나 큰것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건축물 형성도안들을 훌륭하게 완성하도록 보살피시고 건설력량과 지휘체계, 건설의 선후차와 건축물들의 합리적 배치, 자재수송, 원림기술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헤아리시고 어느 한 고리도 막히거나 빼여짐이 없도록 풀어주고 이끌어주심으로써 광복거리는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로 황홀경을 이루며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옥상우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 층층마다에 마음껏 뛰노닐 마당이 달린 고층살림집, 하루 24시간 더운물, 찬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상수도과 다양한 색조화로 그늘진곳을 모르게 하는 밝은 빛의 가로등, 중심도로에 무지개마냥 엇바꾸어 뻗어오르내린 립체다리들, 살림집을 따라 끊임없이 펼쳐진 봉사당들...

보는것마다가 놀랍고 새롭게만 느껴지는것이 광복거리의 건축물이고 시설들이다.

그러므로 완공단계에 이른 광복거리를 돌아보는 사람들마다 말하고있다.

《광복거리를 돌아보고나면 온 세상을 다 본듯싶다》고...

세상에 있는것은 무엇이든 다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도 광복거리를 완전히 다 표현한 말로는 될수 없다. 광복거리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잊을수 없는것이 있다.

그것은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앞당겨 안겨주실 한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따뜻하고 은정깊은 손길이다.

정녕 우주와 같이 무한하고 태양과 같이 영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자욱, 은정깊은 손길이 어려있는 광복거리는 후손만대에 찬란히 빛날것이다.

# 하늘에 비끼고 강에 어리어... 외 1 편

조 빈

황홀경이 땅우에 넘쳐  
저 푸른 하늘에 비껴오르고  
물맑은 상원천에 그림같이 어렸구나  
우리의 공장 세멘트공장

안개건힌 새벽하늘가에  
은빛가소탑 나래펴고 해마중하니  
버들방천의 맑은 강물  
해빛 은빛 어우러져 령롱하구나

저것보라, 멧에 겨워 솟았는가  
굴뚝마다 연기 한점 없는데  
구내의 푸른 잔디 하늘을 물들인듯  
저 하늘 내리비껴 강물조차 푸르른듯

긴긴 렬차와도 같은 벨트의 량하  
하늘로 치솟는가 물속으로 치닫는가  
떠나온 저 끝은 어디며  
가야 할 한 끝은 또 어디

우리 당의 빛나는 건설구상속에  
천년을 잡아던 이 땅의 부원이  
만년을 살 조국땅 복판으로 내달는  
대건설행군의 도도한 흐름이어

어떻다 말 못할 환희와 꿈이  
한데 어우러져  
저도 모르게 불이 젖는  
행복의 눈물...

주시여도 제일 좋은것  
먼저 주시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기율이신 그 심중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몸소 짙은 안개속을 헤쳐오신  
못잊을 그날의 첫새벽처럼  
먼 미래의 새벽길에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다함없는 그 은정 바이 알수 없듯이,

아, 한 가슴으론 못다 안아  
태어나고 태어날 후손들과 함께 받아안을  
위대한 사랑의 화폭이  
이 아닌가, 우리의 공장!

볼수록 황홀경이 땅우에 넘치니  
먼먼 후날의 환희와 꿈까지도  
오늘에 다 안아보는것이  
이 아닌가, 축복받은 우리의 세대가!

## 구내의 푸른 잔디

산기슭 잔디라면 그 혼한 잔딘데  
기계공장 구내라도 그 혼한 잔딘데  
세멘트공장의 잔디야 예서뿐  
처음 보는 푸르른 잔디밭

물맑은 상원천 기슭이어서  
구내에 그리도 잔디 성한가  
소성로가 돌아가도 잎새푸른 잔디  
세멘트가 폭포쳐도 살랑대는 잔디

저 연기없는 굴뚝우엔 푸르른 하늘  
세멘트공장이라면 연기에 떠실려  
땀흘려 구워낸것 날린다던 이야기  
예서는 한낱 옛말이 아닌가

아, 이 가슴에 가득한 다함없는 은정  
파아란 잎새에도 함뿍 어린 잔디  
가꾸고 쓰다듬으니 손끝에도 물들듯  
흔해도 흔치 않은 소중한 잔디

## 미래가 현실로 꽃핀곳에서

렬차가 역에 들어선 때는 이미 상원천 기슭에 저녁 어스름이 깃을 펼치고있었다.

신하역, 여기가 이 선의 마지막 역이다. 송신-신하사이 통근렬차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함께 태어났다.

고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큰 거리에 들어서니 마치도 수도의 창광거리를 거니는것 같은 기분이다. 달빛이 부드럽게 옷자락을 펼친듯 그 어디나 흠을 볼수 없도록 덮인 금잔디우에 텅굴고 싶은 아이가 가슴을 휘젓는다. 일출봉 기슭을 유유히 감도는 상원천 맑은 물결우에 집집의 아름다운 불빛이 별무리와 이마들을 맞대고 다정히 속삭이는데 그우에 기묘하게 키쫂군 공장의 야경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명절날 밤 경축등으로 단장하고 대동강에 떠있는 유람선갈군.》

...

《야, 이건 하나의 기념탑일세.》

옳다. 《기념탑》이다. 먼지, 연기, 소음을 초월하여 높이 일떠세운 인간사랑의 위대한 창조물, 은하의 흐름우에 정결한 예술조각품처럼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이 공장은 80년대 화폭에 수놓아진 《사랑의 기념탑》이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세멘트생산과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원격조종화되고 생산문화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어 최신식으로 건설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우리 인민을 고열로동과 유해로동, 중로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가장 문명하고 현대적인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현실로 이 땅우에 꽃피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귀한 충성심의 산물이다.

지난 시기의 세멘트공장들에 대한 인상과 대비적으로 안겨오는 공장의 야경은 한쪽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정서를 자아낸다. 공장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마음속엔 이렇듯 또하나의 현대적인 본보기공장을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뿌듯하게 차올랐다.

마치 공원속에 솟아난 휴양각으로 들어서는 마음이다. 아니 세월을 뛰어넘어 먼 미래의 한복판으로 거니는 심정이다.

저녁식사후여서 우리는 이곳에서 현실체험과

창작전투를 벌리고있는 작가들을 만나기 위해 곧바로 로동자합숙을 찾아갔다.

《2층3호와 저 1층2호실입니다.》

합숙앞에서 만난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작가들이 있는 호실을 친절하게 가리켜주었다. 어떻게 그가 작가들의 호실을 대뜸 가리킬수 있는지 직업적인 호기심이 동했다. 우리가 작가들과 안면이 있는가고 묻자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라구요.》하고 청년은 사람좋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공장문화회관쪽으로 뛰어갔다. 작가들의 호실은 비어있었다.

(?...)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 현관에 나와 서성거렸다.

한패의 남녀청년들이 넓은 출입문으로 웃음과 함께 쏟아져나왔다.

《저, 이 합숙에 있던 작가동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까?》

우리는 가름을 내서 멋있게 빗어넘긴 머리를 한 손으로 슬쩍 쓸어넘기는 한 청년을 붙잡고 물었다.

《지금 저기 유보도에서 영웅설계기사동무와 이야기를 나누고있을겁니다. 같이 갑시다. 8시 정각에 우리 작가선생님이 우리모두를 《인물합평회》에 초청했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말을 멋있게 하려고 무척 애쓰는것이 알렸다. 은근한 자랑이 담긴 《우리 작가선생》이란 말은 좋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무슨 《인물합평회》를 그것도 밤에 유보도에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일행중의 한 처녀가 말했다.

《우리는 때때로 일 마친 저녁이면 우리 작가선생님과 함께 공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유보도를 거닐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듣고보면 다 우리와 우리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지요 뭐.》

상냥한 처녀의 말에서도 《우리 작가선생》이다. 얼마나 듣기 좋고 친근한 말인가!

《그래 동무도 작가선생의 이야기에 올랐겠소?》

우리의 물음에 처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엽성스럽게 웃기만 했다. 처음 말하던 그 청년이 대신 대답했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동무는 대학을 졸



업하고 공장에 배치된 오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작가선생님은 있다고 하면서 공개하는통에 들쭉나고말았습니다.》

《아니 작가선생이 그런 문제까지 공개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있는 사이에 말하자면 불꽃을 튀겨준 셈이지요.》

수집계 웃던 그 처녀는 청년의 잔등을 두손으로 두드리더니 앞으로 뛰어갔다. 청년들은 그것이 재미있는지 통쾌하게 웃어댔다.

《우리는 이런 저녀이면 새로운 꿈과 리상을 간직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미처 몰랐던 성격적 약점과 결함도 알게 되고 또 한순간에 거인처럼 마음의 키도 크군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우리 자신들과 현실속 인간들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부정해버릴수 있는 권한을 작가선생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이야말로 작가, 예술인들에게 생활도 열정도 재능도 다 안겨주는 비옥한 토양이며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입니다.》**

오래동안의 현실체험에 기초하여 작가의 머릿속에 기억된 수많은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세부가 이런식으로 무르익어가고있는것이다.

유보도에서 우리는 지난해 중편소설 《열매는 꽃시절부터》를 끝내고 이곳으로 달려온 시인 조빈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이제는 머리도 희여지고 몸도 불편한 그였지만 걸음새와 목소리에서는 청년의 열정이 풍겨왔다.

얼마후 설계기사와 청년들과 헤어져 합숙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우리는 그에게 물었다.

《오늘 만났던 설계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대상을 취면 제발식으로 물음을 제기하면서 목적했던 한문제, 한문제에 대하여 끝장을 보고야 마는 그의 취재방법에 대해 알고있는 우리로서는 오늘 그의 취재결과가 궁금해났던것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공장쪽으로 머리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 공장을 보십시오. 종전 경험과 기성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주체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시공간적 개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면서 생산공정과 건물들을 집약적으로 배치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지요. 저렇듯 부지면적을 같은 생산능력을 가진 다른 현대적인 세멘트공장에 비하여 50%로 줄이고 건물밀도는 2 배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그 설계기사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공장설계를 우리 식

으로 잘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직접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방목공출신의 사나이다운 그에게 참 그렇듯 아기자기한 사랑이야기가 있는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벌써 3 일째 연애이야기입니다.

영웅...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손에는 표지가 낡은 취재수첩과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 문헌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가 쥐여져 있었다. 설계기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80 년대 영웅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영웅서사시적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문헌은 참으로 한순간도 손에서 놓을수 없는 취재와 창작활동의 교과서였다.

합숙에서 우리는 얼마전 현지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촬영까지 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소설가 박경빈동무와 시인들인 안창만, 최창근, 김창근동무들도 만날수 있었다.

잠시후 우리는 호실에서 어느새 작가들의 이야기에 끌려들어갔다.

어디선가 밤의 정서를 한껏 돋구는 기타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

박경빈: 소성계통을 담당한 그 동무 정말...

안창만: 누구?

박경빈: 지금 저 6 호실에서 기타 타는...

최창근: 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거 해주 교수...

박경빈: 야, 잠시두 가만있지 못하두만. 가만 앉아서두 종합조종관을 다 볼수 있는데도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 그러면서 두 눈이 어떻게 빠르니 계기판의 그 술한 수자들과 불빛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처리하드란말이요.

안창만: 왜 그렇지 않겠소. 온 공장운명을 거기 몇사람이 다 조종하는데...

소설가의 말이 끊어질새없이 이어지니 도간도 간 끼여 들면서 짧으면서도 여운을 많이 던져주며 의미심장하게 하는 시인의 말이다.

박경빈; 전체 건설자들과 공장의 노동자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사진도 찍고 텔레비전을 비롯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오늘 그 동무는 뭘 좀 짧은 혈기를 펼쳐보아야겠는데 일이 너무 험해서 안타깝다는거요.

김창근: 바로 그 안타까움, 그것이 사랑을 받아안은 사람들의 의리의 감정이지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공장을 다녀가신 며칠후 난 한 청년과 함께 저 소성로 동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한 시적충동을 받았습니다.

부하시험단계에 들어선 공장굴뚝을 바라

보면서 나의 물음에 대답하던 그 청년이 갑자기 어디론가 뛰여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눈빛과 거동에서 나는 그 무슨 사고를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달려온 그가 하는 말이 굴뚝에서 증기같이 새어나가는 가는 실연기를 보고 무슨 사고가 생긴줄 알았다는거지요.

나도 미처 알아보지 못한 순간적인 그 연기를 말ियो. 소성계통에 설치된 제진 장치의 기술검사를 위해 조종수치를 바꾸다가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 라는겁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보이면 사고로 인정하는 공장, 이게 바로 천지개벽이 아닙니까.

우리 인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대 산업건설의 시범공장으로, 과학화수준이 최신티도로 담보된 이런 공장을 받아안은 우리의 로동계급들이 왜 청춘을 아끼고 생을 아끼겠습니까.

최창근: 정말이요. 일할 때는 혼자 다할듯이 뛰고 달리는 그 열정이 어떻게 젊음이 가져다준것으로만 생각하겠소.

박경빈: 건설장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두 같은 심정이요. 거 내 나세된 연공작업반의 〈아바이〉로 불리우던 사람두 세멘트 분쇄기동체를 조립할 때 보니까 펄펄 날지 않겠소.

안창만: 그 사람은 늙지 않을 사람이요. 일속에서 젊어지는 사람이니까.

조 빈: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성격적 특징은 정말 얼마나 매혹적인가. 80년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 특징, 그것은 나를 흥분으로 잠 못들게 하고 창작적 환상의 나래를 달아주고있소.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사상정신적 품모, 고결한 품성을 본받아 혁명적 수령관이 체질화된 그런 사람들이말ियो.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으로 느끼고 누구보다도 그이의 의도와 요구에 가깝게 선 사람, 의리적인

도덕관을 신념으로 간직한 바로 그런

사람이 내 작품에 등장할 주인공이네.

...

화제에 오르는 때 인간들의 현상적인 모습으로부터 일화적인 위훈담으로 생활의 깊이로 이야기는 점점 아지를 쳐나간다. 이름이며 고향과 나이, 취미와 성격, 사랑의 고민이며 위훈에 대한 갈망... 작가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모습으로 간직된 형상들, 이들은 생활을 아름답게 체현하고있는 작가들의 이야기속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안고 태어난 시대의 전형들이며 영웅들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현실속의 모습 그대로 이야기속에 등장했다. 한가마밥을 먹으며 같이 일해온 이들에게 있어서 서로 모르는것이 없다는것은 이상할것이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새로운 200 일전투의 여러 전투장들에서 진지하고 착실하게 현실체험을 하고있는 수많은 작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배낭을 지고 1000여리 천고밀림속 생늬길을 행군하며 백두산밀영 발굴조사대에서 생활하고있는 시인 서봉제동무며 북부철길 건설장과 광복거리 건설장,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등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수많은 대건설장들에서 현실체험과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그들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는가.

작가의 현실체험-이것은 현실속의 인간들과 똑같은 생활의 과정이면서도 작가의 《재산》이 마련되는 과정이다. 아직은 이들도 바로 그 생활의 과정을 걷고있는것이다.

밤은 깊어 어느덧 자정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날줄 몰랐다. 현대과학과 문명의 모든 면에서 아니 공산주의사회에 가셔도 손색이 없을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서던 그 나날은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공산주의적 인간전형들이 태어난 비약과 전변의 나날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새로운 인간들의 형상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송가로 무르익어가고있었다.

동틀무렵이 가까와오고있었다. 아직은 작품들이 태어나기전 창작적 열정의 용암이 끓고있는 밤이었다. 이 열정의 용암속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매혹적인 형상이 무르익어가고있었다.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오는 시대의 새로운 전형들이...

본사기자 김일규

## 향도성 우러러

백두산일대의 위대한 력사의 자욱을 따라 영광에 찬 로정을 밟으며 현실체험을 하는 작가들을 찾아 우리가 백두산고향집이 있는 소백수골에 들어섰을 때는 정오가 가까와올무렵이었다.

백두산고향집을 찾아오는 수많은 답사자들로 하여 소백수골은 몹시 붐비었다.

《많은 작가들이 이곳에 와서 현지체험을 하며 창작활동을 벌입니다. 벌써 좋은 작품들을 내놓고있거나 집필중에 있습니다.》

머리 희끗희끗한 조선문학창작사 평양시창작실 실장 문제건동무는 얼굴에 한가득 웃음을 띄우며 자못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그도 많은 작가들과 함께 이곳에서 현지체험을 하며 창작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생활을 체험하고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입니다.》**

문제건실장의 공지에 넘친 말에 의하면 많은 작가들이 훌륭한 서정시들과 가사, 아동문학 작품들을 집필하였거나 긴 형식의 작품들을 구상하고있다고 한다. 평양에 있을 때도 늘 기백에 넘쳐 일한 그였지만 이곳에 와서는 더 젊어진듯싶었다.

정갈한 백설을 포근히 인 고향집을 찾는 우리의 마음은 몹시 설레었다.

절로 빨라지는 걸음을 다그쳐 우리는 사령부와 생가의 대문처럼 높이 솟은 룡마바위와 장검바위 기슭의 눈속길을 지나 고향집으로 향하였다.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

꽃잎을 바라보면 그 열정 안겨오고  
푸른잎새 바라보면 그 정기 어려오네  
아 붉고붉은 충성의 김정일화  
송이송이 그 모습을 가슴에 안고살리

...

가요 《김정일화》이다.

노래를 듣는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숭엄해졌다.

우리는 노래에 이끌려 귀를 기울이였다. 깊이 있고 세련된 시 형상, 절절한 음악선율로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덕성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자의 위대한 풍모와 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을 노래하는것으로 하여 가요는 우리의 마음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참으로 훌륭한 노래였다.

《아니 저게 박미성동무가 아닙니까?》 우리들 중 누군가 저쪽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다.

우리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작가 박미성동무였다. 그는 백두산밀영전적지관리소 강사와 함께 고향집주변을 돌며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박미성동무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현실체험을 하며 창작하지요. 그는 지금 좋은 작품들을 내놓기 위해 애쓰답니다. 열정적인 동무이지요.》

문제건실장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이다.

우리는 고향집뜰안에 들어섰다.

백두산밀영의 고향집!

우리는 답사자들과 함께 근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오늘도 그날의 모습을 담고있는 백두산고향집을 이름 못할 감명을 안고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작가 림금단동무는 아동시집 《백두산고향집》을 묶으려고 하지요. 그는 여기서 많은 동요, 동시들을 창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실장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즐거워졌다.

《어디 그뿐인줄 압니까, 시인 전병구동무는 시조를 완성하였으며 소설가 리명균동무도 혁명 전통주체의 단편소설을 추고중에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그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여기서는 사령부밀영과 고향집으로 들어오는 어귀에 있는 장수가 룡마를 타고 장검을 휘두른다는 뜻이 담긴 장검바위도, 그옆에 있는 룡마바위도 잘 보였다. 그리고 아침마다 생가에 첫 해살을 뿌려주는 해돋이바위는 바로 고향집과 마주보이는 산마루에 솟아있었다.

답사자들과 함께 강사의 해설을 듣고있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숭엄한 감정이 솟구쳐올라 숙연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어리신 시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내 고향은 어디인가라고 물으시였을 때 김정숙동지께서 《네 고향이야 백두산이지 어디겠니. 너의 고향은 조선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이란단. ...

너도 크거들랑 백두산에 가보아라.》라고 하신

말씀이 련상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격동시켰다.

결출한 위인, 비범한 영재의 생애는 언제나 비범한것이며 유년시절도 비상한것이다.

서부도이철란드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신 귀틀집의 책상위에 있는 권총이며 쌍안경 등 놀이감들을 깊은 감명을 안고 바라보면서 그 사적물만 보고서도 비범하신 지도자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실로 위대한 시대에 탄생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러르는것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혁명적 인민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뜨거운 함모의 마음을 담아 작가 김철일동무는 장편기행 《백두의 해돋이》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첫회분으로 《향도의 첫 자욱》은 출판에 회부되었다는것이다.

작가 림금단동무의 현실생활체험은 매우 진지하다고 한다. 그는 백두산고향집혁명사적은 물론 백두밀영의 매 사적물들에 깃든 내용을 거의 다 통달하고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하는것으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였다.

또한 시인 김희종동무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사상정신적 높이와 인간적 풍모를 깊이있게 그린 서사시를 창작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의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기저에 놓여진 백두산고향집.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태양으로 모시고 혈전 만리를 헤쳐온 투쟁의 그 걸음걸음!

작가는 이미 김정숙동지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신파지구에서 현지생활체험을 깊이 했고 지금은 이렇게 백두산고향집에서 창작활동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것이다.

고향집뜰안에서 우리는 봄비는 답사자들과 함께 고개를 쳐들어 아아하니 높이 솟은 백설에 뒤덮인 봉우리를 쳐다보았다.

햇숨뭉치 같은 함박눈을 가지마다, 잎새마다 수북수북 떠이고있는 키높이 자란 가문비나무며 이깔나무숲에 가리워 보이지 않던 봉우리가 눈부시도록 밝은 해빛을 받으며 완전한 자태를 드러냈다.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을 지켜 높이 솟은 제일봉 - 《정일봉》이다.

거연히 솟아올라 주변의 못봉우리를 거느리고 혁명의 성지를 옹위하여온 봉우리,

새벽이면 흰구름이 허리를 감돌고 노을이 곱게 피는 아침이면 흰눈을 떠인 봉우리를 남먼저 붉게 물들이고 채운이 머리에 평롱히 빛나는 정일봉,

맑은날 아침엔 깎아세운듯한 절벽이 거대한 경이 되여 천고의 밀림에 빛을 뿌리는 《정일봉》은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라도하듯 강사는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과 그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 높이 솟은 봉우리에 불멸의 존함을 모시게 된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그 이름도 빛나는 《정일봉》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고향집을 옹위하고있는 혁명의 봉우리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리에 위용떨치는 봉우리를 쳐다보느라니 시인 오영재동무가 쓴 시 《정일봉-제일봉이여》의 구절이 깊은 감흥속에 되새겨졌다.

...

여기서 나는 보노라  
무궁하고 창창한 미래를 기원하는  
인민의 념원이  
층층이 쌓이고 쌓여있는것을  
누리에 가득히 내리는  
밝은 해빛이 다 모여있는것을

보노라, 먼 후날의 세기에까지  
주체의 혈통을  
만년초석으로 영원히 이어갈  
우리 당의 기상  
위대한 령도자의 그 의지를

천고밀림

천만봉우리를 거느리고  
승엄히 솟았구나, 봉우리여  
력사와 세기가 환희에 넘쳐  
결출한 영웅의 존함으로  
세상에서 처음 그 이름 불러준  
아, 정일봉  
정일봉

...

훌륭한 시가 안겨준 감흥으로 하여 승화된 감정을 안고 고향집뜰안을 바라보니 소박한 귀틀집과 불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봉우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조선의 제일봉으로 높이 솟은 《정일봉》의 웅자를 두고 지은 자작시발표모임을 하는 대학생들로 붐비고있었다.

시인은 시에서 결출한 영웅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정일봉》은 혁명하는 **전사에게** 영광을 주고 투쟁의 보람과 승리를 주는 봉우리라고, 이 세상 어디서나 안고사는 신념의 제일봉, 사랑의 제일봉, 사상의 제일봉이라고 높이 구가하고있다.

해마다 4 월이면 만경대고향집으로 흐르는 충성의 대오가 2 월이면 여기 백두산고향집으로 뜨겁게 굽이치게 된 기쁨과 영광, 우리 인민이 낳은

영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이었던 항일혁명선  
 렬들이 백두산의 장군별 반들어모시고 싸워 광복  
 을 맞이한 조국땅에 혁명의 2세, 3세들이 향도의  
 밝은 별 함께 모시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혁명  
 위업완성을 위해 싸워나가게 된 우리 민족의 이  
 감격, 이 행복,

감격에 겨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문재건  
 실장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이곳에서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는 우리 작가  
 들은 백두산밀영에 깃든 불멸의 혁명사적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더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시인 리정술동무는 이미 가사 〈빛나라 정일봉〉  
 을 창작하였으며 그것이 지금은 노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조선의 제일봉, 그 이름도 빛나는 〈정일봉〉을  
 볼 때마다 우리 작가들은 령도자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노래하는 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할 결심을 다집니다.》

우리는 작가들이 인류가 흠모하는 세기의 위인,  
 위대한 향도성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작품창작에서 더 큰 성  
 과가 있기를 바라며 그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 영웅은 말이 없다

김홍권

뜨거운 사랑도 받아안고  
 못잇을 감사도 받아안고  
 감격의 고무도 받아안은 그 가슴  
 영웅은 말이 없다  
 다만 한생을 함께 할  
 대형차 차체를 만지고 또 끌어만지며

무슨 말을 하라  
 바람 사나운 철산봉에  
 뿌리내린 그날부터  
 눈비를 헤치며  
 끝없는 광구길에 땀을 쏟으며  
 일로써 당을 받들어온 사람

가슴속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에도  
 먼저 철산봉에 올라 기대를 잡고  
 당에서 그 어떤 구상을 펼칠 때에도  
 남먼저 말없이  
 기대부터 정비한 사람

오늘 다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웁고  
 감격의 눈물에 젖은 그 가슴  
 얼마나 활말이 많으랴  
 하지만 영웅은 말이 없다

묻지 말자 오, 묻지 말자  
 그는 말로써 앞장설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말로써 우리의 가슴 흔들어줄 사람 아니다  
 그는 말로써  
 영웅의 그 이름 빛내일 사람이 아니다

오직 깨끗한 량심을 바쳐  
 진정을 바쳐  
 쇠돌을 나르며  
 만가슴을 흔들어줄 사람이다  
 만걸음을 따라세울 사람이다

오, 이런 마음  
 이런 진실을 믿어  
 당은  
 나라의 억만재부  
 무산의 철광산을 맡기고  
 새 200 일전투의 명령을 내렸거니

영웅은 말이 없어도  
 사람들은 알았다  
 말없는 그 마음에 받들려  
 나라의 부강을 자랑하는  
 인민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있음을  
 우리 당의 존엄있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있음을

## 창밖엔 별빛의 여울 외 1 편

최창근

창밖엔 별빛의 여울  
조종실엔 불빛의 설레임  
텔레비존 화면에 흐르는건  
백열 방출하는 소성로

황홀하여 황홀하여  
이름 못할 흥분에  
조종사 내 가슴도 함께 불타는  
이런 때면

문득 들려오는  
귀에 익은 목소리  
《조종사동무  
조종실이 마음에 듭니까?》

자동차의 본보기 우리 공장 구내길에  
향도의 자욱 찍으시던 그날  
중앙조종실 꽃방석에 앉은  
청년기사들이 보고싶어왔다고  
내 어깨우에 손 얹어주시던 그 모습,  
텔레비존 화면을 들여다보시며  
다시, 또다시 물으시던 그 목소리

붉은등 푸른등  
흐르는 수자는

구슬깨미 별천지런듯  
그날의 감격 되새겨주고  
화면마다 어러오는 자동화흐름선  
그날의 자욱자욱 비취주나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선 이밤도  
조종실을 떠나시지 않으셨구나  
화면을 살피는 우리 눈길에  
예지와 정기를 담아주시며

조종실 불빛  
그것은 지도자동지께서  
하늘의 별을 따다 새겨주신듯  
텔레비존마다에 비낀 화폭  
그것은 그이께서  
앞당겨오신 새 세기의 모습

아, 인간사랑의 뜨거움이  
식을줄 모르는 소성로  
크나큰 심장의 불도가니속에서  
석회석이 익어가는 밤  
세멘트가 구워지는 밤

창밖엔 아름다운 별빛의 여울  
조종실엔 사랑의 불빛의 설레임

## 소성공과 세멘트

아기의 젖살처럼 부드러워  
만지면 손금조차 찍히더라  
꽃가루처럼 도무지 안정을 몰라  
미풍에도 보라되어 날아가더라

하지만 조국의 요구라면  
그 지점이 천길땅속이든 만길물속이든  
순간에 만년초석으로 굳어지더라

기념비가 되어 갑문이 되어  
성새가 되어 방패가 되어

오, 세멘트  
소성공 심장의 불도가니속에서  
네가 익혀졌기에  
소성공의 의지 네가 담고  
소성공의 신념 네가 따르더라

# 믿음

김성원

## 1

큼직한 배낭을 등에 진 한사람이 얼어붙은 상원천 기슭을 따라 걸싸게 걷고있었다.

균형이 잡힌 중기에 다부진 몸매, 시원하게 트인 이마아래에서 열기에 빛나는 눈동자... 흥건설 사업소 초급당지도원 한광일의 털모자밑에서 뜬 김이 문문 피어나고 걸음을 옮길적마다 두툼한 입술사이로 화끈한 열기가 뿜겨졌다.

매운 강바람이 엇그제 내린 눈을 이리저리 물고 다니며 제방우에 점점이 얼룩을 그려놓는다. 그는 산굽이를 돌아섰다. 저 멀리로 립체다리가 그림처럼 안겨오고 그옆 산기슭에 건설장의 장엄한 모습이 펼쳐졌다. 이미 제 모양을 완전히 갖춘 팔형제싸이로가 기세차게 솟아올랐고 그 주위로 수십개 건물들이 다투어 일떠선다. 어떤 건물에서는 벌써 광일도 들은바있는 여러 색깔의 돌외장재미장이 한창이다. 상원천 제방너머에는 공장지구보다 훨씬 넓은 주택건설장이 펼쳐졌다. 우리 당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공장도 살림집도 새롭고 독특한 모습으로 일떠서는 세멘트공장건설장을 광일은 한동안 감동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구에 그의 얼굴에 떠돌던 감동의 빛은 천천히 사라졌다. 얼마전 이 건설장을 다녀간적 있는 초급당 어느 한 지도원의 말이 불시에 귀전을 친것이다.

《동무네 오형빈직장장의 그 병이 또 도지는 모양이야. 직장사람들속에서 의견이 많두만.》

오형빈직장장은 밝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일군이였다. 그런데 로동자들은 어쩐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기업소적으로 인상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직장장이 왜 이런 말을 듣는것인지 직장을 담당한지 한달도 못되는 광일은 채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를 이 세멘트공장건설장으로 배대뒀었다. 그때 역흡에서 남긴 그의 말을 광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도원동무, 이제는 날보구 사람들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야 하지 않겠지요. 허허...》

광일은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이왕이면 직장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싶었다. 그가 한창 벽체가 자라오르는 석탄분쇄장건물 모서리를 돌아설 때였다. 어디선가

《지도원동지!》 하고 부르는 청고운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와 함께 분홍빛 털수건이 흙더미들을 살짝살짝 넘겨짚으며 달려온다. 봄순이란 처

너였다.

광일은 반색하며 성급히 마주갔다. 처녀의 크고 시원한 눈에 한껏 웃음이 실리였다. 가야금이 라면 오금을 못쓰는 얼굴꼭고 정서깊은 처녀다.

《잘 있었습니까. 요새두 가야금을 탑니까?》

《아이참 지도원동지두...》

봄순은 얼굴을 붉혔다.

《모두들 기다렸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처녀는 어쩐지 안도의 숨을 나직이 내그었다.

이윽고 그는 뚝뚝하게 울려간 경사발판우로 날렵하게 뛰어올랐다.

《지도원동지가 오셨어요!》

노래부르는듯한 처녀의 목소리는 이미 머리우에서 울려온다. 광일을 마중하여 낮익고 정든 사람들이 달려왔다. 젊은 반장이 마주오며 호기있게 웨쳤다.

《자 고향소식 듣고 합시다. 휴식...》

건설자들에게서 고향소식이란 말속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있다. 노란 안전모를 벗부려 쓴 청년이 따찌까를 훌렁 뒤집어놓았다. 그우에 병어리장갑을 벗어놓고 광일의 손을 이끈다.

《안락의자 못지 않습니다. 앉으십시오.》

광일이 앉자 사방에서 질문이 터져나왔다. 광일은 배낭아구리를 헤쳤다.

《자, 고향소식입니다. 이젠 박아바이 손자녀석이 보낸 편지, 이젠 황동무한테 온 편지로구만. 첫 아들을 낳았다는 기막힌 소식이 그안에 있을 겁니다.》

탄성이 터져올랐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잦을만 하자 광일은 배낭에서 자그마한 록음기를 꺼내었다.

《자. 여기엔 더 희한한 편지가 있습니다.》

록음기의 단추를 누르자 포랑포랑한 소년의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아버지. 막내아들 철이가 말씀드립니다. 세멘트공장건설에서 혁신자로 소문났다는 아버지의 사진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제일이다.》 이러시면서 집에서 키운 돼지를 잡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야겠다고 하시었습니다.》

폭소가 터졌다.

《허, 그놈... 나도 신문에 나긴 가야겠다.》

《박동무, 오늘 두배는 문제없겠구만.》

사람들은 부러운듯 한마디씩 한다. 광일은 정

어린 시선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이들의 가정을 찾아 째깍이 걸은 헤아릴수 없이 많은 길과 골목들이 불현듯 되밟히며 가슴이 뿌듯해올랐다. 이때 노란 안전모가 웬일인지 반장의 팔굽을 툭 치며 나직이 말했다.

《반장동무, 옵니다.》

광일은 의아해서 청년을 바라보다가 아래로 눈길을 던졌다. 한사람이 발판위로 추어오르고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안정알이 번쩍 섬광을 뿌린다. 오형빈직장장이였다. 작업반장이 느직느직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소리쳤다.

《작업시작 자기 위치로...》

사람들은 자리를 일었다. 아쉬운 얼굴들이었다.

광일은 순간에 벌어진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해졌다.

《왜 이래. 언제 한번 성낼줄 모르는게 우리 직장장인데...》

《하긴 그래. 하지만 우리 직장장동지는 웃을 때 보다 차라리 욕할 때가 더 좋두만.》

누군가 통명스레 말을 던지자 노란 안전모가 느직이 말을 받는다. 작업반장이 미안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우리 직장장동지가 오늘 저기압입니다. 민택이가 권양기를 운전하다 그만 활차를 박산냈거든요.》

《민택이?! 그 동문 수리공이 아닙니까?》

《수리공이지요. 〈기계박사〉인 그 친구가 요새 묘한걸 궁리하느라 권양기운전대를 쥐었던말입니다

활차가 박산나구 작업대 휘틀바닥이 깨지는통에 이 밑엔 〈위험!〉이라는 안전울타리까지 늘어졌지요. 〈여기가 어떤 건설장인가. 동무같은 사람은 여기서 일할 자격이없단말지요.〉 직장장동지가 이랬는데 그건 사실 이 건설장에서 〈추방〉한다는 선고나 같은겁니다.》

반장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비난의 음조가 강하였다. 광일의 배낭을 지고 한옆에 조용히 서있던 봄순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오시다가 혹시... 민택동무를 못보셨나요?》

봄순은 광일의 얼굴에 주었던 절절한 기대의 눈빛을 조용히 발치에 떨군다.

《민택동무가 어디 갔습니까?》

광일은 놀란 눈으로 봄순을 보았다. 반장이 능청스러운 미소를 봄순에게 던졌다.

《그 친구가 글썽 사랑하는 처녀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도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습시다.》

《어마나...》

봄순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뛰어간다. 광일의 심증은 자못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광일은 경사발판을 내리고있었다. 한발 앞서 오형빈직장장이 걸었다. 광일은 건물 출입구앞에서 주춤하니 멈추어섰다.

《위험, 드나들지 말것!》

이렇게 큼직히 써놓은 패말이 망막을 아프게 찌르며 안겨온것이다.

한순간 얼굴이 굳어진 광일은 애원에 겨운 눈길로 오형빈을 보았다.

《직장장동지, 이걸... 걷어치우면 안될가요?》

《예?! ... 걷어치우다니요?》

오형빈은 눈을 치떴다.

《이걸 보니 제 마음도 좋지 않군요. 민택동무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허허 ...지도원동무의 마음은 알만합니다. 하지만 민택이야 떠나간 사람인데...》

오형빈의 얼굴에 아랑있는 미소가 그려졌다.

《직장장동지, 전 어쩐지 민택동무가 떠나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구만요.》

한동안 애모쁜 눈길로 안전울타리를 바라보던 광일은 단호한 걸음으로 건물모서리에 세워놓은 큼직한 그림판앞으로 다가갔다. 적의 화구로 욕박하는 영웅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있었다. 광일은 그림판을 메어다 출입구에 세워놓았다.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떨가요. 사람들이 나들지도 못하구 현장분위기에도 어울리구...》

오형빈은 생각깊은 얼굴로 광일을 보았다.

《내가 교양을 잘못해 면목이 없수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요. 물이 안나 와서 일을 못하고있는 때에 글썽 뿔프를 고치러 가서는 고기잡이를 하는게 그 사람이요. 허참.》

《고기잡이를 하다니요?!...》

광일의 눈은 등실하게 커졌다. 오형빈은 쓰거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기초공사가 한창이던 어느날, 물배관에서 갑자기 물이 멎었다. 민택이를 뿔프장에 보낸후 초조히 물나오기를 기다리던 오형빈은 더 참지 못하고 상원천 기슭으로 내달았다. 숨을 헐떡이며 뿔프장으로 다가서던 그는 참으로 어이없는 광경에 부닥쳤다. 벌거벗은 립민택이 바로 오형빈의 코앞에서 《잡았다!》하고 물을 차며 솟구친것이다. 그의 손에서는 샅날만한 자라가 음지락거렸다. 늦가을의 찬물에 민택의 얼굴은 퍼렇게 질려있었다. 당장 홍두깨같은것이 오형빈의 가슴에 불끈 치밀었다. 그는 성급히 뿔프장으로 다가서며 낮으나 맵싸게 소리쳤다.

《동문 자라잡이 왔소? 여기가 어떤 건설장인데 이렇게 철없이 놀아대오!》

《예?》

민택은 추운듯 진저리를 쳤으나 오연히 고개를 쳐들며 울분어린 눈길로 직장장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입을 벌렸으나 쏘는듯한 직장장의 그 눈길에 지겨운듯 얼굴을 꺾 돌려버렸다. 그리고는 우물거리며 기어가는 자라를 발로 탁 내쳤다.

《예익… 이놈이 이래저래 일을 치는군.》

그것은 등뒤에서 날아오는 민택의 뒤틀린 목소리였다. …

오형빈은 이마에 발고랑같은 주름을 파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건물이 높아져서 가뜩이나 혼합물이 팔리는 때에 활차마저 박산냈으니 허참…》

광일의 눈앞에는 느닷없이 부얼부얼하고 선이 굵은 민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알건대 민택은 기술이 능하고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마는 열정있는 청년이었다. 그가 고장난 뿔프를 옆에 두고 자라잡이를 했다는것이 어쩐지 믿어지지 않았다.

《가버리길 차라리 잘 했지요. 아예 오지 말라고 기별을 보내자는 생각입니다.》

오형빈의 말은 어딘가 랭담하게 울렸다. 광일은 마음이 언짢아 찬찬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날이 어두울무렵, 광일은 민택이 일했다는 수리장에 찾아갔다. 수리장문에는 어쩐지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았다. 그는 은연중 한가닥 희망을 품으며 급히 문을 열어젖혔다. 비어있었다. 수리장안은 서너발자국만 옮기면 판자벽에 발끝이 채운다. 그래도 칸을 막아 두어사람은 푹푹히 누울 수 있게 침실도 알뜰히 꾸렸다. 무시로 제기되는 기계수리의 기동성을 위하여 이 수리장에 잡자리를 정했다는 민택이다. 광일은 장판바닥에 손을 짚어보았다. 솜털이 곤두설정도로 산뜻하다. 수리기공구들이 보기 좋게 놓여진 수리장안을 한동안 서성거리던 그는 곡괭이를 찾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집모서리로 분홍색 머리수건이 얼추 눈에 띄었다가 급히 사라진다. 봄순이었다.

(아, 민택이를 기다리고있구나!)

광일은 가슴이 몽클해짐을 느끼며 성급히 집뒤로 돌아갔다. 그가 민택을 기다린다는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봄순의 자태는 저앞 자동차길로 멀어졌다. 광일은 못쓰게 된 판자들을 한아름 주어다놓고 아궁이에 불을 달았다. 그의 귀가에는 문득 사무실 책상우에 배낭을 벗어놓으며 조용히 속삭이던 봄순의 물기젖은 음성이 되살아났다.

《민택동문 권양기운전대를 쥐고서도 그저 감속치차 돌아가는것만 살펴보다나니 미처 정지신호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고보면 그는 무엇인가 구상을 안고 모내겨온 사람이었다. 하다면 그 모든것을 버리고 그렇게 쉽사리 가버릴수 있을까?

광일은 심중이 무거워 건설장어구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울퉁불퉁한 구내길이 끝나고 넓은 포장길이 나왔다. 저물면서 더욱 맵찐 바람이

얼굴을 아프게 핏으며 앵소리를 내지른다. 자동차 바퀴에 짓찍혀진 눈이 포장길을 따라 아물아물 멀어졌다. 그 눈길우에 어른거리는 사람의 룼박이 아슴푸레 나타나고 미구에 비자루같이 쏟아져나오는 입김까지도 느껴진다. 그 사람이 눈앞에 다가 온 순간 광일은 두손을 쳐들며 허망지망 몇걸음 내짚었다. 림민택이었다.

《민택동무!…》

민택은 힘겨운듯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지도원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그는 어깨에 메였던것을 메치듯하고 두손을 쳐들었다.

《지도원동무!…》

걱정어린 그 음성이 어방없이 큰 진폭으로 가슴속에 메아리친다. 가슴 한복판으로 쟁한 전류가 흘러가고 눈뿌리가 시큰해졌다. 광일은 뜨겁게 민택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길바닥에 시선을 주었던 광일은 또한번 가슴이 화끈해졌다. 기름기 번지르한 새 활차가 길바닥에 군드려져있다.

《제가 그만…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갔뎡단말지요? 그런 걸…》

광일은 성난 사람처럼 히 빙 활자를 메였다. 무거웠다. 이것을 지고 20리 눈길을 헤쳐왔을 민택의 수고가 또 한번 뜨겁게 헤아려진다. 건설장에는 주물하는데가 없으니 읍의 어느 공장에 갔을것이다.

광일은 걸음을 떼며 얼굴을 들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눈앞에 봄순이가 소꿉이 서있었다.

(아, 봄순이… 민택을 기다린 처녀!)

### 3

수리장 침실에 들어선 민택은 앓은뱅이책상우에서 급히 종이 한장을 찾아내어 광일이 앞에 밀어놓았다.

《이건 뭐요?》

금시 방안에 들어섰던 광일은 의아한 눈길을 종이우에 수그렸다. 공책 한강만한 종이에는 《복선혼합물철함》이라고 쓴 제목글이 써여있고 그 아래에 무슨 도면이 . 빼곡이 그려져있었다.

《우린 지금 미끄럼식 시공방법으로 이 석탄분쇄장 벽체를 뿔아웁니다. 그런데 건물이 높아지니 혼합물을 미처 대주지 못하구. 그러니 시공속도가 떨어집니다.》

민택은 눈에 열기가 차올라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합물통의 오르내림을 복선으로 하자는겁니다. 지금 쓰는 권양기 한대를 가지고말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두배의 능률을 낼수 있거든요.》

《두배?!…》

광일은 금시 가슴이 뻐근해졌다.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전혀 엉뚱한 배짱이 느껴지는 구상이었다.

《그래 직장장동무는 뭐라고 했소?》

웬일인지 민택의 얼굴에 떠돌던 미소가 천천히 걷히었다.

《뭐 말도 해보지 않았습시다.》

《음...그랬단말이지!》

광일의 얼굴에 심각한 기색이 떠올랐다. 자신마저도 구속할수 없는것이 인간의 감정이다. 그러니 결국 직장장과 얽혀진 그 미묘한 생활의 순간들이 민택의 마음의 문에 자물쇠를 걸어버린것이다.

광일은 오형빈이 못내 기다려졌다. 실상 이자리에는 자기보다 직장장인 오형빈이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광일은 슬그머니 자리를 일었다. 오형빈에게 봄순이라도 보내고싶었다. 밖에 나서니 아궁이앞에 웅크리고 앉은 봄순의 얼굴에 상그레 웃음이 실려있었다.

《봄순동무!...》

《어마나...》

깜짝 놀란 처녀는 상큼 일어섰다. 그는 한동안 눈둘곳을 몰라 헤뎠었다. 광일은 가슴이 훈훈해 올라 빙그레 웃었다. 성깔지고 열정있는 청년을 위해 남몰래 바치는 아련하고 마음씨 고운 처녀의 순정은 광일의 마음까지도 건듯하게 가져준다. 광일의 부탁을 안고 봄순은 총총히 멀어져갔다. 민택은 벌써 권양기드람의 쇠바줄을 풀고 활자를 걸고있다. 그의 일손을 거들며 광일은 민택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그는 아무래도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기웃하며 조심히 말을 걸었다.

《작은 실개천이던 저 상원천이 큰 강으로 변한것만 보오.》

여기서 광일은 말을 끊고 민택을 넘겨다보았다. 청년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천천히 살아올랐다.

《웁습시다. 난 처음 와서 정말 놀랐습시다. 기대공이 따루없이 원격조종실에서 조종사 몇명이 공장을 움직이구. 나오는 먼지를 몽땅 제진기로 잡구... 당에서 우리 로동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가를 깊이 느꼈습시다.》

(음! 그는 모든것을 깊이 느끼고 자각하고있다.)

그런 그가 뽐프를 고치러 가서 어떻게 자라잡이를 하였을가?)

《나도 이런 공장은 처음이요. 당에서 세워주는 본보기공장이니까.》

광일은 생각깊은 얼굴로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말이요. 상원천에... 자라가 많소?》

뜻밖의 질문에 민택은 일손을 멈추고 의아해서 광일을 보았다. 하면서도 느직느직 말을 받는다.

《그전부터 자라가 많기로 소문났답니다. 전번엔 뽐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북아치길래 가보았지요. 그랬더니 글썽 삽날만한 자라가 흡입구를 뚝 막고있더군요. 그 며칠후엔 그 뽐프장

에서 자라를 한바게쓰나 잡아냈습시다.》

광일은 어마지두 얼굴을 쳐들었다.

《자라가 뽐프 후도를 막았더란말이요?!...》

《왜 그렇게 놀랍니까? 갑자기 물을 빨아올리니 후도에 뚝 들어붙었지요. 그놈의 자라때문에 이 민택인 직장장한테 단단히 경을 쳤지요.》

《아니 직장장동지한테 그 얘길 했어야 할걸 그랬소!...》

광일은 어쩐지 어성이 높아졌다.

《예?!...》

이번에는 민택이 놀란 얼굴이었다. 좀 후에 그는 무엇을 알아차린듯 원고개를 틀어올렸다.

《지도원동무두 그래서... 뭐 욕이라도 시원히 해야 말 붙여볼 틈이 있지요. 그리구 제가 말하지 않아두 직장장동지야 이걸 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본단말이요?》

《저같으면 추위에 덜덜 떠는 사람이 걱정스러워서도 이려했습니다. <이사람 감기들면 어쩔려구 그래.> 이쯤하면 몸도 훈훈해지구 고장난 기계도 더 잘 고쳐지겠는데... 우리 직장장동진 이려질 않거든요.》

광일은 그만 실소를 했다.

《그것참 그럴듯하구만! 하하하.》

광일이 웃어제끼자 민택의 입귀에도 빙글썽 웃음이 실리었다. 때마침 오형빈이 권양장에 들어섰다. 신통한 때에 들어서는 그를 보자 광일의 웃음은 높아졌다.

《민택동무, 직장장동지도 마침 오셨는데 그 기막힌 얘기를 한번 더하오.》

민택은 금시 얼굴이 불깃해졌다.

《기막힌 얘기가니?》

오형빈은 따라 웃었으나 어딘가 따다붙인듯한 어색한 웃음이었다. 민택이 활차를 메고 나타나는데 바람에 마음이 솔갑고 거북해지는 오형빈이었다.

《민택동무한테 상원천 자라를 잡던 들어볼만한 얘기가 있군요. 후에 내가 대신 얘기해드리지요.》

광일은 기회가 오면 꼭 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말머리를 돌렸다.

《참, 민택동무가 벽체 시공속도를 두배로 높일 좋은 공장을 가지고있었습니다.》

《두배요?》

오형빈은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기웃했다.

《민택동무, 그 도면을 좀...》

민택이 시들한 얼굴로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

광일이 민택의 착안을 자상히 설명했다.

《복선으로 한다?...》

오형빈의 얼굴에 얼핏 실망의 기색이 비끼었다.

더구나 혼합물보장문제로 말하면 주택건설장에서 쓰고있는 기중기차를 돌려오기로 이미 지휘부와 락착을 지어놓은 오형빈이었다.

《될것 같습니까? 민택동문 쇠바줄만 한 100메터 주면 당장 하겠다는건데...》

광일의 어조에는 절절한 기대와 부탁이 실려있다. 얼핏 보기에도 민택의 착상이 어쩐지 아이들 장난같이 어설피게 느껴져 오형빈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좀 후에 오형빈은 도면에서 얼굴을 들었다.

《쇠바줄만 주면 된단말이지요? 내... 해결해보겠습니다.》

말해놓고보니 오형빈은 제판에도 어쩐지 불만스러웠다. 그는 민택이쪽에 가벼운 미소를 보내는것으로 불민한 대답을 보태었다. 광일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그의 대답이 언짢았으나 민택이 앞에서 그것을 굳이 끌어댈으려하는듯 소리내어 웃었다.

《해보잔말이지요. 직장장동지가 좀 물어주십시오.》

했으나 민택은 그게 못마땅한듯 이마살을 찡그리며 권양장을 나갔다.

## 4

건설장에 눈보라가 몰아쳤다. 그러나 우리숨이 불로 덧집을 지어놓은 건물마다에서는 콘크리트 타입이 계속되고 용접의 불보라가 쉬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날이 어두울수록 광일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 겸 침실로 쓰는 혼 혼한 방안에 들어서고보니 쌓였던 피곤이 왈각 눈섭을 잡고 늘어진다. 피곤을 몰아낼듯 성큼 일어서 방안을 거닐던 그는 책상우의 도면에 눈길이 닿자 걸음을 세웠다. 직장장한테 보이자고 감광지에 옮긴 민택의 도면이었다. 그새 광일은 민택이와 함께 여러차례 기술자들과 만나 그의 현실적 가능성도 따져보고 지혜를 모아 더러 수정보충하기도 했다.

도면 여백에 박아쓴 《직장장-쇠바줄》이라는 글자가 안겨오자 그는 의자에 무겁게 몸을 실었다. 그는 눈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여섯글자에 의미없이 덧글을 놓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미 혼합물철함까지 다 만들어놓은 민택은 직장장이 쇠바줄 가져다주지만 기다리고있다. 오형빈은 약속대로 가져다줄것이다. 아니, 성의껏 도와 그것을 성사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 지금껏 잃었던 귀중한것을 되찾아야 한다. 광일은 이미 어방없이 획이 긋어진 그 여섯글자뒤에 민택의 이름을 더 박아넣었다. 그새놓고보니 두 마음을 하나로 융합시킬 신비한 열쇠가 제앞에 놓인듯싶어 광일은 자기의 어깨에 덧씌리는 무게를 새삼스레 의식했다. 그는 도면의 한점에 오래동안 시선을 박았다.

민택의 안에 복활차의 원리를 리용하면 더 능률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얼핏 뇌리를 스친것이다. 그러면 복잡한 공정은 피하면서도 필요한 능력을 쉽게 얻지 않을까? 광일은 때늦게 떠오른 직장장 생각에 주먹으로 가볍게 이마를

치며 자리를 일었다. 오랜 시공지도원의 경력이 있는 직장장은 이것을 어렵지 않게 갈라낼수 있을것이다. 광일은 성급히 도면을 말아들었다. 그는 다시 눈보라를 안고 현장으로 나갔다. 직장장은 현장에 없었다. 그는 민택의 수리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수리장 문손잡이를 쥐었던 광일은 슬그머니 손을 내렸다. 안에 마주선 민택이와 봄손이가 얼핏 눈에 띄운것이다.

《그래두 직장장동지가 쇠바줄을 주겠다고 말씀 했는데... 기다려보지 않았어요?》

잔잔하면서도 애원에 찬 봄손의 말이다.

《동문 직장장동지의 그 얼굴을 보고서도 그래.

그 말을 믿다간 이걸 못하오. 쇠바줄을 어디서 빌려서라도 난 이걸 빨리 해야겠단말이요.》

민택의 어조는 단호하다.

《민택동무!...》

봄손의 부름이 애처롭게 울렸다. 광일은 가슴이 섬적해졌다. 싸늘한 힐난의 눈길, 진심이 감추어 진 외교적인 미소...이 단순하다 할 생활의 순간들이 순박한 청년에게서 직장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그렇게도 여지없이 앗아갔는가!

공식적인 지시, 기계적인 수행...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광일은 일종의 격분을 느끼며 성급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아니요. 민택동무. 직장장동무는 동무이상으로 애쓰고있소. 쇠바줄은 이제 가져온단말이요.》

광일의 음성은 흥분으로 떨렸다. 뜻밖인 광일의 행동에 민택은 일순 당황해했다. 그러나 고집스런 표정이 이내 얼굴에 되살아났다. 흥분한 광일은 기름벤 쇠바줄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동문... 자기 지휘관을 믿어야 하오. 진심으로 말이요.》

민택의 얼굴에도 별정계 울기가 살아올랐다.

《저두 좀 할말이 있습니다. 저두 이 공장건설을 맡고있는 건설자의 한사람입니다. 혼합물문제도 그렇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당비서처럼 우리들하구 속을 헤쳐놓구 자, 이 문제가 걸렸다, 힘을 합쳐 이걸 풀어보자, 왜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지 못합니까. 우린 이렇게 종단말입니다.》

주먹이 퍼래지도록 망치를 틀어잡은 민택은 바른말을 곧추 내지른다. 그리고는 권양기드람을 힘 하니 들어 작업대우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광일은 창졸간 말문이 막혔다. 민택의 말이 명치끝을 아프게 찌르고든것이다. 그 말이 자기에게 울리는 경중으로 느껴졌다.

《동무의 말은 옳을수도 있소. 하지만 그 행동은 다 옳은게 아니요. 사람의 믿음이란 그게 아무리 웃사람과 아래사람의 경우에도 호상성이 있단말이요. 동무는 그 신성한 감정을 그 누구에게서 바라기전에 직장장동지앞에 얼마나 허심하게 주었는가 하는것부터 돌이켜보아야 하오.》

민택은 잠잠해졌다. 그 모습을 아픈 눈길로 더듬던 광일은 수리장을 나섰다. 언제 새어나왔는지 문열에 오도가니 서있던 봄순이 수리장 모서리로 총총히 사라진다. 광일은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민택의 우려가 진정 공연한것이겠는가. 오형빈의 태도로 심분 있을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있을수 있는 작은 일이 빚어낼 심각한 후과를 생각하는 순간 광일은 걸음이 빨라졌다. 직장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오형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일을 잊은듯 방 안에서 한동안 서성거리던 그는 직장장의 책상우에 도면을 퍼놓았다. 언제든 들어 오면 오형빈이 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돌 말려오르는 네귀를 애써 비다듬어 앉혔다. 그래도 무엇인가 잃은듯 어쩐지 허전해서 출입문을 열어 잠았던 그는 급히 되돌아섰다. 도면앞에 다시 다가선 광일은 방금전에 자기의 사색이 집중되었던 도면의 한점에 의문부호를 그려놓았다.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주기 바라는 무언의 암시였다.

문이 바시시 열리더니 추위에 두불이 발갈게 익은 통계원처녀가 들어선다.

《아이, 지도원동지가 여기 계신걸...》

광일은 무언중 반가움이 앞섰다.

《직장장동지를 못봤소?》

《어마나, 직장장동지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금방 주택건설장에 기중기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처녀는 그저 상글거리며 주머니에서 종이장을 꺼내여 광일이앞에 내민다. 광일은 그 어떤 예감을 느끼며 급히 종이를 받아들였다.

《지도원동무, 다행히도 오늘 지휘부에서 기중기차를 가져가라는 기별이 왔습니다. 이젠 혼합물이 풀렸습시다.》

광일의 얼굴은 창졸간 경련으로 일그러졌다. 종이를 든 손이 가늘게 떨린다. 분했다.

배반당하듯한 쓰라림이 가슴에 우 밀려들더니 고개를 치며 돌아갔다. 그가 혼합물을 푼다는것이 결국 이 길이었단말인가! 광일은 애당초 오형빈이 민택의 창안에 기대를 가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러니 민택은 얼마나 예민한 눈으로 자기 직장장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는가. 광일은 높이 치솟은 철길뚝에 올라 잠시 숨을 쉰었다. 그리고는 눈무지를 걷어차며 다시 내달렸다. 그는 주택건설장을 저앞에 두고 큰길에 나섰다.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사람이 털썩털썩 다가온다. 오형빈직장장이었다. 광일은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길 한가운데 버티고섰다. 오형빈은 온통 눈을 들쓰고 앞을 막아선 광일을 놀란 눈으로 보았다.

《지도원동무가 어떻게?...》

《직장장동지는 지금 어디에 가고있습니까?》

광일은 분하고 안타까와 목소리가 떨리었다. 오형빈은 한순간 주춤했다.

《기중기차를 가지러 가오. 통계원동무가 애길 안합니까?》

너무나 혼연한 태도였다. 광일의 가슴은 또다시 부그그 끓어올랐다.

《그럼 민택동무와 하신 약속은 어찌 됩니까?》

분합니다. 직장장동지의 그 진짜속심을 진작 알아보지 못한것이 분합니다.》

오형빈도 은연중 어성을 높여었다.

《지도원동무, 지금 혼합물문제는 한초가 새롭소. 문제는 혼합물을 대주고 봐야 할게 아니요.》

《직장장동지, 이건 단순히 혼합물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민택동문 직장장동지가 쇠바줄 가져오길 기다리고있습니다. 믿고있단말입니다. 로동자들의 이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지도일군이겠습니까!》

《지도원동무, 그건... 무슨 소리요?》

오형빈은 뜻밖인듯 광일을 멍하니 보았다. 빛이 꺼진 눈빛이었다.

광일은 절절하게 말을 이었다.

《직장장동지는 로동자들과 함께 먹고 한이불속에 자고있으니 이젠 군중속에 산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살면서도 직장장동지는 찬물속에 들어가 뿔프를 살린 민택동무를 자라잡이나 하는 덜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훌륭한 창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직장장동지! 당에서 바라는 직장장동지의 위치는 여기가 아닙니다.》

오형빈은 듣기가 거북한듯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었다. 광일은 아픈 눈길로 그 모습을 더듬었다. 그는 낮아진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직장장동지,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자기 마음을 헤쳐보이지 않습니다. 뜨겁고 진실한 믿음과 사랑, 우리 로동자들은 바로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 여기엔 지휘관의 존재도 없습니다.》

오형빈은 무슨 말인가 할듯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단념한듯 그는 컴컴해진 눈길을 발치에 떨구었다.

## 5

오형빈은 피로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한순간 그는 광일의 처사가 노여웠다. 그는 혼합물때문에 뛰어다니는 직장장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는가! 내가 그처럼 버림받은 인간인가!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광일지도원의 말이 하나도 부정할수 없는 진실임에 놀랐고 쓸쓸해졌다.

오형빈의 눈앞에는 안전울타리를 놓고 그리도 모대기던 광일의 안타까운 얼굴이 불쑥 떠오르고 텅빈 수리장에 불을 지피며 믿음을 안고 민택을 기다린 그의 마음이 뜨겁게 헤아려졌다. 자기는 아무런 생각없이 늘어놓은 안전울타리였고 가벼웠다고 생각한 민택이었다. 지친듯 의자에 무겁게 몸을 싣던 그의 시선은 책상우의 도면에 머물렀다. 흐린 눈길로 한동안 도면을 보던 그의 가슴은 불몽치를 안은듯 화끈해졌다. 점과 선으로 가득찬 민택의 새 도면이었다. 그 여백에 《직장장-쇠바줄-민택》이라고 박힌 여덟글자가 살아움

직이듯 망막을 아프게 자극한다.

또 한번 가슴저미는 죄감에 사로잡혔다.

그때 시들한 눈으로 보았던 민택의 도면에 창안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소박하면서도 참으로 기발한 구상이 담겨진것이다. 오형빈은 신음소리를 내며 의문부호가 새겨진 도면의 한점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는 불시에 가슴을 치는 생각이 있어 급히 원주필을 찾아들었다. 복활차를 쓰면 안전하고도 더 큰 예비가 나올것 같았다.

(의문부호... 음, 그래서였구나!)

우썽 힘이 솟은 그는 자기의 구상을 도면에 덧그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도면을 말아든 오형빈은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석탄분쇄장건물앞에서 걸음을 떠졌다. 수리장에서 오는 길인듯 봄순이가 총총히 마주오고있었다. 오형빈은 처녀를 불렀다. 그의 앞에 다가서는 처녀의 얼굴에 어쩐지 근심이 자욱히 서려있다. 오형빈은 머리를 기웃하며 입을 열었다.

《수리장에서 오는 길이요?》

《네, 그런데... 지도원동지가 광산 채굴장에 갔다가 방금 수리장에 들어섰어요. 온통 눈을 들쓰구...》

처녀는 어쩐지 울먹였다. 오형빈은 그 어떤 예감에 번쩍 얼굴을 들었다.

《갑자기 거기엔 무슨 일로 갔됐다는거요?》

봄순은 웬일인지 대답을 갑자른다.

《저... 거기에 민택동무가 쇠바줄 얻어오겠다고 갔는데... 지도원동지가 후에 알고 당장...》

(민택이, 쇠바줄...음!)

오형빈은 몸을 떨었다. 민택은 기다리다못해 광산에 쇠바줄 얻으러 떠났을것이다. 광일은 또 다시 빠져나가는 민택을 나에게 떠밀어주려고 눈보라 사나운 석회석 채굴장, 20리가 넘는 생눈길을 헤쳐야 했을것이다! 불시에 눈앞이 뿌애짐을 느끼며 그는 수리장으로 내달았다.

... 다음날 이른아침이었다. 형빈직장장과 민택은 솟는 해가 눈아래로 보이는 건물우에서 이마

를 마주하고 일손을 다그쳤다. 마지막 나사를 조인 오형빈이 민택을 넘겨다보며 말을 걸었다.

《민택이 시작해볼가?》

그의 코밑에 꺼먼 고양이수염이 그려져있었다.

민택이와 수리장에서 밤을 새운 오형빈이다. 이윽고 가르릉거리는 권양기소리가 나고 두 혼합물통이 하나는 우로, 하나는 아래로 움직인다. 건물우에 오른 철통에서는 걸쭉한 혼합물이 좌르르 쏟아진다. 민택을 바라보는 오형빈의 얼굴에 문득 빙그레 웃음이 피어났다.

《직장장동지, 왜 웃으십니까?》

《물어보면 대주겠나?》

《뭘말입니까?》

《동무재간에 봄순이를 어떻게 후려냈는지 수수께끼란말야. 사연이 길겠지? 저녁에 좀 들려달라구!》

《예? ... 그야 뭐...》

민택은 목덜미가 벌개졌다. 하면서도 느직느직 속심있는 소리를 한마디 뱉었다.

《마음이 통하니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 저절로 정이 가더군요.》

《그게 다요? 너무 간단하구만. 하하하...》

민택의 배허벅을 쿡 내지르며 유쾌하게 웃어대던 그는 문득 웃음을 거두었다.

(그렇다! 마음이 통하면 사랑도 싹트고 믿음도 생겨나는것이다. 그러니 나는 어느 외지발을 헤매 다녔는가!)

그들의 말이 밑에까지 들렸던지 얼굴을 싸쥐는 봄순의 모습이 그림처럼 안겨온다. 그 옆에서 광일은 소리없이 웃고있다. 눈시울 따갑게 안겨오는 광일의 그 얼굴은 이렇게 일깨워주는듯했다.

《직장장동지, 믿고 사랑하고...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있고 바로 그 안에 직장장동지의 설 자리가 있습니다.》

《고맙소, 지도원동무!》

광일을 마주보는 오형빈의 눈에 깊은 감사의 정이 차올랐다.

## ◇가사◇

# 영웅많은 우리 마을

## 현창성

산도 좋고 물도 좋은 우리 농장 마을에  
경사로세 여섯번째 영웅이 났네  
샘물집 만머느리 농사를 잘 지어  
가슴에 금별을 단 영웅이 되었네

중기사수 용맹떨친 영웅이 여기 있고  
만풍년 이름날린 영웅도 여기 있네

나라에 공을 세운 자랑이 많으니  
마을엔 행복도 기쁨도 많다네

산천경개 좋아서 영웅이 나는가  
수령님 사랑속에 태어난다네  
우리 당의 가르침 가슴마다 새기고  
오늘은 온 마을이 영웅으로 자란다네

# 나에게 하는 말 외 1 편

리 석

언제나  
머리를 먼저 숙이는 마음에  
밤새 안녕한가고  
인사도 살뜰한 그 말속에  
진정이 깃들어 미덥더라

일 마친 저녁  
공장구내를 돌아볼 때  
구내길에 떨어진 락업을 쓰는 사람 보며  
공장에 저런 주인이 많아  
생활이 이리도 즐거운줄  
내 새롭게 느끼는 때 있어라

비바람 세차게 부는 밤  
새로 일떠세울 탁아소건설장에  
부려놓은 세멘트가 걱정되어 달려나왔을 때  
먼저 달려나온 사람 마주보며

내 눈물이 나도록 고맙기도 했어라

허나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되는 사람도 있어라  
남모르는 먼 출장지에서  
남모르게 범한 잘못 숨기려들 때  
그런 사람 한번 잘못 본다면  
수천톤의 세멘트  
수만톤의 비단천 잃을수 있고  
때로는 쌓아놓았던 벽체도 무너질수 있으리니

보이지 않는곳에서도  
묵묵히 땀을 바칠줄 아는 사람  
진짜배기 사람들 그늘밑에서  
입치레와 눈치로  
우리 생활에 걸도는 사람은 없던가

## 건설자의 마음

아직은 시원한 그늘 펼칠 나무도  
그밑의 의자도  
여름 한철 마음 기쁘게 해줄  
분수도 없다

파헤쳐진 흙무지  
설새없이 긴팔을 짓는 기중기  
소금기 묻는 작업복  
뛰고 달리는 열정의 소음뿐...

허나 건설자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잎푸른 공원의 가로수길을  
즐거이 걷는다  
분수의 비말에 가슴도 젖어본다

다정히 의자에 앉아  
춤추듯 솟구치는 분수를 보며  
행복에 겨워 웃으며 떠들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오늘에 래일을 즐기며  
위훈의 길 즐겨 걷는 건설자

이런 마음없이야  
우리 어찌 땀흐르는 어깨로 바위돌 굴리며  
비바람에 젖어 살라

몰아치는 눈보라 웃음으로 맞으며  
철골을 세우라

우리는 그러본다  
불도젤이 파헤치는 저 흙무지밑에서  
춤추며 솟구치는 분수가의 무지개  
축전도시 평양에 온  
5대륙의 벗들이  
저 분수가에서 손잡고 춤추며  
황홀경에 취해 발걸음 쉬이 못떼는 그 모습을

달빛 은은한 여름밤이면  
솔바람에 공원의 푸른 잎들이  
은빛 번쩍이며 설레이리  
은하수 내린듯  
키돋움하며 일떠선 불밝은 창가들  
생각만 해도 가슴 진정할수 없어라

아, 건설자  
우리는 래일을 안고사는 사람  
지금 우리 눈앞엔  
그림같은 공원이 보이지 않는다  
허나 우리 마음은  
벌써 푸른 공원속에 살아라

# 어머니 심정

강기수

안아보자 내 아들이  
금별메달을 달고 왔으니  
꿈만같구나 네가 정녕 내 아들이냐

당이 불러준 철길건설장에 나가  
철길을 놓는다더니  
오늘은 건설의 영웅되어  
고향에 왔구나

너를 품에 안아 젖을 먹일 때  
나라의 충성동이 되라고  
네 이름도 충성이라 지어준  
이 어머니의 소원이  
네 가슴에서 빛나고있구나

얼싸 껴안고 불을 비비니  
이 가슴에도 훈장이 철렁이는듯  
뜸뜸한 너의 어깨 쓸어보니  
수백리 철길로반을 쓸어보는듯

이런 날이 없다면야

잠자는 아기 찬바람 맞을세라  
꽃포단 여머주고도 마음 못놓던  
어머니의 그 진정이 있으라  
래일의 소박한 꿈이 있으라

조국에 아들을 내세우는 어머니 마음  
너 아느냐 아들이  
의지는 대처럼 굳세고  
바치는 충성은 하늘처럼 높기를...

건설의 나날  
내가 위훈을 세웠다면 얼마랴  
네 가슴에 단 금별메달을  
당의 사랑으로 알거라 믿음으로 알거라

가슴을 내밀어다오, 사랑하는 아들이  
걱정이 잦을날 없던 이 에미손으로  
금별메달을 쓸어보며 나도 달아주고싶구나  
당의 은혜에 꼭 보답하거라  
어머니의 당부가 새겨진 메달이 있으면...

## 불꽃을 사랑해, 위훈을 사랑해

전영순

상원천 기슭에 배낭을 풀고  
건설의 낮과 밤 함께 달려온  
용접공, 언제나 미더운 그 동무

무엇이 좋은지 그리도 좋은지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그 마음속엔  
알뜰히 살뜰히 벽체를 밀어가는  
내 일이 부러운지 부러운지...

오늘도 기다린듯 발판우에서  
정답게 하는 말  
-쳐너동무, 불꽃이 내려가니 주의하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더더욱 붉어지는 앵두불

수집어도 그 눈빛 마주보며  
나도 이 말을 하고싶었던듯  
-하는 일 없이 꽃보라만 받기가 미안하군요

철지붕 조립하며 벽체를 미장하며  
이런 때 이런 순간 때없이 있어도  
철옷을 입히는 그대가 미더워  
내 마음속에 소중한 새겨진 불꽃  
위훈의 불꽃을 나는 사랑해

불꽃을 바라보면 그 동무가 웃는듯  
나날이 일떠서는 공장을 보면  
마치도 그 동무가 다 일떠세운듯  
꽃보라속에 웃는 그 동무가 보여요

## 포착

리수명

회의장의 밝고 은은한 형광등불빛은 봄 여름내 들바람과 벌에 탄 사람들의 철색얼굴까지도 연한 적동색빛으로 물들었다. 사람들과 천정사이의 공간은 물론 몇줄 비어있는 뒤쪽 빈자리까지도 기쁨과 환희, 긍지와 자랑... 이 즐거운것들로만 온통 차고넘쳤다. 아니, 사람들의 숨결에서까지도 그 즐거움을 안은 아름다운 꽃정들이 금시 보일듯 싶게 날아예며 환희롭게 춤추는듯하였다. 이렇듯 초급당총회장은 여느때없이 밝고 화기로왔다.

회의시작부터 무대의 소박한 단우에 가슴밀창까지도 다 열어헤친듯 틀없이 앉아있는 한재영리당비서며 최만석관리위원장의 너부죽한 얼굴에 넘쳐난 한껏 너그움을 베풀듯한 푸근한 미소가 당원들의 얼굴에 그대로 옮겨진것이다.

하긴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있는 군당확대전원회의에서 올해농사를 군적으로 자기네 농장이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한 관리위원장의 그 긍지와 기쁨에 넘친 말이 쉽게 지울수 없는 여운으로 시종일관 회의분위기를 지배하고있었는데도 모른다. 하여 토론자들도 이전과는 달리 그 즐거운 기분으로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고무추동하며 새로운 결의들을 열렬히 다질뿐 그 어떤 심각성을 띤 이야기들은 하려고들 하지 않았다.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이며 주의깊게 토론들을 듣고있던 초급당비서 한재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군당확대전원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최만석관리위원장이 그의 옆구리를 슬며시 건드리며 하던 말이 더욱 따뜻하게 귀전에 울려왔다.

《허참, 평가를 받으니 확실히 좋구만, 기쁘거든!

비서동무, 오늘저녁 초급당총회에서도 당원들을 후하게 평가해줍시다. 일년내내 누구보다 수고가 많은 우리 사람들인데!...》

이 말을 듣는 첫 순간 한재영은 그 무엇인가 예리한것에 찔린듯 가슴이 뜨끔했었다. 지난 기간 사람들에게 높은 요구만을 제기하고 평가는 너무 린색하게 했던듯 싶었던것이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습벅이며 동의한다는 뜻으로 마주 웃어보였지만 그의 허물없는 말을 따듯한

비판과 조언으로 가슴깊이 새겨두었던 그였다.

한재영은 그 조언이 지금에 와서 더욱 고맙게 느껴져 슬며시 눈을 뜨고 최만석을 바라보며 은근한 감사의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정이 넘치는 눈길로 당원들을 둘러보았다.

《좋은 결의들이 나왔습니다. 또 토론들을 하시오.》

이미 여러명이 토론한뒤라 잠시 조용하였다. 서로 옆사람의 얼굴을 훑쳐보는 기색들이 이제 또 토론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하는 눈치들이 보였다.

그런 기미를 알아챈 한재영은 사업수첩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곧 회의를 결속할 내용들을 재빨리 음미하고나서 더는 일어서는 사람들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관리위원장동무가 전한바와 같이 오늘 군당확대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농장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동무들이나 우리 일군들이 모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 사업들을 총화하게 되니말입니다.》

한재영이 회의를 결속하려고 서두를 땀는데 뜻밖에도 맨 앞줄복판에서 한 청년이 용수철에 튕기듯 벌떡 일어섰다.

그는 가슴속에서 뚫어번지는 그 어떤 불만같은 것을 단꺼번에 쏟을수 없는듯 선뜻 말을 못하고 입술만 떨었다. 청년은 3작업반 분조장인 김무현이었다. 그는 무척 놀라운듯한 눈길로 한재영의 얼굴을 뜯어보는듯하더니 격하게 부르짖었다.

《아, 비...비서동지, 비서동지까지 어떻게...?!》

흠칫 놀랐던 한재영은 갑자기 눈앞이 아득하였다. 순간에 온몸이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듯 어쩔새없이 달아올랐다. 당황감과 함께 그 어떤 야속스러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순간 《너는 당 비서다. 비판을 받는데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라는 자기 리성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강하게 울렸다. 하여 곧 청년을 너그럽게 마주보려 했으나 달아오른 얼굴만은 식힐길이 없었다.

회의장은 갑자기 숨가쁜 정적속에 잠겼다. 불시에 찾아든 그 정적속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헛기침 소리와 앉아있기가 송구스러운듯 몸들을 공연



히 뒤척이는 소리들이 들렸다. 한재영의 옆에 앉은 최만석관리위원장도 진정을 못하겠는듯 의자를 빼격이었다. 그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보다도 더 몸둘바를 몰라하는것 같았다.

한재영은 순간 리성을 잃을번한 자신을 주체하려고 애써 대범한 표정을 지어보려 했다.

(내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슨 중요한 문제를 놓쳤을가?)

이런 불안스럽고도 두려운 마음이 불쑥 그의 가슴을 다시 놀래웠다.

김무현은 크나큰 실망감이 짙게 어린 목소리를 더듬거리며 웨치듯이 말했다.

《비...비서동지까지 어떻게...! 몇해전에 개간한 샘틀포전은 아직도 정당수확고가 석톤..., 석톤을 못넘어서고있는데도 만족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최만석관리위원장이 《아, 저 동무가...》 하고 부르짖으며 엉거주춤 육중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포전때문에 한재영이 얼마나 애쓰며 고심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그였던것이다.

한재영은 얼른 책상우에서 후들후들 떨고있는 그의 손을 꼭 틀어잡아 내려놓았다. 관리위원장이 자기를 두둔하면 더욱 난처해질 자신의 처지가 얼핏 생각되기도 했지만 샘틀포전문제를 들고 나오자 어떤지 수치와 불안에 떨던 가슴이 곧 그 어떤 배심과 너그러움으로 진정되어갔던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늘 명치끝에 무겁게 매달려 근심스럽기만하던 중요한 문제가 이 시각에야 풀리는듯하여 무현의 말이 멎을가봐 겁나기까지 하였다.

《계속하시오, 무현동무!》

한재영은 귀총을 모으며 기쁨어린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순간 무현은 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주춤 놀라며 곳곳이 굳어졌다. 그는 이렇게 몇순간 멍하니 서있었다.

이윽고 무현은 그 어질고 순박해보이는 큰 눈을 습벽이며 꿈에서라도 깨어난듯 회의장을 둘러보다가 흠칠 몸을 떨었다. 그 어떤 비난과 분격을 담은듯한 못시선들과 함께 몇사람 건너에 앉은 회계원처녀 윤정미의 시선과 마주친것 같았다. 청년을 바라보는 그 처녀의 눈길은 그 누구의 시선과도 비할수 없는 크나큰 실망과 초조 그리고 불안으로 떨고있었던것이다.

무현은 자기가 큰 실책이라든가 저질렀던듯이 머리를 돌리고 썩 피로와하는 눈길로 한재영의 머리아래 가슴 어딘가를 얼핏 쳐다보고는 맥없이 주저 앉아버렸다. 청년은 잃었던 리성을 회복한것이 분명했다.

《아니, 무현동무, 왜 그러니까. 계속하시오.

계속!》

한재영은 너그러운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재촉했다.

《다 말했습니다다.》

무현은 소스라치듯 다시 몸을 떨며 이미 지난간 짧은 순간에 온몸에서 모든 힘을 깡그리 뽑아낸듯 맥없이 머리를 숙여버렸다.

한재영은 샘틀포전문제에 대해서는 어쩐지 더 가혹하게 비판했으면 싶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더 귀중한것을 못다들은듯한 아쉬움을 느꼈으나 청년을 다시 일으켜세울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리며 바랐던것을 얻은것 같이 무현이가 한없이 고맙기까지 했다.

《웁습니다. 무현동문 정말 웁게 말했습니다다.》

한재영의 진심의 목소리였으나 숙어진 청년의 머리는 들릴줄 몰랐다.

...자기 사무실에 들어선 한재영은 줄곧 방안을 거닐며 자신의 지난날을 두고 생각해보았다.

평범한 당원생활, 세포비서로 일할 때에 한재영은 간혹 비판을 받아본 일이 있었다. 비판이란 자기를 위한것이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성근하게 접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인정되고 접수되면서도 또 그래서 고쳐야겠다고 결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피로왔다. 인간적 자존심이 훼손당한듯한 감정이 찾아들면서 오히려 비판한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되었다. 그때마다 자신이 저조하고 부끄럽게 생각되면서 언제면 비판해준 사람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기뻐지라고 바랐었다.

그러나 방금전 김무현의 비판만은 그렇지 않았었다. 처음엔 어쩔수 없이 치받치던 당황감과 야속스러움, 다음엔 그 어떤 안도감이 찾아들면서 너그러워지던 마음! 또 그 다음엔 지금까지 내치 못세길수 없는 모진 자책과 함께 줄곧 가슴을 뛰게 하는 기쁨, 기쁨!

한재영은 각이한 색깔로 복잡하게 갈마드는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기 시작했다.

처음에 느꼈던 당황감과 야속스러움은 당원들 앞에서 당비서로서의 자격지심때문이었을것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감정일것이며 본능에 가까운 감각일것이다. 다음에 찾아든 안도감과 너그러움은 분명 그 자신이 어제아침까지도 살얼음이 끼는 그 논벌에 들어서 벌겉게 얼어드는 종다리를 적시며 샘구멍을 찾아 헤매었다는 자부와(물론 따져놓고보면 그것은 한갓 발뻘에 불과할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그 조건때문이었을것이다.

하다면 지금까지도 날카로운 갈퀴같이 가슴 밑

바닥을 아프게 굽어내리는 모진 자책과 그 아픔의 크기만치 그 가슴에 차오르는 기쁨은 무엇때문이란 말인가?

한재영은 선뜻 그 원인이 이해되지 않았다. 잠시 한자리에 멈춰섰던 그는 다시 방안을 거닐며 중얼거렸다.

(그래, 난 오늘 그의 비판대로 확실히 만족했어, 김무현, 김무현이...)

그는 갑자기 한자리에 굳어져 피지게 입술을 깨물었다.

(아- 나는 지금껏 그런 훌륭한 청년을 모르고 지내오지 않았는가!)

자책은 바로 이것때문이었다. 그 자책이 커갈수록 진정할수 없는 기쁨이 가슴속에서 더욱더 솟구쳐오르기 시작했다.

말은 일이나 수직수직 말없이 하던 너무나 평범하게 보아 왔던 청년이었다. 바로 그 평범한 청년의 어질어 보이는 큰눈에서 황황히 타오르던 거센 불길, 크나큰 믿음을 상실했을 때의 실망에서 오는 불만으로 이성까지 잃고 항변을 터치던 그 목소리...

(아, 그를... 그를 모르고 지내다니...!)

한재영은 자신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피로운 숨을 길게 내뿜으며 창문가에 다가가 마주섰다. 우뚝히 꺼진 눈가와 넓은 미간에 고통스러운 잔주름이 수없이 얹히고 거뭇해진 입술이 꼭 짓씹힌채 있는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꼈다.

그너머로 보이는 푸릿한 달빛이 비낀 마당가운데서는 아름드리 실버들이 일새 떨어진 풍만한 잔가지들을 시름겹게 흐느적이고있었다.

불현듯 아까 자기를 비판하는 무현이를 바라보던 회계원처녀 윤정미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어떤 실망과 초조 그리고 불안으로 떨던 눈길! 비록 순간적으로 비쳐든 모습이지만 무심히 스칠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 확실히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보다 열렬하며 그 어떤 애원적인것 같았다. 원칙과 정의감이 강한데다가 무한히 성실하여 수수한 보통인물보다 무척 아름답고 역세게 보이는, 그래서 누구든 탐나하는 처녀였다. 그런 처녀가 분명 색다른 감정으로 무현이를 대하고있다는 사실은 그 청년의 인간됨을 다시 생각케 하는 충분한 근거로도 되지 않는가!

한순간을 통하여 한 인간의 진모습을 결론하기 힘들지만 또 그 반대로 그 한순간에 그의 가장 깊은 본심이 이해되기도 하는것이다.

나는... 나는 오늘 얼마나 좋은 청년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가!

한재영은 자책의 감정이 굽어내린 가슴속에 뜨거운 피가 다시 고여오르며 온몸에서 역센 힘살

들이 불끈불끈 일어서는것을 느꼈다. 그는 활활 달아오르는 손을 꼭 거머잡았다.

(할수 있다. 할수 있구말구! 그런 당원들이 있는데 무엇인들 못한단말인가!)

갑자기 등뒤에서 인적기가 느껴졌다. 그는 창문가에서 돌아섰다. 언제 들어왔는지 최만석관리위원장이 킁킁한 얼굴로 괴롭게 그를 바라보며 문결에 서있다가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왔다.

《헛참, 안하무인이라우야! 그 포전때문에 비서동무가 얼마나 속태운다는걸 그너석이 모르는 모양이거든.》

최만석은 자신이 모욕당한듯이 본격해하였다. 그는 한재영을 마주보기 저어하며 제먼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책상우에 올려놓은 각지킨 손가락들을 꼬뻐다뻐다하며 눈섭을 치뜨다가 너그러운 리해를 바라는것 같으면서도 쓸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무 생각마우다. 모르고 한 비판같은데...》 그와 마주앉으려던 한재영은 흠칠 놀라며 굳어졌다. 관리위원장이 지금 분명 자기를 위로하려고 찾아왔다는것을 의식했던것이다. 부끄러웠다. 얼굴이 뜨거워났다. 불현듯 자신의 존재가 여지없이 초라해지는것 같았다. 허나 어쩔수 없었다. 하여 그는 조용히 그와 마주앉으며 펍 서글픈 목소리로 물었다.

《참, 관리위원장동무도 지난날 비판을 더러 받아봤지요?》

《받아도 어디 적게 받았다고요.》

최만석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쓸쓸한 빛이 어려 있었다.

《그럴 때면 어떻게든가?》

《뭐 어떻게든가 있습니까.》

최만석은 곧 표정을 바꾸어 사내들인데 무슨 그런 문제를 고깝게 생각하겠느냐는듯한 대범한 빛을 지어보이며 했다.

《자기 잘못을 제때에 일깨워주는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난 지난날 그렇게 되질 않더란말입니다.》

《어쩔수 없지요. 감정이 시키는 노릇이니까.》

한재영이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자 그제야 최만석은 일부러 대범해지려던 표정을 지우고 다시 그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역시 처음엔 수치스럽고 야속하기까지 하더구만,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최만석은 지긋게도 꼬뻐다 뻐다하던 손가락동작을 문득 멈추고 놀라운 눈길로 한재영을 쳐다보았다. 과연 그 말이 진실인가고 묻는듯싶었다.

《내가 지금 피로운것은 왜 무현이와 같은 훌

통한 청년을 지금까지 모르고있었던가 하는 자신 때문입니다. 정말 한심하단말입니다. 내가 일을 쓰게 못했거든!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도 나는 이밤을 편히 잤을게란말입니다. 새 땅을 찾아내자는 종당의 목적은 결코 부침땅면적이나 늘이자는게 아니라 알곡생산을 높이자는데 있지 않습니까.

난 정말 오늘저녁엔 힘이 생깁니다. 신심이 생긴단말입니다.》

의혹의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최만석의 눈에 이번에는 자책의 빛이 어려갔다. 그의 너부죽한 불편과 짙은 눈섭이 푸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갑시다. 밤도 깊어가는데… 오늘저녁에는 정말 흥가분한 마음으로 잠에 끌려들것 같습니다.》

한재영이 방안을 간단히 정돈하며 재촉했다.

밖에 나서자 이밤따라 유난히 밝은 달빛이 누리를 찬연히 비치고있었다. 달빛에 엇비스듬히 옆으로 비낀 두사람의 그림자는 얼마간 차이있는 그들의 키를 엄청나게 길고 짧게 만들었다. 최만석은 그 그림자의 차이를 줄여보려는 때아니게 솟구치는 어린애다운 시기심을 느꼈다. 그는 당 비서를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며 쓸쓸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비록 발걸음은 따라간다고 해도 그의 깊고도 높은 속마음까지는 따라가낼것 같지 못했던것이다.

문득 한재영이 최만석의 양복깃을 가볍게 당기며 그의 발걸음을 제지시켰다. 그리고는 속삭이듯이 조용히 물었다.

《가만- 저게 누구니까?》

그들은 무현이네 집으로 꺾어드는 길어구를 얼마간 앞에 두고 벗어나있었다.

무현의 집마당으로부터 웬 처녀가 외투우의 목깃으로 아무렇게나 둘러감고 드리운 하얀 양털수건 한쪽끝을 입에 물고 머리를 땀군채 걸어나오고있었다. 최만석이 눈을 한껏 쏘프리고 그를 여겨보는데 한재영이 귀속말로 속삭였다.

《분명 정미지요?》

《정미라니요?》

《회계원말입니다. 며칠전 쉬는날에도 무현이와 함께 샘틀포전을 에돌아 매바위쪽으로 가더군요. 그때는 무심히 봤는데 아까 무현동무가 날 비판할 때 얼핏 보느라니 그의 눈길에 이상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범상한 사이 같지 않거든.》

《네?!》

최만석은 금시초문인데다가 늘 자기와 한방에서 일하다싶이하는 회계원처녀에 대해서까지 그토록 모르고 지낸 자신이 어처구니없어졌다.

윤정미가 두사람의 기미를 느꼈는지 머리를 쳐들다가 흠칫 놀라며 굳어졌다. 처녀는 순간에 대

뜸 이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채고 불시에 고여오른 눈물을 달빛에 반짝였다.

《왜, 무슨 일이 있었소?》

한재영이 무엇인가 예감한듯 그에게로 다가서며 걱정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비서동지!》

금시 터져나올듯한 울음을 삼키며 정미가 고개를 떨군채 한쪽옆으로 약간 돌아섰다.

《무슨 일이 있었소?》

《비서동지, 그 동문… 무현동문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목이 메여 울먹이는 처녀의 목소리였다.

《영?...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소?》

한재영이 그의 어깨를 잡아흔든다.

그러자 정미는 더는 참을수 없는듯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지금껏 힘겹게 참아오던 오열을 터치며 목메여 대답했다.

《전... 전 참을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싸웠었습니다. 비서동지가... 비서동지가 그 샘틀포전을 몇번이고 밟으며 샘구멍들을 찾아냈다구말입니다.》

《허허- 그래서... ?》

《자기도 안다는거예요. 그런 비서동지가 회의에서 잠자코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전 정말 그 동무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모르게 있나, 그 포전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겠소. 참, 그래 그 동무가 날 비판한것때문에 고민하진 않습데 ?》

《차라리 그랬으면... 처음에는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아서 죄스럽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 걱정스러웠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가 옳았단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절 막 나무라더군요.》

정미는 다시 머리를 숙였다. 최만석도 회의장에서 비서를 비판하던 그 순간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찡그렸다. 그러나 한재영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음-, 확실히 대가 바르거든, 참 반할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미두 반했을테지.》

《아이참, 비서동지두...》

처녀는 수태를 머금고 한쪽옆으로 머리를 돌렸다. 허나 가볍게 내쉬는 숨결에서는 안도감을 숨기지 못하였다.

《믿음이 가는 동무거든, 참, 정미동무, 우리 함께 그놈의 샘틀포전을 끝장내지요. 무현이한테 무슨 안이 있을수도 있소.》

정미의 얼굴은 금시 확 밝아졌다. 그는 존경어린 눈길로 비서를 바라보며 자신있게 말했다.

《그 동문 지난 초가을부터 그 포전에 암거를 만들기 위한 삭도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저녁에는 기어코 완성하겠다고 하면서…》

《삭도설계라! 그렇지, 암거를 만들자면 술한 막돌이 들어야 할테니까.》

한재영은 흥분에 떠서 펼쳐들었던 왼손바닥을 오른손중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리고는 불빛 밝은 김무현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 집 창가에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분명 도면과 열심히 씨름하고있을 청년의 모습이 어려있었다. 한재영은 호기심을 참을수 없는듯 최만석의 옷깃을 잡아끌었다.

《보고가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조언도 줄걸.》

어쩔수 없는 흥분에 휩싸인듯 한재영은 성큼성큼 무현의 방문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아, 비…비서동지!》

뜻밖에 나타난 한재영을 마주본 무현은 일어설 념도 못하고 입만 벌린채 굳어져버렸다.

《허-, 나때문에 사랑싸움까지 벌렸다면서… 좌우지간 좀 보자구 …음- 막돌은 매바위에서 끌어온단말이지. 그래, 그렇지! 권양기 한대로 랑쪽 삭도선이 오가도록 한다-, 거참, 신통한 생각이군! 관리위원장동무, 이거야 먹여놓은 떡이구만!》

욕심스럽게 도면을 들여다보던 한재영이 한손으로는 무현의 어깨를, 다른손으로는 최만석의 손을 꼭 잡으며 어린애처럼 환성을 올렸다.

《무현이, 피로웠지! 이 비서라는 사람이 일을 쓰게 못해서말이요. 그래서 참을수 없었을게란 말이요. 난 동무가 회의장에서 더 맵짜게 나를 때렸어두 할말이 없소.》

《아, 아닙니다. 비서동지 사실은… 저- 사실은 비서동지가 절 그렇게 비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현이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르며 대답했다.

《내가?…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한재영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다. 최만석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닿지 않아 마주선 두사람의 얼굴만 두릿두릿 쳐다보았다.

《비서동지가 지금까지 그 포전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태우며 고심했습니까. 전… 전 그런 비서동지를 볼 때마다 당원으로서의 저의 의무를 랑심으로 알게 되었을뿐입니다.》

《허참 사람두, 나야… 그럼, 나야 비서가 아니요.》

한재영은 계면쩍어하는 눈길로 최만석을 얼핏 훑쳐보았다. 최만석은 불시에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꺾 막아 가슴이 뻘뻘해남을 느끼었다.

그렇다. 훌륭한 일군만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흠금없는 비판을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참, 이 좋은 밤을 어떻게 이렇게만 보내겠소!》

한재영은 두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나들문옆에 기대서서 어깨를 떨고있는 정미를 발견하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정미는 확실히 눈이 바로배졌거든. 참 무현이, 정미를 옹졸하다고 욕하지 말고 날 욕하라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그런 인간으로 보였을테니 말이요.》

《아, 아닙니다. 비서동지, 제가… 제가 속이 좁았습니다. 전… 전 아무래도 너자가 아닙니까.》

정미가 안타깝게 몸을 흔들자 한재영이 그의 팔을 잡아 방으로 끌어들었다.

《자 됐어, 됐다니까. 어서 들어와서 이 훌륭한 동무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라우. 즐거운 이야기를 말이요.》

…관리위원장동무, 우린 갑시다. 이 동무들이 우릴 빼놓지야 않겠지요. 참았다가 그때 가서 국수나 푸짐히 먹어줍시다. 허허허.》

한재영은 호탕한 웃음을 마음껏 터치며 방문을 나섰다. 그러나 어느새 정미가 목에 드리운 수건끝으로 입앞을 가리우고 그들옆으로 줄달음을 놓았다. 저앞으로 사라지는 정미를 바라보며 그는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허참, 랑패로군! 이 좋은 밤을 아쉽게 보내다니.》

한재영은 뚫어넘치는 기쁨을 참을길 없어 무엇인가 끝없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동안 큰길까지 말없이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듯하더니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달빛 넘치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래, 아무렴 하구말구.》 하고 신심에 넘쳐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최만석에게로 돌아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히 욕심나는 청년이거든. 무현동문 분조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직무라도 능히 책임적으로 해낼겁니다.》

《네?!》

최만석은 놀라면서도 격정에 목메었다.

《왜, 못해낼것 같습니까?》

《아, 아닙니다. 난 그저 오늘밤엔 놀랍기만 하구 … 그리구 지금은 비서동무처럼 기쁘기만 하다니까.》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른 최만석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다.

《참, 샘틀포전은 이제 특별히 무현동무에게

말길 필요가 없겠구만, 방도가 확고히 섰으니 그 누가 말든 틀림없지 않겠소.》

《네, 하긴 그렇구만!》

한재영의 포착과 사고방식이야말로 얼마나 높고 정확한것인가. 더우기 그 술한 사람들앞에서 리유에도 당치 않게 당일군으로서의 존엄이 여지없이 훼손당할수 있었던 그 쓰리고 피로왔을 감정속에서도 새롭게 성장한 인간들을 남다르게 찾아보고 그것으로 하여 이처럼 흥분하고 기뻐하는

데는 실로 놀라고 감격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훌륭한 일꾼밑에서 이제 무현이와 같은 당원들이 수없이 자라날것이라 굳게 믿어질 때 최만석의 가슴에도 새로운 기쁨이 끝없이 물결쳐왔다. 그는 새삼스런 눈길로 존경과 부러움에 차서 한재영을 바라보다가 깊어가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맑고 푸른 달빛이 어린 깨끗한 대기를 마음껏 들이켰다.

아-얼마나 좋은가, 이런 밤은!

## 철산봉에 산다

주광남

산에 들에 한창 꽃들이 피어날 때  
허영계 눈에 덮이는 철산봉  
여기에 일터를 정하고 산다  
무산의 우리 광부들

나서자란 고향  
변화한 도시태생 제대병사도  
풍년벌을 떠나온 너인도  
쇠돌에 후더운 정을 부으며

혈치 않더라  
한여름엔 거뭇한 쇠돌밭이  
피약벌에 확확 단길 뿔어올리고  
겨울이면 눈보라 태질하는곳  
여기에 삶의 뿌리 내리기가

한치 암반을 더 뚫자고  
숨장감이 짹짹 얼어붙는 추위속에  
착정기운전대를 다투어잡던 밤  
그런 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우리 어찌 웃으며 이 산정을 오르랴

쏟아지는 장마비를 함께 맞으며  
너인들 운광기를 다듬어주고  
사나이들 대형차를 쉬임없이 몰아가던  
그런 나날에 깊어졌노라  
안해와 남편의 살뜰한 정도  
철산봉을 함께 지켜가는 그 마음도

뜨겁게 새겨졌노라, 그런 나날에  
이 높은 산정에 몸소 오르시여  
친애하는 그이께서 하신 말씀  
여기가 나라의 중요전선이라고  
경제건설도 국방건설도  
무산의 광부들에게 크게 달려있다고...

아, 날마다 오가던 채광길이  
우리 가슴에 조국을  
얼마나 가까이 잇대여주었던가  
무심히 밟고 지난 쇠돌 하나하나  
얼마나 더 소중해지고  
기계소린 또 얼마나 정다워졌던가

북변에도 한끝에 철산은 솟았건만  
예술인들 기자들 끝없이 찾아오고  
북과 소고 두드리며 아이들도 오르고  
온 나라가 외우는 무산광부 그 이름  
평범하던 사람들도 영웅으로 빛나거니

아, 철산봉  
당의 은정 뜨거이 깃들어  
삶의 보람 넘치는 정다운 일터  
쇠돌로 우리 당을 받들며  
혁명하는 자부심 가슴 벅차게 안겨주는  
투쟁의 요람, 긍지의 봉우리!

여름이면 해별이 가장 뜨겁고  
겨울이면 강추위가 가장 사나운곳  
안일과 명예를 꿈꾸는 마음으론  
신뜻 오를수 없는 산정  
여기서 우리 산다  
웃으며 들끓으며

무산광부 !  
당이 불러주고 온 나라가 외우는 그 이름  
제 한 이름보다 소중히 간직하고  
늘어나는 쇠돌량  
거기서 삶의 보람을 누리며  
오, 무산의 광부들은 철산봉에 산다

시조

## 나는 백양나무아래서 자랐다

백의선

### 잊을수 없는 세월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세월  
그때 나는 열살소년이였고  
지금은 마흔나이 넘어섰건만  
시련의 그 세월은  
마음속에 그냥 머물러있어...

너무도 참혹한 폐허의 거리엔  
삽 한자루 못 한개가 그리웠다  
나는 학교에서  
꽂다리연필까지 실로 동여 썼고  
무너진 담벽밑 성한 벽돌 한장도  
무명책보를 풀어 소중히 싸들줄 알았다

한줌의 세멘르도  
한푼의 돈도  
쪼개쓰던 조국의 시련을  
내 다는 이해할수 없었건만  
그날에 나는 알았다  
전쟁을 이기는 싸움처럼  
빈터우에서 일어서는 싸움  
결코 헛치 않음을

3년을 포화속에 잠 못자며 시달렸던 사람들  
맨주먹을 가지고  
또다시 쪽잠자며 건설하며

간고한 그 년대의 언덕을 넘어섰거니

아, 오늘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날의 자취 찾아볼수 없고  
조국은 풍요해져  
바라던 행복은 빨리도 왔구나

폐허를 가져내며  
목고채에 등살을 굳히던  
시련의 그 년대들이 아니냐  
우리 사는 좋은 세월  
후손들의 밝은 앞날  
억세게 고여준 고임돌이

고임돌이 없어지면 성벽도 무너지듯  
아, 우리 마음에 그 세월 없어지면  
오늘도 잃고  
래일도 잃거니

자랑스럽게 안고살자  
빈터우에서 일어서며  
참고 이긴 고난도 피로움도  
폐허속의 메질소리, 무너진 로벽가의 쪽잠도...  
오늘이 더 행복하기 위하여  
래일이 더 아름답기 위하여

### 흰눈

가볍지 않아라  
강선의 흰눈은  
그 어느때 내려도  
강선의 눈은  
12월의 흰눈

불을 다스려 쇠를 녹이는  
용해공들의 불가슴에  
때없이 무거이  
쌓이는 흰눈

강철로 수령님을

웅위하는 용해공들이  
가벼운 그 흰눈은  
막아드리지 못하였던가

허리를 못편 조국을  
한품에 안으시고  
아버이수령님  
저 구내길에서 맞으시던  
그날의 흰눈

이 강산에 흰눈이  
아무리 많이 내렸단들

수령님의 가슴속 그 무거운 심려처럼  
쌓이고 쌓였으랴

일만톤이라 천만톤이라!  
그날부터 조국에 바친 강철은

마음속에 가버워도  
가벼운 흰눈은  
오늘도 무겁게  
내리고  
내리어 ...

## 나는 지금도 새벽잠이 없네

나는 지금도 새벽잠이 없어  
아직은 나이트가 아니리

그 세월엔 아이들도 새벽잠이 없었다  
어머니와 마주앉고싶어  
서둘러 잠에서 깨어나면  
건설장으로 나간 어머니의 잠자리는 비였고  
어머니의 따뜻한 정은  
가마속의 잡곡밥에 스며있었다

어머니를 대신해  
쫓고 닦고 거두고...  
가창대를 무어  
거리를 한바퀴 돌고서야  
우리는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된장에 찬밥을 물에 말아먹어도

우리는 그것을 달게 넘겼다  
전쟁의 상처 그리도 아팠건만  
우리에게 풍성한 래일을 주려  
허리띠를 조이고 낮과 밤을 모르던  
조국의 그 마음 참말로 고마웠기에

굴함없이 앞만 바라보며  
조국이 힘겨운 길 서둘러 갈 때  
아무리 어렵든 아무리 피롭든  
우리도 함께 서둘러 살던  
그 마음이 한생 굳어진것 아니냐  
지금도 새벽잠이 없는것은...

그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시대가 우리 세대에게 어릴적부터 배워준  
참된 생활철리의 하나였다

## 내가 불을 사랑한것은...

내가 불을 사랑한것은  
너선생의 손잡고 용해장에 갔던 날  
무쇠도 녹이는 거창한 그 불이  
어린 내 마음 사로잡던 그때부터인가

내고장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그 불노을아래에선  
달없는 밤에도 술래잡기 즐거웠고  
어머니의 옛말속 신비로운 모든것을  
나는 그 노을에 신기루처럼 그려보았나니  
그때부터인가, 내가 불을 사랑한것은

불은 어린날의 아름다움이었고 꿈이었노라  
허나 내 진정으로 불을 사랑한것은  
이고장에 불이 꺼져버렸을 때  
재가루에 하늘도 흐리고  
전기로의 거센 숨결이 멎었던 전후의 그날

그 불아래 기쁨겹친 소꿉놀이도  
저녁거리에 차넘치던  
외태머리 누나들의 웃음소리도  
훈훈한 바람결에 실려  
물씬 풍겨오던 쇠내도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음을

내 새삼스럽게 놀라며 깨우쳤을 때

우리의 그 불이 없이는  
내 정들고 소중한 모든것이  
이 땅우에 다시 생겨날수 없음을  
내 입술을 깨물며 절감하던 그날에  
불이여, 너를 사랑해  
내 심장은 불타올랐거니

눈물 거두고 나는 보았노라  
불꺼진 그자리에서 더 뜨거운 불을  
허리띠를 조이고  
로벅에 굳어진 쇠덩이를 꺼내던 사람들  
황황 타고르던 그 심장들이  
이 철의 도시의 산 불이 아니었던가

하여 나는 묵묵히 새기며 참았더라  
새벽부터 새벽까지 복구장에 있던 어머니  
때로 숙제공부를 보아주지 못해도  
재무지를 파헤치고 로벅돌을 모으느라  
내 작은 손에 물질이 부풀어올라도  
불을 지피는 일을 나도 보태고싶었기에

불이 귀중함을 그토록 간절히 새기며

나는 이 철의 도시를 알고  
우리고장의 좋은 사람들을 알고  
조국을 알았거니

고향도시에 꽃향기 싱싱하던 봄도 아니더라  
불노을 곁에 비낀 창가에서도 아니더라

행복위해 미래위해  
제 한몸 바치며 역경의 고비 맞받아나가던  
력사가 아로새긴 준엄한 그 세월이었더라  
내가 불을 사랑한것은  
조국에 바치는 참사랑이 시작된것은

## 봄꽃

한밤 로복구장에  
휴식구령 내리면  
한톤짜리 폭탄깎지들  
썩썩 목고로 들어내던 남정들도  
온몸이 초대처럼 녹아내렸다

-세상에 제일 무거운건  
눈에 실린 줄음이라니...  
말도 채 못마치고  
스르르 눈을 감던 달콤한 그 시간

이런 때  
여기저기서  
가볍게 자리털고 일어서던 너인들  
우등불에 더운물도 끓이고  
남정들의 작업복단추도 달고...

자질구레한 살림살이  
어디서나 너인들의 손을 기다렸거니  
사나이들 힘과 마음 가닿지 못하는곳에서  
신비한 힘의 샘줄기를 뿜으며  
조용히 미소짓던 우리고장 너인들

그들에게는 따로 없었다  
제집 일과 제강소 일  
하나밖에 없는 숨 누빈 포단을  
얼어드는 콩크리트 기초에 덮었고  
단벌이던 무명실썰타마저 풀어  
용해공들의 장갑을 뗐다

고된 로력에도  
금지는 얼마나 가슴에 넘쳤던가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또 누이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정들을 섬기고  
그리고 시련을 겪는 나라앞에  
공민의 의무를 다하며

강쇠의 굳고 굳셈이  
너인들의 뼈심에 깃들었던것인가  
너인들의 불굴한 강의성이  
강쇠에 꼭 스민것인가

조국이 쇠물을 그리워할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쇠물이였고  
이 하늘에 철의 노을 없어졌을 때  
그 미소가 그대로 쇠물빛 꽃노을이었거니

치마허리에 수건을 탄피마냥 두르고 살며  
강철을 낳은 강철의 너인들  
힘겨웠으나 보람찼던 그 년대의 언덕우에  
언제나 싱싱히 피어웃던 철의 도시의 봄꽃이여

그 모습 화려하지는 않아도  
어려운 때 시대앞에 더 열렬히 불탄  
그 마음때문이 아니냐  
이고장이 오늘 그리도 황홀히 아름다운것이  
조국이 이고장을 더 사랑하는것이

## 나는 백양나무아래서 자랐다

사랑스런 나무야 백양나무야  
나는 네밑에서 자라던 까까머리소년  
이제는 수염자욱 꺼밋한 사나이  
허나 아이적 그날처럼 나는 서있노라  
너의 설레임에 조용히 귀기울이며

저 하늘의 해빛이 너를 자래우고  
이 땅속의 샘줄기로 푸르려졌다면  
너와 나 이처럼 깊은 인연 맺었으랴  
세상에 긍지높은 이 철의 도시가  
너를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랴

나에게는 너의 설레임이 언제나 뜨겁구나

너의 여린 잎새우에  
재먼지 숨막힐듯 덧쌓이고  
난관앞에 거칠어진 용해공들의 숨결이  
축축히 스미던 때  
아, 어버이수령님 맞이했던 그 감격처럼

우리 수령님  
상처입은 네 줄기를 쓰다듬으시며  
이 땅우에 철의 숲을 불려주실 때  
재가루 털며 너의 첫 설레임은 시작되었고  
자력갱생의 쇠바람을 온 나라에 일으키며  
이 철의 도시의 새 행군은 시작되었거니



나는 이고장의 토배기  
그날부터 나예겐  
하늘도 네우에 불노을 비낀 하늘이 더 좋고  
바람도 네가 일으키는 쇠바람이 더 좋더라  
그날부터 너와 나는 떼지 못할 다정한 사이  
우린 서로 온기가 흐르는것 같아라

쪽잠마저 잇고 쇠물을 끓이던  
그 심장들이 내어뿜는 화광을 받으며  
너의 잎새 하나 둘 푸르려질 때  
파철실은 손달구지에 책가방을 놓고  
용해장에 분주히도 다니던 나  
그때부터 내 심잡에는 쇠물같은 피방울이  
고였기에

우린 서로 혈맥이 이어진것 같아라  
무쇠지붕을 채 없지 못한채  
강철기둥들을 다듬어내던 그 의지를  
년륜에 새기며 네 줄기가 굽어질 때  
땀흘리는 압연공들 찾아  
맑은 샘물 길어들고 오가던 나  
그때부터 내 몸에는 강철의 뼈가 자랐기에

거창하여라, 장엄하여라, 너의 설레임  
어릴적 불노을에 그려본 전설의 룡마가 아닌  
강선의 불노을속에 태어난 천리마

그 나래의 거센 퍼덕임으로  
이 땅을 행복의 웃음으로 가득 채운  
자력갱생의 불바람  
영원한 사랑의 훈향으로

네가 일으킨 쇠바람이  
내 살에 스미고 피에 스미여  
나는 오늘도  
잠자면 네 설레임 자장가로 안고 자고  
잠깨면 네 설레임 조국의 정다운 부름처럼  
듣노라

사랑하는 나무야 백양나무야  
너 뿌리를 들고 이고장을 떠날수 없듯이  
나는 여기에 삶의 뿌리를 억세게 박은 사람  
내 한생이 다할 때까지  
내 심장에는 쇠물이 끓고  
내 숨결에는 너의 설레임이 가득차리니

그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나  
나는 내 삶과 계급의 근본을  
너와 더불어 떼뗄히 자랑하노라

아, 나는 백양나무아래서 자랐다

##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

한길조

애젊은 나이에 총메고  
전선으로 달려갔던  
배나무집 장손이 몇십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가

불타던 마을을 뒤에 두고  
재넘어 떠나던 그날  
꽃 한송이 달아준 그 가슴에  
훈장메달 번쩍이며 돌아오누나

청춘을 다 보내고 돌아오는 아들  
그리고 까맣던 곱슬머리엔  
흰서리가 눈에 띄게 내렸거니  
조국위해 싸운 전사의 량심이  
참으로 깨끗이 비껴있는듯

총을 잡고 삼십여년  
길이면 몇만리를 걸었고  
산이면 몇백천을 넘었더냐  
조국앞에 세운 군공은 속깊이 안고  
배낭 하나 메고서 행군길가듯  
고향길에 들어선 제대군관

그대가 그 나날에 피를 아끼고  
청춘을 아꼈더라면 이리도 몇뿔이  
고향땅에 들어설수 있으랴  
온 마을이 이처럼  
두팔가득 안아줄수 있으랴

락동강 불모래우에서도  
백병전의 전호속에서도  
쪽잠결에도 그리며 싸운 고향  
이 고향을 지켜 조국을 지켜  
목숨 걸고 싸운 전사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들처럼  
고향땅은 두팔 벌려 안는다  
그대를 위해 오막살이 서있던 옛집터에  
아담한 문화주택의 창문은 밝게 열리고  
그러안고싶은 풍요한 대지가 반기누나

어서 안기라  
후회없는 전사의 삶으로 하여  
떠날 때처럼 착실한 배나무집 장손으로  
잊지 않고 기억해준 그 이름으로  
고향은 장히도 마중해주는구나

## 조국의 숲

정해경

무릇 사람들은 숲의 겨울이라면 눈보라와 추위를 생각할것이고 숲의 여름을 생각하면 청신함과 무성함을 그려보게 될것이다.

이런 산림속의 겨울과 여름중의 어느 한 계절도 깊이 느껴보지 못한 나로서 소대한가리에 관모봉 밀림속에 위치한 백수림산작업소를 찾아 떠나고보니 마음의 화폭속에 이런저런 겨울의 환영들이 떠올랐다.

흰눈을 이영처럼 수북히 이고 서있는 태고연한 숲, 준마의 흰갈기와도 같은 눈보라, 수목들을 엮어매놓는 동토지대와도 같은 추위, 울타리없는 공장이라 불리우는 수림의 거대한 자연재부, 온갖 짐승들과 산새들이 거주지를 정하고 동화세계와도 같은 신기한 생활을 펼쳐갈 풍만한 숲의 품...

아니나다를가 겨울의 숲은 숲에 나무 한대 보태지 못한 외지에서 오는 낯설은 손님에게 홀홀 자기 품을 열지 않으려는듯 눈의 파도를 휘뿌렸고 무수한 얼음바늘과도 같은 차디찬 랭기로 코허리를 찡하게 찌르며 전신을 쭈시고들었다.

이것들은 숲의 장엄함과 거창함의 시위런듯싶기도 했고 숲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중편보는 숲의 무슨 검열갈기도 했다.

하여간 좋았다. 아름답드리거목들이 바람빠질 째없이 들어찬 숲을 보기는 처음인지라 어딜 보나 마음이 넓어지고 감정이 숭고해지는것이였다.

붉고 싱싱한 몸뚱이를 뽐내듯이 눈뿌리가 아리도록 아찔하게 뻗어오른 이깔나무군락, 푸른 천정을 엮은듯 서로 가지들을 엮고 서있는 분비나무, 전나무들의 근엄한 자태, 가지우에 조용히 앉아 숲세계의 온갖 신비로운 비밀을 지켜주는 듯한 눈무지, 가지밑은 푸르고 가지우는 흰 숲의 일경이란 여름과 겨울이 서로 사이좋게 함께 지내는듯 싶기도 했다.

침묵을 선언받은듯 승엄한 기상에 싸여있는 숲은 적막속에 묻힌듯 고요하다가도 눈보라가 흰깃을 퍼들고 침습할 때면 온 숲이 목소리를 합쳐 쭈아쭈아 항거하군했다.

(아, 겨울잠을 자는구나! )

나는 문득 인민학교때 담임선생한테 들었던 이

이야기를 상기하였다. 그리고는 무슨 새로운 철이라도 깨달은듯 무등 기쁨에 휩싸였다.

나는 저도 모르는사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조를 때면 《옛날옛적 깊고깊은 산중에서...》 하고 서두를 떼던 숲세계에 끌려 **아이**에 잠기고말았다.

겨울잠을 자는 나무들은 무엇을 할것인가?

사람은 잠을 자면 대체로 꿈을 꾀다. 꿈을 꾀대야 그것은 오래전에 흘러간 인기없는 영화의 화면처럼 아리송한것이 일순간 뇌리에 스칠뿐 현실생활속에 남기는것이 크게 없다.

그러면 《겨울잠》을 자는 나무도 남기는것이 없을것인가? 년륜! 나는 문득 이렇게 웨쳤다. 리과교과서에서 보았던 나무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한토막 들추어내었던것이다.

나무들은 여름에는 무른살로 자기 몸뚱이를 살찌우고 겨울에는 한해자란 무른살을 웅위하듯 생장이 억제되면서 생긴 굳은살로 돌기를 친다. 이것을 년륜이라고 부르는것이다.

나는 여직 년륜이란 리치를 나무에 새겨지는 이 무른돌기와 굳은돌기 하나만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백수림산작업소에 도착하여 이곳 작업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한 벌목공 (그의 이름은 함영식이고 나이는 선일곱살이다)의 집에 들러 이 집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모를 보고는 년륜이란 단어와 조국이란 이름을 련결시켜보게 되었다.

한것은 어린 나무모를 키우는 그 마음에서 숲을 가꾸는 애국심을 보았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림을 애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애국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문법상으로 보면 조국과 년륜은 둘다 명사로서 자기의 고유한 뜻을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두개의 단어를 합쳐 그 어떤 한가지 의미를 찾아내고싶었다.

그 리유인즉 이러하다.

벌목공의 집에 가보니 판자로 짠 커다란 화분

통에 어린 나무모를 심어놓았던것이다.

《화분의 꽃이 제아무리 곱고 아름답고 신선하다 해도 이 나무모를 심어놓고 키우는 재미만이야 하겠습니까. 저것들을 겨우내 포근히 잠재워 숲에 떠올기면 봄을 앞당겨 잎을 피우며 무럭무럭 자란답니다. 그래서 벌목공들은 겨울이 오면 조림사업소에 찾아가 다음해 봄에 심을 나무모들을 미리 몇대씩 받아다 집에서 따뜻이 겨울을 내우며 정을 붙인답니다.》

벌목공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년륜이 가지는 새로운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여름에 자라는 무른살과 겨울에 생장을 억제당하여 생기는 굳은돌기를 년륜이라 부른다면 벌목공의 집에서 품에 안긴 아기처럼 단잠에 들어 겨울을 나는 나무모에는 어떤 년륜이 새겨질것인가!

나는 생각한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유년시절이 있게 마련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를 추울세라 더울세라 품에 안아 키워준 어머니의 살뜰한 정을 잊지 못하는것이다.

생명을 가진 나무의 생장도 이와 다를바 있겠는가! 자연속에서 겨울을 나던 어린 나무모들이 벌목공의 집에서 겨울을 나고있으니 자연히 몸통이에 여름과 겨울을 새기던 년륜이 애들의 젖살이 오르듯 무른살 하나만으로 어린몸을 살찌울것이 아닌가.

《저것들이 우리가 베어낸 자리에 심을 나무모이고 우리 자식들이 물려받을 후계림이 된다고 생각하며 바라보노라면 짹짹 단잠에 든 숨결소리가 들리는듯하지요. 이렇게 따뜻이 겨울잠을 자고나면 년륜이 뭉어지고 나무살이 더 두텁게 올라 자연속에서 자란 나무들보다 성장률이 빠르답니다.》

벌목공들의 이런 마음에 싸여 어린 나무들은 잡아 흔들어도 모르게 굳잠을 자고있었다. 마치 이 한겨울에 벌써 봄별을 물고 노그라지듯이...

나의 가슴속으로 뜨겁고 그윽한것이 해염 쳐들었다.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벌목공의 집 창문까지 다가선 무성한 숲으로 달렸다. 창밖의 숲, 집안의 어린 나무! 나는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뇌이였다. 조국과 숲, 숲과 년륜! 만년대계의 숲이 벌목공의 집에서 시작되고있었다.

벌목공이라면 사람들은 흔히 다 자란 나무를 베어내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왔다. 벌목공들 자신

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때 벌목공들은 하늘을 치받든 기둥처럼 튼튼하고 장대한 나무들을 베어넘기는것을 자기들의 임무로 알았고 나무가 넘어지며 땅우에 태질하는 순간을 벌목공들의 제일가는 재미로 알았다.

그러나 로동당시대에 와서 벌목공들의 이전 관념은 바뀌어졌다.

조국에 목재며 각종 원료며 귀중한 약재를 제공해주고 지어 수많은 짐승들을 풀어주고 먹여주고 잠재워주는 숲이다. 또한 숲은 사람들이 다자는 밤에도 쉬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부지런히 새 공기를 생산해주는 자연속의 산소공장이 아닌가.

이제 50년, 100년세월이 흘러 베어낸 자리우에 또다시 무성한 수목들이 서게 될것이다!

조국의 만년대계를 이룩하는 당의 뜻을 가슴에 지닌 벌목공들은 자기들의 임무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오늘에 베어낸 자리를 비워두고 **후대들에게** 숲을 넘겨준다면 그리고 숲을 잘 가꾸고 보호하지 못하여 성장에 지장을 준다면 어찌 조국앞에 오늘에 산 벌목공이라 할수 있으랴! 이것이 벌목공의 심장에 넘치는 진심의 소리이다.

이제 벌목공들은 집에서 키운 이 어린나무들을 저 숲으로 떠올길것이다.

결국 우리 시대의 벌목공들은 나무를 베어내는 사람이라기보다 숲을 가꾸는 사람들이다. 《한대를 베면 열대를 심자》 이것은 벌목공들의 심정이다.

이것이 조국에 통나무를 섬겨가는 사람들, 조국의 숲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겨울에 생장을 억제당하여 나무들이 꼭 무른돌기와 굳은돌기를 새기는것은 어쩔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였다.

그러나 이제 후대들이 먼 후날에 벌목공의 집에서 겨울을 나 산으로 이사온 나무들을 베어내게 될 때 그 밑둥에 새겨진 년륜을 보며 과연 자연의 법칙으로만 생각할것인가!

아니다. 거목들의 한가운데 새겨진 흰 속살을 보며 숲을 가꾼 우리 시대 인간들의 마음을 볼것이고 숲을 가꾸며 조국의 만년대계를 생각한 푸른 꿈을 볼것이다. 그래서 숲의 미소는 푸른지도 모른다.

천만년 자연의 변화에 맡겨두었던 조국의 숲은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개조되어가고있었다. 숲을 가꾸어가는 벌목공들의 마음에 받들려...

## 경기

김정길

칼벼랑앞에 줄느린히 선 착암수들사이에서 어깨폭이 좁고 체소한 오봉수를 띠여보는 최홍철중대장의 마음은 여느때없이 무거웠다. 중대에 온 지 겨우 석달밖에 안된 오봉수가 착암경기에서 려단적으로뿐아니라 련합적으로도 《호랑이중대》로 소문이 프르르하게 난 자기네 중대의 명예를 꽤 지켜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였다.

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오봉수옆에 선 다른 중대의 착암수들에게로 옮겨갔다. 그들은 체통이 굵직굵직한게 결보기에도 믿음이 가고 끝끝해보였다.

(봉수대신에 다부지고 담찬 명현이가 나왔더라도 문제 없을건데. 하필이면 려단장이 우리 중대에 내려와 오봉수를 꼭 짚을진 뭐람.)

그는 매사에 아량이 있고 원칙이 강하며 내밀성이 있는 려단장이 고깝기까지 했다.

바로 칼벼랑으로 떠나오기전이였다. 파아란 풀잎에 방울방울 맺힌 이슬을 걸어차며 중대로 내려온 려단장은 중대병실앞마당에 청년돌격대원들을 모여놓고 오늘 경기에 누가 나가겠는가고 물었다. 모두 끝먹은 병어리마냥 잠잠했다. 려단에서 조직한 경기에 각 중대에서 두개조씩 나가는 조건에서 중대의 명예가 좌우되기때문이었다.

《중대를 대표해서 나갈 동무들이 없소? 다른 중대에 질가봐 벌써부터 벌벌 떠는구만. 소문난 〈호랑이중대〉 돌격대원들답지 않아.》

려단장이 싱글싱글 웃으며 돌격대원들을 시까슬렸다. 최홍철이 그제 무슨 가당치 않는 말이나는듯 려단장을 흘끔 보고나서 중대에서 어금이같이 여기는 강태식에게 슬쩍 눈짓을 했다. 그러자 키가 크고 어깨가 짙 버그러진 강태식이 선뜻 입을 열었다.

《려단장동지, 저의 조가 나가겠습니다.》

《음, 태식동무네 조라면 중대의 명예에 손색이 없을거요. 신문에까지 이름이 짜하게 난 태식동무니까. 그럼 다른 한조는 내가 짚겠소. 원래 경기규정에도 두 조중 한개조는 려단에서 뽑기로 했으니까.》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체격이 좋은 려단장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구리빛 얼굴의 림름한 청년돌격

대원들을 빙 둘러보다가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띠우며 대렬뒤줄 중간쯤에 선 오봉수와 얼굴이 가름하고 해말쑥하게 생긴 스물두살의 처녀 박원향을 가리켰다.

《아니, 봉수동무네조를?...》

돌격대원들은 술렁거렸다.

《저... 려단장동지! ...》

최홍철이 급기야 자라목이 된 오봉수를 일별하고나서 무슨 말인가 하려는데 려단장이 손을 들어 가볍게 제지했다.

《가만, 본인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봉수동무, 어떻소?》

오봉수는 움츠렸던 목을 쳐들었다. 눈이 정기를 담고 반짝였다. 하지만 최홍철과 시선이 부딪치자 말더듬이처럼 떠들떠들 대답했다.

《칼벼랑이 ... 꼭... 적당하긴...한데...》

《그럼 됐소. 그걸 해보오. 그걸!》

려단장의 말에 최홍철은 가슴이 띵떵했다.

(아니, 〈그걸〉 해보라니? 혹시 경기에 나가서 칼벼랑의 돌을 시험해보라는것이냐 아닌가.)

하지만 그는 곧 머리를 저었다. 며칠전 최홍철은 오봉수와 원향이가 하루일이 끝난후면 돌가루가 어떻소 암질이 어떻소 하면서 돌아치기에 지금 방법대로 착암해도 중대가 단연 선코에 섰는데 무슨 허튼데 신경을 쓰는가고 되게 꾸중했었다.

(오봉수가 나한테 된옥을 먹은 뒤에 려단장에 게 까지 제기했었는가?)

그렇지만 아무리 분별이 없는 오봉수라 할지라도 중대의 명예를 걸고 참가하는 려단적인 경기장을 시험장으로 할수는 없을것이였다.

(무슨 다른거겠지. 그럼 〈그거〉라는것은 도대체 뭘가?)

느닷없이 달리던 최홍철의 생각은 려단장이 하는 청꿍은 말소리에 몽청 끊어졌다.

《동무들, 오늘 경기는 려단이 말은 칠길구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곳에서 진행하게 되오. 그러니만큼 착암수동무들은 그 어느때보다 더 열성을 내야겠소. 경기시간은 12 시까지요. 11 시까지는 발파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진해야 하오. 그다

음은 5 분간 발파. 심사위원은 나와 참모장 그리고 각 중대장동무들이요. 그럼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칼벼랑의 여기저기에서 착암기들이 거끔 내기로 《따르릉, 따르릉》 귀따갑게 울어댔다.

그에 어울려 러단취주악대가 힘있는 곡을 불어댔다.

최홍철은 손에 땀을 쥐고 경기참가자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그럴사해서 그런지 강태식이나 다른 중대의 조들은 암벽을 푹푹 뚫고들어가는데 오봉수네 조는 앓은방아만 짙는것 같았다.

(힘을 내라구, 힘을! 일단 경기에 나갔으면 중대의 명예를 지켜야지.)

주먹을 쥐었다 폈다하며 초조해하던 최홍철은 저도 모르게 눈을 둥그렇게 떴다. 오봉수가 착암기를 칼벼랑에서 떼고있기때문이었다.

(고장인가? 아니면? ...)

그런데 오봉수는 조수인 원향이가 구멍안에서 꺼낸 돌가루를 손바닥에 들고 유심히 보기도 하고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 좁은 구멍안을 기웃이 들여다보기도 하는것이였다.

(제길, 빨리 착암이나 할게지. 저게 무슨 일이야. )

최홍철은 옆에 선 이웃 중대의 중대장이 권하는 담배에 불을 달아 몇모금 들입다 빨고는 책집어 던졌다. 그리고는 눈을 치뜨고서 빨리 뚫으라고 벼락같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목이 터지게 웨친 소리는 오봉수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착암기 소리와 취주악대소리에 녹아들고말았다.

최홍철은 눈에서 불이 일었다. 무슨 일에서든 남에게 지는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그였다. 북부철길건설청년돌격대에 나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호랑이중대》로 이름을 떨친 자기 중대의 명예를 오봉수가 다 말아먹는다고 생각하니 억이 막혔다. 그럴수록 러단장과 단단히 《사업》하여 오봉수네 조를 다른 조와 바꾸지 못한 자신의 처사가 못내 후회되였다. 지난 겨울 산에서 통나무를 끌어내릴 때 다른 중대에서는 한대씩, 극상해서 두대씩 운반하였는데 자기네 중대에서는 발썰매를 통나무앞에 달고 다섯대씩, 여섯대씩 묶어서 끌어내려 러단장의 감사를 받았었다. 그 이후에도 러단장은 어려운 일이 나설 때면 늘 《호랑이중대》를 찾곤하지 않았던가. 주먹이 근질거리고 마음이 안달아난 최홍철은 당장 칼벼랑앞으로 달려가 체소한 오봉수와 곱살하게 생긴 박원향을 와락 밀어던지고 착암기를 닥침 빼앗아 들고 싶었다.

오봉수도 아마 힘에 겨운 모양이였다. 그의 굵

지 않은 목덜미로는 팔죽땀이 줄줄 흘러내리였다.

곰살긋은 박원향이가 작업복웃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더니 무어라고 소곤소곤 정답게 귀속말을 하며 오봉수의 목덜미땀을 재치있게 씻어 준다.

(땀을 씻어주긴 제길! 그까짓거 그냥 놔둘게지. 원향이 마음은 너무 비단결같다니까.)

땀이 잔뜩 뒤틀리고 입이 소태처럼 쓰거워난 최홍철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저 오봉수때문에 오늘 우리 중대의 명예가 여지없이 납작해지는구나.)

그는 낮이 수수떡마냥 시뻘개가지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후-우 내불었다. 그리고는 폭약이 발파구멍에 제대로 장진이 되였는가를 검열하러 돌아보는 중대장들의 뒤를 머리를 짓속이고서 터벅터벅 따라 걸었다. 그러던 그는 《아니, 이건 또 뭐야?》하는 앞선 중대장의 놀란 말에 눈을 들었다. 앞에는 오봉수가 쑥스러운듯 두손을 맞잡고 엉거주춤 서있었다. 벼랑에는 다섯구멍이 아니라

세구멍이 뚫려있었는데 장진은 빈틈없이 되어있었다. 칼벼랑과 오봉수를 한참이나 번갈아보던 최홍철은 혀를 차며 짙 눈을 흘겼다. 그러자 오봉수는 얼굴이 불깃해서 더수기로 손을 울리며 싱긋 웃는것이였다.

(밟다니까 깨요한다더니...)

최홍철은 얼굴이 시꺼멓게 되어 한숨을 다시 내쉬었다.

잠시후 대피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해빛이 다양하게 내려쬐이는 먼 하늘가로 랑랑히 울려퍼지고 푸른물 굽이치는 압록강반을 뒤흔들면서 발파가 진행되였다. 최홍철은 지심을 울리며 터지는 그 발파소리가 마치도 자기의 심장을 갈가리 찢어 발기는것만 같아 두손으로 널직한 가슴을 꼭 부여잡았다. 생각할수록 오봉수가 패썸했다.

이윽고 발파가 끝나자 러단장, 참모장, 중대장들이 대피호에서 나와 칼벼랑발파상태를 검열하기 시작했다성파가 대단한지 그들이 이르는곳마다에서 《야! 》하는 환성이 터져오른다.

발파된곳 앞에는 착암수들이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우고 자랑스레 서있었다.

최홍철은 웃음발을 날리며 걷는 중대장들의 맨 뒤에서 맥빠진 걸음을 간신히 옮겨놓았다. 앞서 걷는 러단장이 《대단하오. 대단해.》하고 연신 감동에 젖어 말했으나 그의 귀에는 칭찬하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의무감에 사로잡혀 머리를 수그리고 땅만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며 터벅터벅 걸던 최홍철은 《〈호랑이중대장〉이 어디 있소?》하는 러단장의 부름소리에 가슴이 왈칵 내려앉는

듯했다.

(아, 이제 리더장이며 중대장들이 시까스르겠지. 평소에는 호랑이요 뭐요 하더니 실지 경기를 해보니 시라소니라고. 하긴 중대의 모든 돌격대원들을 강태식이처럼 키우지 못했으니 그런 소리를 듣는대도 할말이 없지.)

《여기 있습니다.》

최홍철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리더장이 있는 앞으로 어청어청 걸어나갔다.

《거 어째 〈호랑이중대장〉의 목소리와 걸음걸이가 땅속으로 잦아드는것 같다.》

리더장은 이러며 껄껄 웃었다.

(원참, 오봉수네 조를 경기에 끌어내가지구 남을 잔뜩 골탕먹이구는…)

리더장을 나무라며 오봉수네 조앞으로 나간 최홍철은 깜짝 놀랐다. 오봉수와 박원향이 환히 웃으며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중대장동무!》하고 부르는것이 아닌가. 나란히 선 그들의 손에는 아름답고 소담한 붉은 꽃송이가 들려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아 발파한 구간의 돌은 자기가 그토록 믿고 마음놓았던 강태식의 조보다 배에 가까운 량이 떨어져있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감투끈이야?!)

그는 큰 눈을 디부룩거리었다.

그때 리더장이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기쁨을 담아 말했다.

《역시 〈호랑이중대〉 돌격대원들이 통이 크단말이 요. 통이 커. 오봉수동무네 조는 세 구멍을 뚫어 폭약을 절약하면서도 돌은 다른 착암조의 배나 날려보냈거든.》

최홍철은 오봉수네 조가 중대의 명예를 지켜냈다는것이 꼭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었다. 현실임을 알자 그는 크나큰 기쁨으로 목이 꺾 메었다.

《그래 어떻게 세구멍을 뚫을 생각을 했소?》

리더장이 주위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모양으로 오봉수에게 물었다.

《저… 우린… 여러번의 시험을 거쳐 암질에 따르는 발파구멍각도를 새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시험을…》

최홍철은 마지막 시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귀가 멍멍해졌다. 시험이 성공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실패했다면 어떻게 될번했는가. 그러자 그는 기쁨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머리털이 쭈뼛 곤두섰다.

《봉수동무, 도대체 이게 무슨짓이요? 생산경기장이 뭐 시험장인줄 아오?》

그리고는 리더장에게로 돌아서며 성이 나서 들

어냈다.

《리더장동지, 이견 너무합니다. 경기야 어디까지나 경기지 시험장소가…》

그러자 리더장은 등그스름한 얼굴에 빙그레 웃음을 담으며 말했다.

《내가 〈호랑이중대장〉을 여적 잘못 보았었나?

중대장동무, 중전대로 똑힘으로나 하는 경기야 무슨 그리 중요하겠소. 우린 일을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청년들을 수리개로 키워야 해. 억센 수리개로! 우리 청년지휘관들이 그들의 희망찬 꿈을 억누른다면 조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소.》 순간 최홍철은 무쇠방망이로 머리를 호되게 얻어맞은듯 멍하였다.

(아, 그렇됐구나. 그래서 리더장이 새벽이슬을 차며 중대로 우정 내려와 오봉수네 조를 짚었됐구나. 그런 깊은 속도 모르고 나는…)

최홍철은 자신의 지난날이 쓰겁게 돌이켜졌다.

지난날 그는 오봉수와 박원향이 하루 일이 끝난후에 돌아가며 암반조각을 들고 다니는것을 보고는 무슨 박사가 되겠느냐고, 돌격대원은 중대장이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 잘하면 된다고 타발을 했던것이다.

(아, 나야말로 정말 청명파니야. 눈앞에 벌여지는 일만 일이라고 내밀었지. 북부철길 건설장을 앞길이 양양한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의 꿈을 키우는 활무대로 보지 못한 난 호랑이가 아니라 시라소니야 )

최홍철이 머리를 푹 숙이고 눈을 습벅이며 깊은 자책에 잠겨 모대기는데 오봉수와 박원향이 밝게 웃으며 그에게로 다가와 꽃송이를 내밀었다.

《중대장동무, 오늘 경기는 중대의 명예를 걸고 한것이니 이 꽃송이는 중대장동무가 받아야 해요.》

《아니요. 제발 이리지들 마오. 이리지들 말라니까.》

최홍철이 어줍게 손을 내젓는데 붉은 꽃송이에선 서로 위하는 그들의 미쁜 마음인양 진한 향기가 그윽히 풍기었다.

리더장은 그 향기를 가슴깊이 들이키며 진정 크나큰 기쁨에 넘쳐 하늘땅이 좁다하게 껄껄 웃었다. 옆에 선 사람들도 더없이 가볍고 즐겁고 상쾌한 마음으로 리더장을 따라 웃었다.

따사로운 해빛아래 착암경기장에서 활짝 피어난 밝고 명랑하고 호탕한 그들의 웃음소리는 아찔하게 솟은 칼벼랑에 부딪혔다가 햇솜처럼 부드러운 여운을 살며시 남겨놓으며 미풍에 설레이는 압록강버들숲 저 멀리로 조용히 울려야갔다.

# 기적소리

정성환

기적소리가 울리누나  
개통의 첫 기적소리가  
강물을 휘젓는 노와도 같이  
이 마음 휘저어놓으며

저 기적소리에 모두들  
제나름의 생각에 잠기는가  
차타고 배타고  
쉬이 온 길이 아닌 630 리  
새소리 물소리에  
취해 걸은 길도 아닌 630 리

눈바람을 헤치며  
석수에 젖으며  
가당은 이 길에서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억세고 사나운 대자연이 끼친 피로를  
깨끗이 풀어주는 기적소리여

인민의 행복 위한 일이어서  
하늘의 금별을 따올 몸이 너에게 들었구나  
정녕  
미루지 못할 전투였더라  
그처럼 짧은 세월에  
북방의 대자연을 정복한것은

그 누가 여기에  
민족의 존엄이 얹혀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다  
허나 성에장 떠내리는 강물에 몸이 얼 때  
정날에 벼랑이 대항해나설 때  
그 생각 못한 사람 있었더냐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고개 젓는 천고의 산악을 뚫고  
남들이 허를 차는 사나운 강물을 헤치며  
화살처럼 곧은 길을  
기어이 열어놓지 않았느냐

우리 노력의 열매로 맺힌  
값높은 그 기적소리 듣기 위해  
이 시각엔  
산속의 새들도 그 우짚음 멈추고  
천체의 운동마저 멎어선듯싶구나

기적소리여  
오늘은 너의 날이다  
서로 부둥켜안으며  
꽃보라가 점점이 오른 머리들을 맞비비며  
어깨를 들먹이는 우리 마음 안다면  
다시 또다시 북방천지를 뒤흔들어주려마  
하늘이 쨍쨍 울리도록  
수려한 산발이 설레이도록

수십번이나 가로막는 그 험한 산뿌리를 꺾절려  
백여개나 가로놓인 철다리를 건너  
그 기적소리 온 나라의 창문을 두드리면  
누구는 여기서 어떤 위훈 세웠고  
누구는 여기서 언제 당에 들었고  
누구는 어떻게 영웅이 되었다는 사연  
가려들지 못할 사람 어데 있으랴

기적소리여 울리여다오  
우리 이제껏 나이 들며  
사귄 사람 좀 많으나  
그들에게 변변히 소식조차 못전한 마음  
사회의 그 마음도  
오늘은 너에게 담으려나

아, 내 사랑하는 기적소리  
이교장에 찍혀질 길손들의 수억만 발자욱도  
우리 당의 뜻대로  
벌써 한품에 다 걸어안고서  
빛나는 미래로 올려가는 기적소리  
강철의 의지로 민족의 존엄을 떨친  
용감한 우리 청년들의  
뜨거운 추억의 노래여

시조

## 청춘로반을 거닐며

리광근

### 첫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아직은 그 이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산골짜기 작은 역  
이제 조국의 지도우에  
청년들의 이름으로 새겨질 이 역에  
내 평양의 첫 손님으로 온것인가

차표도 없이  
역원도 없는 문을 지나  
나는 역홈에 들어선다  
마치 먼 여행길에  
내 처음으로 기차를 기다리듯이

그렇구나 나는 이 역의 첫 손님  
험한 이 산골에 철길을 낸  
청년들을 찾아온 평양사람  
떠들썩 웃음짓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첫 열차가 들어설 시간을 기다려  
내 마음 이러히도 울렁이는가

그렇지 않으랴 이 젊은 건설자들  
철길의 다짐돌과 침묵 하나하나에  
몇해를 두고 흘린 땀이 숨배였어도  
오히려 날더러 때마침 수고로이 왔다고

나보다 더 기뻐하는구나 이 청년들이  
아마도 이 역의 첫 손님인 나를 두고  
이제 수십년 세월과 세월에  
수없이 드나들 하많은 사람들  
그네들의 즐거운 여행길을 그려보았으리

그렇더라 청년건설자들의 그 기쁨  
그 자랑에 실려  
내 마음은 들어설 첫 열차에 앞서  
평양의 첫 손님으로 열차에 오른다  
돌격대원들의 그 뜨거운 마음의 열차에

### 낮익은 구역이름들

산넘어 령넘어 골짜기 지나  
보이는것 마주오는것 첩첩 산이더니  
저 보아라 산비탈에 뻗어간 로반  
개울가 늘어선 아담한 병실입구에  
어허, 보란듯이 나붙었구나 낮익은 구역이름들

나서 처음 듣기도 처음  
산골에도 깊은 산골 이 공사장에서  
저 멀리 떠나온 평양의 구역이름들로  
중대를 무은 청년들의 손 반가이 잡노라니  
사람들마저 구면같이 낮익은듯

만날 사람도 많아  
북부철길 몇백리라 갈곳도 많아  
어허라 령넘어 또 몇십리  
강건너 이웃나라가 지척인 여기에도  
그 어디에 들려도 평양의 구역이름들

늘쌍 다니고 부르던 구역이름들이건만  
조국땅 한끝 이 철길공사장에서  
만경대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낮익은 그 이름들에 그 사람들을 만나니  
어허, 북부철길 몇백리 한구간을  
수도의 이름으로 열여가는 자랑도 크구나

로반을 걸어도 차굴에 들어서도  
그 자랑 흐뭇이 안겨와  
만나는 청년들마다 그 영예 긍지높이  
들려주는 이야기 또한 뜨거워  
내 마음조차 후터워지나니

십리 굴뚝기를 두고  
끝내야 할 날자를 두고  
로반을 내야 할 《비행기고개》 벼랑을 두고



언제나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언제나 우리가 하겠다고

어허, 북부철길 굽이굽이에  
어려운 일, 힘든 구간 나서는곳에  
수도의 구역이름들과 함께  
이 어간 로반과 차굴과 철다리는

그 어디, 그 얼마

남다른 힘과 지혜 따로 있었던가  
평양에서 달려온 그 영예가  
힘이 되고 지혜되어 앞장섰나니  
어허라, 여기로 끝없이 오가는 렬차따라  
온 나라에 수도의 숨결 더 깊이 숨배이리

## 처녀시절의 마지막을...

맑고도 깨끗한 눈얼음이  
살쫂이 녹는 양지쪽 로반에  
머리 다소곳이 앉아있는 처녀  
북부철길 몇해에 나이도 다 찼는데  
다른 생각 없는가고 물으니

고운 얼굴 살짝 붉히며  
아직은 전기화도 못끝냈는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는가고  
이 우로 전기기관차가 달릴 때까지  
처녀시절을 여기서 마치겠노라고

그래도 때가 있는데 놓치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내 오히려 부끄러워진다  
그럴바엔 오지부터 앉았을것이라고  
기특하구나 속깊은 네 그 마음은  
너의 처녀시절이 끝나기전에  
전기화도 앞당겨끝나리니

처녀야, 네 가슴에 그 맹세를 품고있어  
저기 차굴을 내던 날엔  
남자들과 승벽을 다투었구나  
로반의 다짐돌 끌어올리기에서도  
남보다 두배의 맞들이로도 성차지 않아  
그 어깨에 배낭까지 메고 달렸구나

살얼음 덮인 차디찬 개울북판에  
저 교각의 주추들을 묻던 날엔  
가로막는 남동무들의 손을 뿌리치고  
얼음물에 뛰어들기는 그 몇번...

타오르는 우등불에 언뎀을 녹이고  
숙소로 돌아오는 저녁이면  
산촌의 밝은 달빛 조용히 밝으며  
남모르게 정든 청년과 나란히  
가슴에 고이 품은 꿈도 나누었으리

묻지 말자 묻지를 말자  
꽃향기 풍기고 실버들 늘어진  
대동강의 유보도가 그림지 않는가고  
하루일 마친 저녁 문열고 들어서면  
단란하고 훈훈한 평양의 그 집이...

묻지 말자 다시 묻지를 말자  
아름다운 그 마음, 그 진정을  
너는 꽃피는 처녀시절의 마감을  
여기 북부철길 공사장에서 마친다 해도  
아니구나 활짝 핀 네 보람찬 시절은  
여기에 바친 위훈의 첫 자욱에서  
시작되는것이구나

## 청춘시절의 영원한 구간

수고가 많구나 미더운 청년들아  
화려한 수도의 그 거리를 떠나  
조국의 한끝 이 벽지에서  
산을 허물고 굴을 뚫고 다리를 놓으며  
열어놓은 철길이 몇백리나

손잡아 이끌어주고 떠밀어주며  
강설이 무릎치는 아득한 령 넘어  
한창 피어나는 청춘의 한시절을  
북부철길 이 공사장에 말없이 바치고있으니

단발머리로 집떠나온 처녀들이  
여기서 몰라보게 숙성해지고  
첫날상을 물리자 떠나온 신랑들이  
태어난 둘째아들의 소식도 여기서 받고

어찌 생활사의 즐거운 이야기만이라  
위훈과 자랑의 이야기는 더 많아  
칼벼랑에 바줄을 타고 착암기를 들이대며  
굴러내리는 바위도 한몸으로 막아내고  
철다리라 굴뚝기라 로반쌍기라  
철길건설의 능수가 된 보람찬 나날이여

날마다 위훈의 새 소식으로  
 맞고 보낸 하많은 나날  
 앞가슴에 번쩍이는 훈패는 얼마이며  
 붉은당원증을 소중히 받아안고  
 감격에 눈물짓던 청년들 또한 얼마나

사람마다 청춘시절은 한때이고  
 그 한때에서도 가장 좋은 철을  
 이 땅의 북방, 철길 굽이굽이에  
 고스란히 바쳐가는 오늘의 나날을

해가 갈수록 나이들수록 못잊으리니

자랑하노라 우리 당의 새 세대들이 청춘을 바쳐  
 백년, 천년이 가도 드팀없을  
 아, 이 강산 한끝에 몇백리 철길을 열어  
 우리 시대 청춘시절의 한 구간을  
 조국땅에 영원히 남기고있어라

-북부철길 평양시려단에서-  
 1988. 3

## 우정에 대한 시

김철민

생각이 깊었더라네  
 출장길에 전우의 행차를 찾으며  
 자정이 훨씬 깊어서야  
 여섯번째로 찾은 집문을 두드리며

정말 이 집이 맞거나 할가  
 정말로 전우의 집이 맞는데도  
 마흔해 가까이 생사를 모르고있었으니  
 제대로 알아나볼가? ...

허나 아니할 생각  
 문목에서 우린 첫눈에 알아보았네  
 문목이 꺼지게 와락 그러안았네  
 앞이마 툭 찡고 핑그르르  
 몇바퀴나 돌았던지

방안에는 분주살 피우는 안해며 아이들  
 그들은 생면부지인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네  
 총각시절에 전우가 붙여준 별명대로  
 《땅크아저씨》라 불러주었네

그들은 진정 알고있었네  
 내 모습 내 이름  
 배추쌈을 좋아하던 식성까지도  
 막내아들은 무릎에 올라앉아  
 우리 피흘려 싸운 그날을  
 본것처럼 외웠네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무수한 전선 지명들과 엇갈리는 전투들...  
 끝없는 그 이야기를 타고  
 그날의 전선길은 다시 이어지고...

-자네,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했군!  
 -응, 그저 그렇게 됐네  
 전화의 그날처럼 뽀뽀 코를 붙며  
 전우는 진한 술 가득히 따르는데  
 이 가슴 바닥에 불담처럼 고이는것은  
 내 언제나 전우의 생활속에  
 함께 숨쉬고있었다는 생각

아, 술이야 깨일 때 깨련만  
 포연을 함께 마신 사나이들의 우정에야  
 그 끝이 있을까  
 먼동은 희뱃이 터오고  
 아이들은 무릎위에 곤드라졌어도  
 우리는 병사시절처럼 어깨걸고 잠들지 못했네

아, 우정이란  
 함께 있어 깊어지고  
 주고받는것 많아서 귀중한것 아니었으니  
 조국을 위해 맺어진 우정은  
 조국! 그것처럼  
 우리의 심장속에서  
 갈라낼수도  
 지울수도 없는것이였네

## 인생의 영원한 꽃

최정택

나는 어려서부터 꽃을 무척 좋아했다. 우리 집 프락에는 커다란 꽃밭이 있었다.

장미꽃, 무궁화, 접중화, 채송화, 다리야...가 지수를 헤아리자면 한참 손꼽아야 했다. 어찌다 어머니 손목잡고 외가집에 갔다가도 꽃들이 생글 생글 웃으며 나를 기다리는것만 같아 외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달음박질해온 때도 있었다. 꽃처럼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것은 이 세상 더는 찾아볼수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 프락과 동네길가에서는 《꽃은 나, 나는 꽃》이라고 부르는 나의 목소리가 동요처럼 자주 울리곤 하였다.

마치 한생을 꽃과 함께 살듯이...

그런데 꽃으로 웃고 꽃으로 기뻐 뛰놀던 나의 마음속에는 계절이 바뀔때 따라 그들이 지군하였다. 먼산에 단풍이 피는무렵이면 그토록 아름답던 꽃들이 웬일인지 한잎두잎 고운빛갈을 잃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몽땅 시들어버리는것이였다. 이럴 때면 벌과 나비를 더 볼수 없게 된 우리 집 프락은 텅빈것만 같았다. 퇴마루에 앉아 두손으로 턱을 고이고 앙상한 줄기만 남은 꽃밭을 내려다보는 어린마음에도 생각이 깊어지군하였다.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는 꽃은 없을가?)

그때로부터 해마다 꽃피는 계절이 와도 꽃을 아끼고 부러워하는 아이는 비껴들지 않았다.

철이 들면서 꽃은 한갓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해마다 피고 진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였다.

생활은 더없이 만족하였고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이러한 나에게 생활을 두고 인생의 의무를 두고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된 전환점이 찾아올줄이야...

내가 여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 일하던 나날에 있는 일이었다. 남포에서 건설장까지 수백리길을 날라온 백수십여톤의 세멘트분쇄기가 도착하는 날이었다.

드디어 렬차가 도착하였다.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 경탄해마지 않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높이 울렸다.

《자 언제까지 쳐다만 보겠나. 이 거물을 단숨에 부리워버리자구.》

연공 김완기아버이었다.

(아니 저 아버이가?! )

존경과 감탄의 눈길을 받으며 쇠바줄을 거머쥔 아버이는 능숙한 솜씨로 세멘트분쇄기를 차판에 고정시킨 지구를 해체하는데 달라붙었다.

무거운 침목을 닝큼 들어올려 메어나르는데 하던 때로는 차판에 올라가 기중기고리에 걸린 쇠바줄을 고쳐 매주고는 다시 내려와 기중기차 운전공에게 혼수를 하기도 하였다.

주름진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두눈은 숯불처럼 이글거렸다. 팔다리의 근육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확확 뿜겨나오는듯싶었다. 사람들속에서 탄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저런 아버이를 누가 늙은이라고 보겠나.》

《고목에 꽃이 핀다는 말이 아마 완기아버이를 두고 하는 소리갈애.》

순간 고목에 꽃이 핀다는 말이 나의 가슴을 찢었다.

(고목에 꽃이 핀다...)

거듭하여 그말을 받아 외워보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 되살아 올랐다.

눈앞에 닥쳐어 피어나는 꽃송이들!

장미꽃, 채송화, 다리야... 그 하나하나의 꽃들을 그려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꽃들이기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저 아버이를 두고 말하는 꽃이란 대체 어떤 꽃일까?

나의 눈앞에는 지난날 완기아버이의 가지가지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수십미터가 넘는 가소탑 위로 설비들을 올릴 때였다.

작업반장은 젊은 연공들은 꼭대기로 올라가고 나이 많은 연공인 아버이는 땅에서 쇠바줄이나 걸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이가 한결을 나서더니 《여보게 반장, 땅에 있는것이 무슨 연공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신 여기 건설장에 달려온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줄은 정말 몰랐네.》하면서 씨엉씨엉 앞장서서 가파로운 층계를 오르는것이였다. 어찌 이뿐이라!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엔 연공에게 있어서 신발은 날개와 같다고 하면서 밤늦게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젖은 숨

신발을 한켠에 두켠에 군불을 지펴가면서 말려놓던 아버지!

바로 이런 아버지였기에 거물급인 세멘트분쇄기와 맞서 승부를 겨루는것이 아닌가.

어느덧 나의 눈앞에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과 광복거리 건설장 그리고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과 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새로운 200일전투로 들끓는 조국땅 방방곡곡 전투장들에서 인생의 말년을 빛나게 장식하고있는 건설의 《로병》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라없고 주권없던 그 세월! 모진 천대와 고역속에서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생을 마치던 사람들이 오늘은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며 삶을 빛내일진대 그 힘 그 열정을 누가 주었는가.

대대로 내려오며 이어받는 가문의 《덕》이라 할가? 아니면 어머니 젖꼭지에서 떨어진 그 순간부터 타고난 《기질》이라 할가?

아니였다. 이 건설장에만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과 60돐 생일상을 받아안고 온밤 뒤척이며 잠 못들던 아버이들과 크나큰 정치적 신임을 받아안고 온 가족들과 함께 충성의 구슬땀 바쳐가던 사람들 그 얼마였던

가.

만물을 키운다는 하늘의 태양도 엿바귀는 계절을 어찌지 못하여 생물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게 하건만 가슴속 품은 생각, 인생말년의 그 소원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리시여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품!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불사약으로 영원한 청춘의 활력을 주시며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시는 것이다.

아, 꽃! 자연의 법칙에 따라 피고지는 꽃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 이름 빛내이는 주체의 빛발아래 영원한 삶을 노래하는 꽃!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햇빛 넘치는 강산에서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을 따르며 사랑과 믿음에 의리로 보답하기 위해 붉게붉게 피어 향기 풍기는 완기아버이 모습에서 찾아보게 되는 영원한 인생의 꽃이었다.

나의 가슴은 마치 어린 시절 트랙의 꽃밭앞에 선것처럼 설레었다.

《나는 꽃, 꽃은 나.》

나의 가슴속에서는 철부지시절에 외우던 이 말마디들이 되살아나 울리었다. 시처럼 노래처럼...

## 어머니의 눈물

원석파

항쟁의 거리에 청춘을 바친  
아들의 봉분앞에 밤새워 펴구는  
어머니의 더운 눈물은  
망월동 푸른 언덕을 적신다

아, 이 정이런 땅은 누구의 땅인데  
저 하늘은 또 누구의 하늘인데  
오늘도 땅과 하늘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야 하는가

어머니의 눈물은 그 눈물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만이 아니다  
갈라진 겨레의 속마음에 고이고 고인  
원한서린 민족의 아픈 피눈물이다

그 누가 그 눈물을  
연약의 표현이라 탓하는가  
그 눈물은 그 눈물은  
항쟁을 잉태한 분노의 불길

그 눈물에 불달려  
독재자의 정수리에 화염병이 날아가고  
미제가 도사린 땅에 대오가 노도친다  
온 남녘이 통일의 문고리를 흔든다

그렇다 내 시구도 시행도  
그 눈물속에 심지를 내리고  
복수의 불화살을 치갈며 겨룬다  
통일의 새날을 목타게 부른다

## 탄광마을이야기

리영준

내 고향은 동해지구의 어느 한 탄광마을이다. 어찌나 깊은 산골인지 대낮에도 벌이 나왔다고 한다. 마을 앞산엔 거인의 도끼날에 다듬어진듯한 절벽이 있는데 그것을 범바위라고 불렀다. 어린날의 추억이란 삼각원추모양의 석탄무지들을 요리조리 빠져다니며 뛰놀거나 범바위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범바위에 올라서면 바다가 보인다. 여기서 보이는 그 바다는 누가 산기슭에 떨어어버린 거울조각 같은 것이었다. 맑은날에 바라보이는 그 푸른 바다는 영락없는 거울조각이었다. 우리 탄광마을 아이들은 너나없이 범바위를 타고앉아 반짝거리는 그 바다를 바라보기 제일 좋아했다.

이제는 그 시절이 아득히 뒤로 벌어졌다. 지금 누가 나에게 고향을 묻는다면 나는 조선지도에 밝혀진대로 탄광지구의 이름을 댈다. 그리고 고향의 자랑에 열이 오르군한다. 우리 고향의 탄은 번들거리는 고열탄인데 한번 손에 쥐면 놓고싶지 않고 놓으면 손바닥에 기름기가 번들거린다고...

나는 고향의 탄자랑을 늘어놓다가는 이렇게 말끝을 맺군한다. 우리 탄광마을은 조국이 맡겨준 석탄계획을 한번도 못해본 일이 없다고! ...

그러나 나는 고향 탄부들의 가슴속에 깃든 그 성과의 비결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주는 못하였다. 그 비결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한마디의 말속에 담을 수 있으랴. 그런데 며칠전 고향에 가서 그 비결이 생각날줄이야...

전국영웅대회의 호소를 받들고 새로운 200 일전투의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고향사람들, 탄부들은 들끓고있었다. 콘베아를 타고 폭포처 쏟아지는 석탄... 석탄... 눈부신 위훈을 소개하는 속보관들... 《장하다 우리의 굴진소대!》 《채탄 1 중대 오전 현재 하루계획 125% 돌파!》 《통일강 200 일전투계획 완수!》... 현장방송원의 목소리는 격동에 젖어있고 막장입구에서 울리는 취주악의 음향은 골안을 들썩거린다. 아이들의 소고행렬은 마을을 감돌고... 참으로 놓아주고싶지 않은 고향의 하루이다. 나는 가슴뿌듯함을 느끼며 인차에 몸을 실었다. 이 탄광의 이름있는 오랜 탄부인 리달연아바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바이는 해방전부터 이곳 탄광에서 일해온 사람들중의 하나였으며 이미전에 세상을 떠난 나의 아버지와도 막역한 친구지간이었다. 나는 고향에 올 때마다

아바이를 막장에서 만나곤했다. 왜 그런지 집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내가 찾아간 막장에 아바이가 없었다. 아바이는 오늘 하루동안의 《로동금지》처벌을 받고 안전교양실엘 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정수리에 번개불을 맞은듯했다. 처벌? 무슨 오해가 생긴 건 아닐까? 아바이가 무얼 잘못할 수 있단 말인가? ...

나는 사정없이 갈마드는 의문을 물리치기라도 하려는듯 그자리에서 발길을 돌려 안전교양실로 향했다. 허나 그것은 오해가 아니었다. 안전교양실의 문을 열던 나는 그자리에 얼어붙고말았다. 아늑한 방에 홀로 앉아 어텐가를 초연히 바라보고있는 그는 리달연아바이가 분명했던 것이다.

《아바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음 자네 왔나?》

그다음엔 이윽도록 말이 없다. 그저 수북한 장미를 숨벼거리기만 한다.

《내가 벌을 받아 짜지. 우리 소대에 배치된 한 젊은 녀석이 글썽 애들처럼 덤벼치다나니 안전등이 끊어진 작업모자를 쓰구 막장엘 들어가지 않았겠나.》

《예- 안전등이요?!》

《...》

나는 웬 영문인지 몰라 눈만 꺼먹거렸다. 물론 젊은 청년의 부주의를 깨우치느라고 그를 책잡긴 아바이가 자진하여 처벌을 받고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아무래도 믿어지질 않았다. 《전투중지》의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아늑한 방에 홀로 앉아있는 아바이의 그 마음속도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았다.

《내가 그 녀석에게 아직 큰결 깨우쳐주지 못했어. 커다란 뜻을...》

《로동안전규정말입니까?》

나의 물음에 그는 무겁게 머리를 저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뜻을 내가 잘 받들지 못했네.》

쿵- 둔중한 충격이 나의 가슴에 마쳐왔다. 순간 나는 마음의 안정을 잃었다.

(아, 우리 수령님의 뜻! ! ...)

이 순간 로동안전교양실의 흰눈처럼 정갈한 벽에 모셔진 아버지수령님의 명제판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탄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설비, 로동보호설비를 더욱 완비하며 탄광내 작업에서 질서와 규율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아바이의 장미수북한 눈언저리에는 이슬방울이 서서히 돌아올랐다.

《우리 탄광에서 성능높은 새 기계들이 탄을 캔다고만 생각하나… 탄부들이, 사람들이 캐네. 탄부들을 것처럼 아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굽이치고있어서 저렇게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게 아니겠나.》

아바이는 흰머리를 떨구었다. 쇠장대를 건너지른듯한 그의 어깨가 흔들리고있다. 나는 목이 꼭 막혀왔다.

우리 탄부들에게 돌려지는 위대한 당의 사랑과 혜택은 저 영양제식당에도, 저 산골짜기에 생긴 양어못과 야간정양소에도 공장대학과 다층살림집에도 어려웠는것이다.

우리 당이 제기한 기술혁명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도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키자는데 있지 않는가!

불현듯 세월의 저 끝에 묻어두고온 나의 동요시절 추억의 한 토막이 화살처럼 날아온다.

… 해방되던 그해 봄날, 알탄덩어리처럼 새까매진 나는 범바위우에 올라가 탄마구리를 만들어 놓고 소꿉장난에 취해버렸다. 마구리앞에는 작은 봉분들도 몇개 … 나는 초상났다는듯 엉엉 울기

도 하며 어른들처럼 곡을 하기도 했다. 그날도 버럭에 인부들을 묻고 돌아오던 아버지는 살점이 묻어 나도록 나의 뺨을 쳤다. 그리고는 허공 들어올렸다. 흑뿌리 선산네 집이 바늘끝처럼 아물거리고 하늘땅이 뱅뱅 돌았다. 《이놈아, 다시 그 따위 장난질을 하겠니 안하겠니.》 나는 너무 무서워 아픈 줄도 몰랐고 울지도 못했다. 새새끼처럼 파들파들 떨기만 했다. 어머니는 말려줄 생각도 안하고 울기만 하였다. 장난을 해도 그런 장난을 하면 못쓴다고…

아! 그날의 아버지의 매 오늘은 왜 이리도 아픈가. 눈물은 왜 이리 동을 터치는가…

나의 뿌잇한 눈앞으로 범바위 절벽에 들이박힌 《로동안전》의 글발이 한가득 안겨온다. 백호가 앞발을 버티고 선것 같은 바위, 어릴 때 나의 또래들이 조각거울같이 반짝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던곳, 그 절벽바위에 《로동안전》이라는 글발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오늘은 단발머리치녀가 그곳에서 흰 안료를 탄 바게뜨며 술을 들고 타발타발 걸어내려온다. 아마도 보석을 하고 내려오는 길인듯싶다. 거기엔 사람을 아끼는 우리의 좋은 세월이 꾸밈도 보렘도 없이 적어넣은 석탄증수의 비결이 있으니 이제 지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두고 읽으리라. 내 고향 탄광마을의 전변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읊으리라!

## 압록강가에서

신병강

분계선마을에서 나는 왔다  
북변의 굽이굽이를 감돌아흐르는  
압록강가에 서니  
푸르른 물결이 가슴을 적신다

물결너머 저편에선  
빨래하러 나온 녀인들  
물장구치는 조무래기들…  
강북판으론 유유히 긴메목이 흐르는  
여기가 나라, 나라를 가른 국경 이라고는  
선듯 믿어지질 않누나

《아!》 소리쳐부르니  
《어!》 화답하는 소리  
저 손저어 반기는 사람들을 보노라니  
내 두고온 립진강 물결이  
가슴을 저미며 달음쳐오는구나

마주한 산천도 예와 다름이 없고  
흐르는 강물도 예와 다름이 없건만  
인적하나 볼수 있었던가

그 강기슭엔…

오, 물론니 압록강아, 국경아!  
나라, 나라를 가른 이곳에서도 볼수 없는  
분렬의 장벽은 립진강가에만 있어야 하는가  
불러도 불러도 대답없는 가슴 타는 침묵은  
내 떠나온 그 기슭에만 있어야 하는가

조국땅이 끝나는 이 기슭에 와서  
이국의 산과 들을 마주하니  
한나라 한민족의 분렬의 고통  
더더욱 이 가슴이 미어진다  
으스러친 두주먹이 조용히 떨린다

해는 저물어 고요한 이 강가에  
노을은 곱게 내리여도  
고요하지 않구나, 이 마음  
바이 식힐길없는 가슴을 풀어헤치니  
어깨우에 지워진 세대의 임무를 잊지 말라  
세찬 물결소리 격침처럼 심장을 때린다  
아, 흘러 흐르는 립진강 립진강

## 간석지의 하루

박동철

푸른 새벽빛에 휩싸인 간석지는 꿈결에 뒤채듯 안개를 걷으며 깨어난다. 1차마감막이공사가 끝난 간석지공사장은 바다를 돌로 갈라놓은듯한데 갈매기와 종달새가 서로 어울려 김푸른 새벽하늘을 날아예기에 아직은 어느쪽이 바다이고 물인지 식연치 않다. 투석장을 향해 붕! 하고 떠나는 배고동소리와 함께 부두마다에서는 짐싹기작업을 하는 굴착기와 불도젤의 동음소리가 노래처럼 들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석지를 개간하고 새땅을 찾는것은 곧 알곡 생산을 늘이는것으로 됩니다.》**

공사장을 돌아보던 정무원돌격대 대대장 정수원은 현장속보판의 맨 첫머리에 씌여진 글발에 눈길이 갔다.

새로운 200일전투가 앞으로 며칠 남았다는것을 알려주는 수자였다.

어제보다 하루 또 줄어든 수자다.

정수원은 무엇을 잃는듯한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바다를 막아 룡지로 전변시키는 대자연개조의 방대한 건설사업의 속도를 200일 이라는 날자와 떼어놓고 생각해보는 일이 없는 그다. 대대앞에 부과된 전투과제를 남은 날자로 쪼개여보면 정수원은 4호부두쪽으로 가는 감탕길에서 어물거리는 사람을 띄여보았다. 흰칠한 키에 채양이 긴 모자를 우로 제껴쓴 사람은 제1중대 2소대장 최락봉이었다.

《철서덕!》 감탕판에 돌맹이를 던져넣는 소리가 들리였다.

(저 사람이 벌써 출근했군. 그런데 저기서 뭘 하나?)

정수원이 그쪽으로 다가갔다.

《여기서 뭘하오?》

대대장을 알아본 최락봉이 흰이가 드러나도록 벌죽히 웃고나서 대답했다.

《지름길을 만들고있습니다, 대대장동지!》

《지름길?》

대대장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멀리 채석장쪽에 서 어깨로 메여온 돌맹이를 알맞춤하게 벌려놓은 징검다리가 보였다. 로동화를 신은채로 감탕판에 들어선 최락봉이 징검돌의 안전성을 확인이라도 하려는듯이 제먼저 디더보고나서 말했다.

《어떻습니까? 대대장동지! 이만하면 검측공들이 오고가는 시간을 3분은 단축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원이 되물었다.

《검측공들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소?》

《그런게 아니라 그들에겐 시간이 늘 딸리지요. 부두마다 설새없이 빙빙 돌자니... 그렇지만 소대원들이야 그걸 알아줍니까. 짐싹기작업이 끝나자 바람에 나타나서 확인해주어야 인차 투석을 하겠는데 이따금 몇분씩 늦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길을 에돌자니...》

최락봉이 손을 들어 저쪽 산골짜기까지 깊숙이 들어갔다 돌아온 길을 가리키고나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았는데 아마 3분쯤은 얻을것 같습니다.》

(3분이라... 3분을 얻었다말이지...)

정수원의 눈앞엔 어제저녁때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중대간 사회주의경쟁총화를 위하여 최락봉이 속한 중대에 내려갔던 정수원은 놀라운 일을 목격했었다.

최락봉이 상형된 얼굴로 중대장 박동수와 이야기하고있었다.

《중대장동무! 우리 소대는 지난달에 하루를 잃은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200일이라는 이 귀중한 날자중에서 하루를 잃는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애원하는 최락봉이앞에서 박동수는 잠시 침묵만 지키고있었다.

대대장 정수원은 처음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후에 알고보니 매우 딱한 일이었다.

1차마감막이공사때에 있던 일이다. 바위돌마저 뿌러던지는 몰살과 씨름을 하는 마감막이공사장은 인간과 자연의 힘을 판가리하는 결전장과 같았다. 룡지와 바다, 돌과 물, 진흙과 감탕이 서로 엉켜 힘내기를 했다. 온 부두가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총돌격했다. 그때 최락봉이네 소대는 4호부두에서 짐싹기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부두의 밑바닥을 파내어 큰 짐배들의 운행을 보장하는 일을 두대의 굴착기와 함께 최락봉이네 소대가 맡아했다. 그러다보니 하루 짐싹기작업을 하지 못했다...

최락봉이 그때의 하루를 찾아달라고 하는것이

였다. 방도는 교대조절을 하면 되니 중대장이 그렇게 하도록 조직해달라는것 이다. 중대장 박동수는 단마디로 거절했다.

《그건 안되요. 그리고 동무는 하루를 잃은것이 아니라 며칠을 더 얻은셈이요. 그건 전투실적이 말해주거든. 어제 하루동안만 해도 동무네 소대는 일전투계획을 2배로 초과수행하였으니 그 하루쯤은 보충하고도 남은셈이란말이요. 하루쯤은...》

최락봉이 무작정 부정하였다. 일계획을 초과수행한건 당일에 한한 문제이지 그것이 곧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는것으로는 될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박동수가 길게 설명했다.

《소대장동무, 자꾸 우기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오. 동무네 소대가 어떻게 되어 하루를 잃었던말이요? 그날 동무네 소대는 굴착기의 보조작업을 해주면서 부두도 깨끗이 하고 채석도 하지 않았소. 게다가 한구간 레무공사까지... 오히려 그 하루를 더 빛나게 장식한셈이요. 다른 소대동무들의 전투보장을 믿음직하게 해주었으니까. ...》

그러나 최락봉이 수궁할수 없다는듯 손을 내저었다. 기본임무인 짐싣기실적이 없는 그날은 200일전투 날자에 포함시켜넣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대를 생각해보자. 직접 적을 소멸하는 때만을 전투라고 하고 기타는 훈련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보면 200일전투라는 개념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가고 하면서 박동수를 납득시키려고 했다.

말문이 막힌 박동수가 《허허허》 웃고나서 말했다.

《글쎄 동무의 말에도 일리가 있소. 그렇지만 나로서는 흘러간 시간을 되찾아줄만한 능력이 없소. 도저히 불가능하단말이요.》

박동수의 말에서 실망을 느낀 최락봉이 할수 없다는듯한 표정을 안고 매우 섭섭해하더니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일을 더듬어보고난 정수원은 혼자 생각을 했다.

(최락봉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하루와 징검다리를 놓아 얻은 3분!)

최락봉과 헤어진 정수원은 줄곧 이 한가지 생각만을 굴리며 견고있었다.

그의 사색을 깨치기라도 하듯이 앞쪽에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대대장동지!》

함함한 머리가 곱게 드러나도록 파란 머리수건

을 땀시있게 꼭 졸라맨 처녀는 자동집배수리소의 통계원 배순영이었다.

《통계원동무로구만. 그래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4호부두에 갑니다.》

《거기는 왜?》

《소대장동무한테 이걸 가져다주려고...》 순영이가 손에 든 종이장을 내보였다.

《그게 뭐요?》

《수리한 자동집배 시운전지령서입니다. 수리소 반장아바이가 소대장한테 가져다주라고 해서...》

《반장아바이가?》

정수원이 다시 묻자 순영이가 내막을 밝혔다.

《소대장동무가 배운전지령서때문에 어제저녁 반장아바이네 집에까지 찾아와서 토론하였다고 합니다. 이달에 수리하는 자동집배는 모두 제일 가까운 락봉동무네 소대가 일하는 4호부두에 대주라는 지령서입니다. 수리하고 돌아가는 배에 짐싣기 작업지령을 주어 30분이라는 시간을 더 얻자는거랍니다. 반장아바이가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야 락봉동무네 소대가 연제인가 잃어버린 하루를 보충할수 있다고...》

《음-》 정수원은 깊숙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 다음 계산해보았다.

징검다리를 놓아서 얻은 3분과 수리한 자동집배에 짐싣기작업을 해서 얻은 30분...

이어 무수한 시간과 수자들이 정수원의 머리속을 땀돌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겠다고 열변을 토하던 최락봉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미더운 사람이였다. 최락봉이야말로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날자로서만이 아니라 시간과 분으로 쪼개가는 사람이였다.

정수원은 다시 머리를 들어 간석지건설장을 둘러보았다.

조국의 지도를 변경시키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의 완성의 그날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눈앞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바로 저 최락봉이와 같은 전투원들이 있기에...

저녁때 최락봉이 속한 중대에 다시 들리였던 정수원은 또 한번 눈을 크게 떴다.

최락봉소대의 사회주의경쟁실적표에는 그날 수리한 자동집배에 짐싣기한 작업량이 빠져있었던것이다...

200일전투로 뿔어번지는 간석지건설장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고있었다.